



제3부

부록

—

연혁

역대 위원장·부위원장·본부장·사무국장

역대 상임위원·위원

역대 수도자·직원

역대 조직도

교육분야 : 민족화해학교
 평화나눔학교
 화해·평화학교

사업통계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부설기관 : 평화나눔연구소

산하기관 : (사)우니타스

구술채록 : 노길명 · 조광 교수 | 최창무 대주교 |
 이기현 주교 | 정광웅 신부 | 염수정 추기경 |
 장금선 신부 | 오혜정 수녀 | 정세덕 신부 |
 정수용 신부

연혁

| 1995 |

1995. 2. 28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발족 회의. 위원장 최창무 주교 임명 (서울대교구청 회의실)
1995. 3. 1	민족화해위원회 공식 발족 선포
1995. 3. 7	제1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명동대성당)
1995. 3. 24	민족화해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의
1995. 5. 16-19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일행 중국 북경교구 방문
1995. 8. 15	박창득 신부(북미주 교포 사목부 총대리) 평양 방문, 김수환 추기 경 친서 전달 및 ‘평화를 구하는 기도’ 공동 기도문 채택
1995. 9. 10	장충성당과 명동대성당에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 공동 봉헌
1995. 9. 1-12. 31	북한형제돕기 헌미헌금 추진
1995. 10. 4-96. 4. 3	민족화해학교 제1단계 1기 교육 개설(명동대성당 문화관)
1995. 10. 27-11. 2	남북 해외 천주교인 뉴욕 세미나(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시 힐튼 호텔)
1995.	우니타스 설립

| 1996 |

1996. 3. 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봉헌 1주년 기념미사(명동대 성당)
1996. 6. 19	민족화해학교 동문회 창립총회(명동대성당 문화관)
1996. 6. 19-10. 9	민족화해학교 제1단계 2기 교육(명동대성당 문화관)
1996. 8. 11	북녘 형제와 국수 나누기 운동 추진
1996. 8. 13	민족화해위원회 현판식(명동 가톨릭회관)
1996. 8. 26	북한동포돕기 국수나누기 성금 전달(대한적십자사)
1996. 12. 23	겨레와 함께하는 감사의 밤 음악회(명동대성당)

| 1997 |

1997. 1. 27	민족화해위원회 단독 사무실 설치(가톨릭회관 6층)
1997. 3. 19-6. 25	민족화해학교 제2 단계 1기 교육(명동대성당 문화관)
1997. 3. 27-4. 2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 캠페인(명동 일대)
1997. 3. 31	북한동포돕기 감자 보내기 모금 전달식(강원도 평창군청)
1997. 4. 2	북한 식량난에 관한 실태 보고회(명동대성당 문화관)
1997. 4. 3	통일사목위원회 발족
1997. 4. 25-6. 25	한주 한끼 단식을 통한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운동
1997. 5. 20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보내기 범국민 캠페인 1차분 전달식(중국 단둥)
1997. 6. 4-7	남북 천주교인 북경 세미나(중국 북경 캠퍼스키 호텔)
1997. 7. 5	민족화해를 위한 북한동포돕기 선언문 발표 및 100만인 서명운 동 선포식(세종호텔)
1997. 7. 20-26	북한 식량사정의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중국 방문
1997. 9. 24-12. 10	민족화해학교 제2 단계 2기 교육 개설(명동대성당 문화관)
1997. 10. 12	북한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옷 보내기 캠페인 추진
1997. 12. 24	북한동포돕기 성금 전달(대한적십자사)

| 1998 |

1998. 3. 25-28	남북 천주교인 모임(중국 북경 캠퍼스키 호텔)
1998. 4. 3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정진석 대주교 임명
1998. 4. 6-26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 단식 모금운동
1998. 4. 25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 단식의 날
1998. 4. 27	제1차 교황님과 함께한 국제 단식 모금, 옥수수 전송식(중국 단둥)

1998. 5. 11-22	민족화해위원회 최초의 사목적 북한 방문
1998. 5. 30-31	민족화해학교 제3단계 1기 교육(합정동 꾸르실료 회관)
1998. 8. 23	민족화해를 위한 특별 대미사(명동대성당)
1998. 9. 17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식량 지원 협의 의향서 교환(중국 대련)
1998. 10. 29	북한선교 희망 사제 모임(가톨릭대 성신교정 대강의실)
1998. 11. 28	민족화해위원회와 통일사목위원회 공식 통합 출범(교구청 소회의실)
1998. 12. 12-15	의료지원 준비를 위한 북한 방문
1998. 12. 29	민족화해미사 200차 기념미사(명동대성당)

| 1999 |

1999. 1. 28	제1차 통합 민족화해위원회 상임위원회(교구청 소회의실)
1999. 4. 5-7	남북 천주교인 북경 만남(중국 북경 캠프스키 호텔)
1999. 4. 13	‘하이모’(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 결성
1999. 5. 19-7. 14	민족화해학교 제1단계 3기 교육(명동대성당 문화관)
1999. 6. 20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행사(명동대성당)
1999. 6. 26	북한 어린이 돕기 ‘북한의 이름모를 친구에게’ 일일 찻집(혜화동 대학로)
1999. 6.	위원장 강우일 주교, 부위원장 최창화 신부, 본부장 이기현 신부 임명
1999. 7. 15-16	민족화해 가톨릭 네트워크 형성 모임(장충동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1999. 9. 22	북한어린이돕기 자선 음악회(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1999. 12. 4-11	식량지원 수령 및 배급 확인을 위한 북한 방문
1999. 12.	본부장 정광웅 신부 임명

| 2000 |

2000. 2. 29.	주교회의 민화위에서 서울대교구 민화위로 후원회원 이관
2000. 4. 11-14	고려인 지원을 위한 연해주 방문
2000. 5. 1	민족화해위원회 후원업무 시작
2000. 5. 13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5주년 기념 워크숍(교구청 대회의실)
2000. 6. 10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전국 심포지움(가톨릭대 성신교정 대강당)
2000. 7. 5	북한선교 희망 사제 모임(가톨릭대 성신교정 진리관 대강당)
2000. 7. 8-15	물품 지원 현황 확인을 위한 북한 방문
2000. 8. 4-6	하이모 첫 여름 캠프(충남 금산 한국타이어 연수원)
2000. 11. 14-12. 6	지구별 민족화해학교 실시(11지구 : 역삼동성당, 14지구 : 대방동성당)

| 2001 |

2001. 1. 16	북한선교 희망 사제 모임(장충동 분도회관 피정의 집)
2001. 3. 20-24	국수공장과 협동농장 지원 논의를 위한 북한 방문
2001. 5. 9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모판용 비닐) 출항(인천항)
2001. 6. 23-34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행사(명동대성당)
2001. 7. 11	남포 국수공장 설립을 위한 지원 물자 축복식(인천항)
2001. 7. 17-24	국수공장 시찰 및 지원 물품 분배 확인을 위한 북한 방문
2001. 10. 5	함경북도 나선시 빵공장 지원 합의 체결

| 2002 |

2002. 2.	위원장 염수정 주교 임명
2002. 4. 6~13	농업용 비닐 지원 배급과 국수공장 현장 점검을 위한 북한 방문
2002. 7. 15~20	식량지원 배급 확인과 국수공장 생산 가동 확인을 위한 북한 방문
2002. 8. 14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통일 음악회(명동대성당 성모동산)
2002. 8. 14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
2002. 9. 10	법륜 스님의 막사이사이상 수상금 신천 국수공장 지원
2002. 10.	위원장 김운회 주교 임명
2002. 11. 22~28	식량지원 배급 확인차 북한 방문

| 2003 |

2003. 3. 2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 북한 신자 명동대성당 첫 공식 방문(명동대성당)
2003. 5. 30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 첫 월례미사 봉헌(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2003. 8. 31~9. 2	지원 밀가루 분배 확인 및 향후 사업 논의를 위한 북한 방문
2003. 9.	본부장 장공선 신부 임명

| 2004 |

2004. 3. 3	북한 밀가루, 농자재 지원 문제 합의를 위한 중국 북경 방문
2004. 3. 27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9주년 세미나(가톨릭회관)
2004. 4. 24	룡천역 폭발 참사 관련 위로 전문 발송
2004. 5. 4	룡천역 열차 폭발 사고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대한적십자사 본사)
2004. 5.	상명대 연구팀과 북한민 교육 프로그램 공동 연구프로젝트 실시
2004. 5. 15~18	대북지원 협의를 위한 북한 방문
2004. 6. 27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행사
2004. 7. 14	대북 인도적 지원-북녘에 보내는 사랑의 경운기 축복식(인천항)
2004. 9. 1	민족화해위원회 비영리법인 단체 등록 정관
2004. 9. 25	북한이탈주민 한가위 합동 차례(도라산 전망대)
2004. 9. 11~2005. 1. 29	북한이탈주민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가톨릭회관)
2004. 10. 30~31	한마음 가족 캠프(의정부 한마음 수련장)
2004. 11. 4	제1회 민족화해센터 건립 추진위원회 회의(교구청)
2004. 12. 7	겨레와 함께하는 민족화해 500차 미사(명동대성당)
2004. 12. 26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성탄절 및 송년의 밤(보문동 노동사목회관)

| 2005 |

2005. 3. 1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미사 및 행사(명동대성당)
2005. 3. 25	북한 동포 지원 못자리용 비닐 축복식(고성 통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2005. 4. 1	민화위-우리은행 북녘어린이돕기 공동 캠페인
2005. 5. 22	제1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여의도 중학교)
2005. 8. 18-20	신학생 동아리 ‘모듬살이’ 금강산 연수
2005. 8. 19-20	하이모 여름 캠프(양지 청소년 수련관)
2005. 10. 19	후원자와 함께한 분단체험 행사(도라산 전망대)
2005. 11. 29-12. 3	평양 어린이 영양제 생산 시설 방문
2005. 12. 29	민족화해위원회 리모델링 사무실 축복식(가톨릭회관)

| 2006 |

2006. 1. 28	하이모 청년부 설날 행사(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006. 2. 6-8	하이모 겨울 캠프(보광 휘닉스파크)
2006. 2. 8	대북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개성 방문
2006. 2.	위원장 최창화 문시놀 임명
2006. 4. 8	참회와 속죄의 성당 및 민족화해센터 착공식(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2006. 4. 8	서울대교구, 의정부교구와 참회와 속죄의 성당 및 민족화해센터 민족화해센터 완공 이후 운영에 관한 공동 사목 합의서 교환
2006. 4. 26-29	민화위 후원회원 단체 북한 방문
2006. 5. 6	하이모 장학금 마련 일일 찻집(명동)
2006. 5. 26	어린이 영양제 원료 지원 축복식
2006. 6. 28-30	하이모 여름 캠프(문경 가은성당)

2006. 7. 21-25	밀가루, 어린이 영양제 생산 원료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북한 방문
2006. 11. 27	참회와 속죄의 성당 상량식(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2006. 12. 12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600차 봉헌(명동대성당)
2006. 12. 23-26	성탄절 행사를 겸한 평양 방문
2006. 12. 23	하이모 성탄절 행사
2006. 12. 23-26	밀가루 및 어린이 영양제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북한 방문

| 2007 |

2007. 3. 21	민족화해센터 착공식(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2007. 3. 30	북한 장충성당 주일학교 건물 지원 관련 합의서 작성
2007. 4. 13-5. 18	민족화해학교 재개(가톨릭회관)
2007. 4. 30	대북 인도적 지원(장충성당 주일학교 건물 자재)
2007. 6. 24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행사
2007. 8. 17	사랑의 왕진 가방 축복식(성남시 신원물류보관창고)
2007. 8. 22	대북 인도적 지원(공기름 공장 건립 자재, 왕진가방 500세트)
2007. 9. 11	북한 수해 지원 구호 물품(미숫가루, 공기름) 축복식(인천항)
2007. 9. 27	대북 인도적 지원(공기름 공장 착유 시설)
2007. 10. 27-30	신천 공기름 공장, 인민병원 현장 점검을 위한 북한 방문
2007. 11. 2-12. 7	민족화해학교 2차 교육(가톨릭회관)

| 2008 |

2008. 1. 19-20	하이모 스키캠프(포천 베어스타운)
2008. 5. 4	하이모 봄소풍(춘천 중도유원지)
2008. 5. 26-6. 30	민족화해학교 심화교육(민족화해위원회 사무국)
2008. 6. 21-24	신천 콩기름 공장 현장 점검을 위한 북한 방문
2008. 7. 18	새터민 지원센터 '양천 평화의 집' 협약식(빈민사목위원회)
2008. 9. 13	하이모 추석 나들이(서울랜드)
2008. 9.	개성공단 신자공동체 '로사리오회' 결성
2008. 11. 20	'양천 평화의 집' 축복식(서울 양천구)

| 2009 |

2009. 4. 17	하이모 설립 10주년 기념미사 및 행사(명동대성당 문화관)
2009. 8. 29	대북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남북천주교인 만남(중국 심양)
2009. 9. 12	북한이탈주민 농촌 이주 및 생산협동조합 창업 교육(가톨릭회관)
2009. 9. 23	지구 구반장 교육 및 후원회 모집(역삼동성당)
2009. 12. 23-26	어린이영양제 생산 공장 현장 점검을 위한 북한 방문

| 2010 |

2010. 9. 5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한 2차 현금
2010. 10. 1	북한이탈주민 간병인 교육 사업(교구청 별관)
2010. 11. 4-6	사랑의 밀가루 지원(중국 단둥)

| 2011 |

2011. 4. 8-7. 4	북한이탈주민 간병인 교육 사업(교구청 별관)
2011. 8.	본부장 정세덕 신부 임명
2011. 8. 23	북한 수해 지원 협의를 위한 북한 방문
2011. 8. 27	북한이탈주민 가족캠프(충남 태안)
2011. 10. 12	천주교 사랑 나눔 대북 긴급 식량 지원 밀가루 축복식(개성 봉동역 하치장)
2011. 11. 2	북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강연회(가톨릭회관)
2011. 11. 29-12. 2	각 교구 민화위 사제들의 공동 북한 방문

| 2012 |

2012. 3. 7-5. 25	북한이탈주민 간병인 교육 사업(교구청 별관)
2012. 5. 10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대주교 임명
2012. 6. 23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행사 실시 및 2차 현금
2012. 6. 29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원 야외 행사(통일촌 및 도라산 전망대)
2012. 7. 28-8. 3	2012 불어라 평화의 바람
2012. 9. 27-29	남북한 종교교류 협의를 위한 중국 방문(중국 북경)
2012. 12. 22	북한이탈주민 성탄제(가톨릭회관)

| 2013 |

2013. 1. 1.	‘참회와 속죄의 성당’, ‘민족화해센터’ 의정부교구로 이관
2013. 5. 19	개성공단 신자공동체 ‘로사리오회’ 첫 미사(동소문동 대건의 집)
2013. 5. 26-27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기차타고 떠나는 1박 2일’(강원도 정선)
2013. 6. 25	참회와 속죄의 성당 봉헌식
2013. 7. 21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특별미사(명동 주교관 소성당)
2013. 11. 1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원 야외 행사(갑곶 성지, 평화전망대)
2013. 12. 27-29	북한이탈주민 젊은이 피정(인천 가정동 기도의 집)

| 2014 |

2014. 2.	위원장 정세덕 신부 임명
2014. 3. 21	민족화해위원회 상임위원회의(교구청 별관)
2014. 5. 20	이산가족을 위한 특별미사(명동대성당)
2014. 5. 21	서울대교구장 개성 첫 사목 방문(개성공단)
2014. 5. 24-25	북한이탈주민 기차여행 ‘꽃보다 기차’(충북 제천, 단양)
2014. 7. 24	통일부 신자공동체 창립 미사
2014. 8. 5, 8	개성공단 탁아소 건조기 및 도서지원
2014. 8. 17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한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가시관 증정식(명동대성당)
2014. 8. 22	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 직속으로 개편(사무 14 - 125 - 557)
2014. 10. 28	평화를 찾아 떠나는 DMZ 기차 여행(철원 백마고지 일대)
2014. 11. 16	남북 천주교인 만남(중국 북경)
2014. 11. 6-12. 11	평화나눔학교 입문과정 개설(교구청 별관)

| 2015 |

2015. 1. 6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1,000차 봉헌(명동대성당)
2015. 2. 25-27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피정(한남동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
2015. 3. 24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 개소식(교구청 별관)
2015. 3. 24	평화나눔연구소 개소기념 평화토크 ‘분단 70주년, 한반도 평화와 종교의 소명’(명동대성당 패밀리아 채플)
2015. 5. 21-7. 9	평화나눔학교 2기 교육(교구청 별관)
2015. 5. 30-31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기차 타고 떠나는 1박 2일’(충남 대천)
2015. 6. 22	광복·분단 70년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지원 협약식(교구청 대회의실)
2015. 7. 20	(사)우니타스 법인 설립허가
2015. 7. 24	통일부 프란치스코회 창립 1주년 미사(명동대성당 패밀리아 채플)
2015. 8. 16-21	광복 70주년 북·중 접경 지역 역사 탐방
2015. 9. 1-5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몽골 방문(몽골 울란바토르)
2015. 10. 30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원 야외 행사(철원 승리전망대, 화천 산소길)
2015. 11. 24	‘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시작 미사 및 발대식(명동대성당 고크스트홀)
2015. 12. 8	‘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봉헌 시작
2015. 12. 11	제1회 평화나눔포럼 ‘북한의 종교 현실과 한반도 평화’(교구청)
2015. 12. 19	북한이탈주민 성탄제(명동대성당 프란치스코홀)

| 2016 |

2016. 2. 17	토마스회 발대 미사(명동대성당 소성당)
2016. 3. 31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교구청)
2016. 5. 7-8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기차 타고 떠나는 1박 2일’(전남 여수)
2016. 5. 12-7. 14	평화나눔학교 3기 개설(교구청 별관)
2016. 5. 26	화천 하나원 교육생 문화체험(서울 일대)
2016. 5. 28-11. 8	좋은 부모 학교 사업 추진
2016. 5. 31	한반도 평화기원 성모의 밤(명동대성당 성모동산)
2016. 6. 10-7. 3	‘내 마음의 복녘 본당 갖기’ 사진 전시회(1898광장)
2016. 8. 13-19	2016 평화의 바람 DMZ 국제청년평화순례
2016. 8. 19-22	2016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평화의 길, 한반도의 길’(가톨릭대 성신교정)
2016. 10. 16-21	통일사목 인력양성 지원프로그램 ‘평화로 가는 길’(중국 북한 접경지)
2016. 12. 9	2016 평화나눔포럼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변화’(교구청)

| 2017 |

2017. 1. 7	평양 교구-반야 루카(Banja Luka) 교구 자매결연(성 보나벤투라 주교좌성당)
2017. 2. 11-12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세계화 시대의 평화와 안보’(강원도 속초)
2017. 3. 7	우니타스 성가대 창단(명동대성당)
2017. 3. 18	평양교구 90주년 기념미사(명동대성당)
2017. 3. 30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 ‘가톨릭의 평화실천과 한반도’(교구청)
2017. 5. 8	파티마 성모님께 봉헌하는 한반도 평화기원 성모의 밤(명동대성당 성모동산)
2017. 5. 20-21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기차 타고 떠나는 1박 2일’(강원도 정동진 일대)
2017. 6. 25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명동대성당)
2017. 7. 23	북한이탈주민 대상 좋은 부모 학교 개설(교구청)
2017. 8. 14-20	2017 평화의 바람 DMZ 국제청년평화순례
2017. 8. 26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불확실성 시대의 공생의 정치학: 과제와 방향’(예수의 성모 여자수도회)
2017. 10. 26	평화로 떠나는 DMZ여행(강화도)
2017. 11. 3-6	2017 한반도평화나눔포럼 ‘정의와 평화, 한반도의 길’(가톨릭대 성신교정)

| 2018 |

2018. 2. 24-25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국제정치와 평화 연구: 구성, 담론, 그리고 실천’(강원도 설악)
2018. 3. 22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3주년 세미나 ‘불확실성의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의 길’(교구청)
2018. 3. 28	우니타스 봉사단 발대 미사(교구청 별관)
2018. 4. 24	남북 정상회담 성공기원을 위한 미사(명동대성당)
2018. 5. 31	한반도 평화기원 성모의 밤(명동대성당 성모동산)
2018. 6. 23	한반도 평화 기원 대기도회 ‘하나됨을 위하여’(혜화동 동성고)
2018. 8.	부위원장 이형전 신부 임명
2018. 8. 31-9. 5	2018 한반도평화나눔포럼 ‘인간의 존엄과 평화 한반도의 길’(가톨릭대 성신교정, 명동대성당 패밀리아 채플)
2018. 9. 27-10.1	몽골지역 북한 청소년 지원 방문(몽골 노밍요스 초등학교)
2018. 10. 6	우니타스 엔젤스 합창단 창단
2018. 10. 12	평화나눔연구소 학술심포지엄 ‘평화를 위해 일한 가톨릭 선구자 장면’(교구청)
2018. 10. 31	평화로 떠나는 DMZ여행(연천 태풍전망대)

| 2019 |

2019. 2. 23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평화나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갈등과 화해의 정치: 평화와 공생의 길’(강원도 양양)
2019. 3. 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특별미사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명동대성당)
2019. 3. 8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 ‘김수환 추기경과 한반도 평화’(교구청)
2019. 5. 17-20	2019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평화의 문화, 한반도의 길’(가톨릭대 성신교정)
2019. 5. 24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과 함께하는 성모의 밤(명동대성당 성모동산)
2019. 6. 22	한반도 평화기원 대기도회, ‘하나됨을 위하여’(혜화동 동성고)
2019. 7. 22-29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몽골 해외봉사(몽골 울란바토르)
2019. 8. 16-22	2019 평화의 바람 DMZ 국제청년평화순례
2019. 8. 24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기억과 갈등의 정치: 평화와 현대의 길’(한양대학교)
2019. 12. 13	2019 평화나눔포럼 ‘평화적 관계 맺기: 개인, 사회, 국가’(교구청)
2019. 12. 21	추기경님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하는 성탄제(가톨릭회관)

| 2020 |

- 2020. 2. 15-16 북한이탈주민 젊은이 피정(성북동 복자 사랑 피정의 집)
- 2020. 3. 3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25주년 미사(명동대성당 소성당)
- 2020. 6. 25 '6·25 발발 70주년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봉헌(명동대성당)
- 2020. 11. 20-21 2020 한반도평화나눔포럼 '초불확실성 시대의 팬데믹과 평화'(제주 서귀포)

| 2021 |

- 2021. 2. 2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재개(1,255차)
- 2021. 4. 14 평화나눔연구소 창립6주년 기념세미나 '평화나눔과 어울림, 걸 어온 길과 나아갈 길'
- 2021. 10.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대주교 임명
- 2021. 11. 5-7 2021 한반도평화나눔포럼 '조선교구 190주년 1831의 기억과 한반도 평화'(강원도 고성)
- 2021. 11. 15-19 2021 평화의 바람 DMZ 국제청년평화순례

| 2022 |

- 2022. 8. 16-22 2022 DMZ 국제청년평화순례 독도 & DMZ
- 2022. 8.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임명
- 2022. 8.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 임명
- 2022. 10월 말~11월 초 민족화해와 평화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 2022. 11. 26 2022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한반도 화해를 위한 가톨릭의 평화 인식과 역할'(가톨릭대 성신교정 진리관)

| 2023 |

- 2023. 3. 30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8주년 기념 세미나 '정전 70년의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전쟁'(교구청)
- 2023. 6. 19-23 민족화해 사목자 양성을 위한 접경지역 순례(신학생 대상)
- 2023. 8. 7-11 2023 평화의 바람 DMZ 국제청년평화순례
- 2023. 11. 18 2023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한반도 화해와 평화에 이르는 길'(가톨릭대 성신교정 진리관)
- 2023. 12. 4 한국교회사연구소와 업무협약(한국교회사연구소)

| 2024 |

- 2024. 2. 24-25 청년 평화 감수성 피정(삼양동 도미니코수도회 수도원)
- 2024. 4. 13-14 2024 평화의 바람 기행(DMZ 일대)
- 2024. 5. 3 평화나눔연구소 창립 9주년 기념 세미나 '한반도 분단 극복과 화해를 위한 교회의 역할'(교구청)
- 2024. 5. 25-26 북향민 가족여행(대전교구 성지)
- 2024. 6. 20 2024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심포지엄(가톨릭회관)
- 2024. 7. 1.-5 민족화해 사목자 양성을 위한 접경지역 순례(신학생 대상)
- 2024. 8. 29-9. 1 2024 세계평화의 바람 DMZ 국제청년평화순례
- 2024. 9. 28-29 2024 평화의 바람 기행 2기(DMZ 일대)
- 2024. 9. 19-10. 7 전국 15개 교구(군종교구 제외) 사제 대상 통일 인식조사 실시
- 2024. 11. 15 2024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평화를 향한 여정'(명동대성당 고티스트홀)

| 2025 |

2025. 2. 18	사무국장 이종화 신부 임명
2025. 3. 12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30주년 기념미사 및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30년사』 봉정식
2025. 3. 19	화해·평화학교 1기 교육 실시(서울대교구 영성센터)
2025. 5. 14	화해·평화학교 수료 미사(파밀리아 채플)
2025. 6. 22	2025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명동대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서울대교구 영성센터)

Timeline

1995

1995. Feb. 28.	Inaugural Meeting of the Seoul Archdiocesan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Appointment of Bishop Andreas Choi Chang-mou as Chairman
1995. Mar. 1	Official Proclamation of the Inauguration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1995. Mar. 7	1st Mass for the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yeongdong Catholic Cathedral)
1995. Mar. 24	1st Standing Committee Meeting
1995. May 16-19	Chairman and Delegation Visit the Archdiocese of Beijing, China
1995. Aug. 15	Fr. Augustine Park Chang-deuk (Vicar General of the Pastoral Ministry for Korean Catholics in North America) Visits Pyongyang, Delivers Cardinal Stephen Kim Sou-hwan's Personal Letter, and Adopts 'The Prayer for Peace' as the Common Prayer
1995. Sep. 10	Joint Dedication of 'The Prayer for Peace' at Jangchung Cathedral and Myeongdong Cathedral
1995. Sep. 1-Dec. 31	Promotion of 'Offertory Rice Donations for Our North Korean Compatriots'
1995. Oct. 4-'96. Apr. 3	1st Cohort of Phase 1 at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Myeongdong Cathedral Cultural Center)
1995. Oct. 27-Nov. 2	New York Seminar for Korean Catholics from the South and the North (Hilton Hotel, Fort Lee, New Jersey, USA)
1995.	Establishment of Unitas

1996

1996. Mar. 5	1st Anniversary Mass of 'Mass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yeongdong Cathedral)
1996. Jun. 19	Inaugural General Assembly of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Alumni Association (Myeongdong Cathedral Cultural Center)
1996. Jun. 19-Oct. 9	2nd Cohort of Phase 1 at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Myeongdong Cathedral Cultural Center)
1996. Aug. 11	Promotion of 'Noodle Sharing for North Korean Compatriots' Campaign
1996. Aug. 13	Plaque Unveiling Ceremony (Catholic Center, Myeongdong)
1996. Aug. 26	Handover Ceremony of Funds Raised from 'Noodle Sharing for North Korean Compatriots' Campaign (Korean Red Cross)
1996. Dec. 23	'Evening of Gratitude with Our Compatriots' Concert (Myeongdong Cathedral)

1997

1997. Jan. 27	Independent Office Established on the 6th Floor of Catholic Center
1997. Mar. 19-Jun. 25	1st Cohort of Phase 2 at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Myeongdong Cathedral Cultural Center)
1997. Mar. 27-Apr. 2	Nationwide Campaign to Send 10,000 Tons of Corn to Aid North Korean Compatriots (Myeongdong)
1997. Mar. 31	Handover Ceremony of Funds from the 'Campaign to Send Potatoes to Aid North Korean Compatriots' (Pyeongchang County Office, Gangwon-do)
1997. Apr. 2	Briefing Session on the Food Crisis in North Korea (Myeongdong Cathedral Cultural Center)
1997. Apr. 3	Inauguration of Reunification Pastoral Committee
1997. Apr. 25-Jun. 25	Campaign to Send 100,000 Tons of Corn through One-Meal Fasting a Week
1997. May 20	Handover Ceremony of the 1st Shipment from the 'Nationwide Campaign to Send 10,000 Tons of Corn to Aid North Korean Compatriots' (Dandong, China)
1997. Jun. 4-7	Beijing Seminar for Korean Catholics from the South and the North (Kempinski Hotel, Beijing, China)
1997. Jul. 5	Declaration for Aid to North Korean Compatriots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ople and Proclamation of 'One Million Signature Campaign' (Sejong Hotel)
1997. Jul. 20-26	Visit to China to Assess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Develop Countermeasures
1997. Sep. 24-Dec. 10	2nd Cohort of Phase 2 at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Myeongdong Cathedral Cultural Center)
1997. Oct. 12	Promotion of 'Clothes Donation Drive to Help North Korean Compatriots Stay Warm through the Winter'
1997. Dec. 24	Handover Ceremony of Funds for Aid to North Korean Compatriots (Korean Red Cross)

1998

1998. Mar. 25-28	Gathering of Korean Catholics from the South and the North (Kempinski Hotel, Beijing, China)
1998. Apr. 3	Appointment of Archbishop Nicholas Cheong Jin-suk as Archbishop of Seoul and Apostolic Administrator of the Diocese of Pyongyang
1998. Apr. 6-26	Global Fasting Campaign to Raise Funds for North Korean Compatriots
1998. Apr. 25	Global Day of Fasting for North Korean Compatriots
1998. Apr. 27	1st 'Global Day of Fasting with the Pope' Fundraiser and Corn Shipment Handover Ceremony (Dandong, China)

1998. May 11-22	1st Pastoral Visit to North Korea by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1998. May 30-31	1st Cohort of Phase 3 at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Cursillo Hall, Hapjeongdong, Seoul)
1998. Aug. 23	Special High Mass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yeongdong Cathedral)
1998. Sep. 17	Letter of Intent Signed with the Korea Asia-Pacific Peace Committee for Food Aid (Dalian, China)
1998. Oct. 29	Meeting of Priests with Interest in North Korean Mission (Main Lecture Hall,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998. Nov. 28	Official Integration Launch of Seoul Archdiocesan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with the Reunification Pastoral Committee (Small Conference Room, Archdiocesan Office)
1998. Dec. 12-15	Visit to North Korea for Medical Aid Preparations
1998. Dec. 29	200th Commemorative Mass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yeongdong Cathedral)

1999

1999. Jan. 28	1st Executive Committee Meeting of the Integrated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Small Conference Room, Archdiocesan Office)
1999. Apr. 5-7	Gathering of Korean Catholics from the South and the North (Kempinski Hotel, Beijing, China)
1999. Apr. 13	Formation of "Haimo" (One in Harmony Community)
1999. May 19-Jul. 14	3rd Cohort of Phase 1 at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Myeongdong Cathedral Cultural Center)
1999. Jun. 20	'Day of Prayer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Korean People' Event (Myeongdong Cathedral)
1999. Jun. 26	Charity Tea House 'Dear My Nameless Friend in North Korea' to Help North Korean Children (Daehakro, Hyehwadong)
1999. Jun.	Appointment of Bishop Peter Kang U-il as Chairman, Fr. Thomas Aquinas Choi Chang-hoa as Vice Chairman, and Fr. Peter Lee Ki-heon as Director-General
1999. Jul. 15-16	Meeting for the Formation of Korea Reconciliation Catholic Network (St. Benedict's Retreat House, Jangchungdong, Seoul)
1999. Sep. 22	Charity Concert for North Korean Children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1999. Dec. 4-11	Visit to North Korea to Verify the Receipt and Distribution of Food Aid
1999. Dec.	Appointment of Fr. Joseph Jung Kwang-ung as Director-General

2000

2000. Feb. 29.
- List of Donors Transferred from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of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to Seoul Archdiocesan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2000. Apr. 11-14
- Visit to Primorsky Krai to Support 'Koryoin' Compatriots in Russia
2000. May 1
- Commencement of Donor Management Operations
2000. May 13
- 5th Anniversary Workshop (Conference Room, Archdiocesan Office)
2000. Jun. 10
- Nationwide Symposium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Korea (Auditorium,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0. Jul. 5
- Gathering of Priests with Interest in North Korean Mission (Veritas Hall Auditorium,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0. Jul. 8-15
- Visit to North Korea to Verify the Status of Aid Supplies
2000. Aug. 4-6
- 1st Haimo Summer Camp (Korea Tire Training Center, Geumsan, Chungcheongnam-do)
2000. Nov. 14-Dec. 6
- Launch of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s at Deanery Level (11th Deanery: Yeoksamdong Catholic Church, 14th Deanery: Daebangdong Catholic Church)

2001

2001. Jan. 16
- Gathering of Priests with Interest in North Korean Mission (St. Benedict's Retreat House, Jangchungdong)
2001. Mar. 20-24
- Visit to North Korea for Discussions on Support for Noodle Factory and Cooperative Farms
2001. May 9
- Departure of Humanitarian Aid Supplies (Seedbed Vinyl Film) for North Korea (Incheon Port)
2001. Jun. 23-24
- 'Day of Prayer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Korean People' Event (Myeongdong Cathedral)
2001. Jul. 11
- Blessing Ceremony for Supplies to Establish the Nampo Noodle Factory (Incheon Port)
2001. Jul. 17-24
- Visit to North Korea for Noodle Factory Inspection and Aid Distribution Verification
2001. Oct. 5
- Agreement Signed to Support a Bread Factory in Rason, Hamgyongbuk-do

2002

2002. Feb.
- Appointment of Bishop Andrew Yeom Soo-jung as Chairman
2002. Apr. 6-13
- Visit to North Korea for Distribution of Seedbed Vinyl Film and On-Site Inspection of the Noodle Factory

2002. Jul. 15-20
- Visit to North Korea for Verification of Food Aid Distribution and Noodle Factory Production Operations
2002. Aug. 14
- Unification Concert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arian Garden, Myeongdong Cathedral)
2002. Aug. 14
- Receipt of Support Funds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2002. Sep. 10
- Ven. Pomnyun Sunim Donates His Magsaysay Award Money for the Support of Sinchon Noodle Factory
2002. Oct.
- Appointment of Bishop Lucas Kim Woon-hoe as Chairman
2002. Nov. 22-28
- Visit to North Korea for Verification of Food Aid Distribution

2003

2003. Mar. 2
- 1st National Rally for Peace and Unification; 1st Official Visit of North Korean Catholics to Myeongdong Cathedral
2003. May 30
- 1st Monthly Mass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Donor Association (Small Chapel, Myeongdong Cathedral Cultural Center)
2003. Aug. 31-Sep. 2
- Visit to North Korea for Verification of Flour Distribution and Discussions on Future Projects
2003. Sep.
- Appointment of Fr. Hieronymus Chang Keung-sun as Director-General

2004

2004. Mar. 3
- Visit to Beijing for Agreement on Flour and Agricultural Materials Aid to North Korea
2004. Mar. 27
- 9th Anniversary Seminar (Catholic Center)
2004. Apr. 24
- Condolence Message Sent Regarding the Ryongchon Station Explosion Tragedy
2004. May 4
- Aid for Victims of Train Explosion at Ryongchon Station (Korean Red Cross Headquarters)
2004. May
- Joint Research Project on Educational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ith Sangmyung University Research Team
2004. May 15-18
- Visit to North Korea for Discussions on Humanitarian Aid
2004. Jun. 27
- 'Day of Prayer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Korean People' Event
2004. Jul. 14
- Blessing Ceremony for Tractors Donated to the North for Humanitarian Aid (Incheon Port)
2004. Sep. 1
- Registered as Non-Profit Organization
2004. Sep. 25
- Joint Ancestral Rite and Memorial Mass for North Korean Defectors on Chuseok (Dora Observatory)

2004. Sep. 11~05. Jan. 29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Catholic Center)
2004. Oct. 30-31	“Hanmaeum” Family Camp (Hanmaeum Training Center, Uijeongbu)
2004. Nov. 4	1st Meeting of the Peace & Unity Center Establishment Committee (Archdiocesan Office)
2004. Dec. 7	500th Mass for the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yeongdong Cathedral)
2004. Dec. 26	Christmas and Year-End Celebration with North Korean Defectors (Pastoral Center for Labor, Bomundong)

2005

2005. Mar. 1	10th Anniversary Mass and Event (Myeongdong Cathedral)
2005. Mar. 25	Blessing Ceremony for ‘Seedbed Vinyl Film of Love for North Korean Compatriots’ (Inter-Korean Transit Office, Goseong Unification Observatory)
2005. Apr. 1	Joint Fundraiser by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and Woori Bank to Help North Korean Children
2005. May 22	1st Sports Day with North Korean Defectors (Yeouido Middle School)
2005. Aug. 18-20	“Modeumsari” Seminarian Club Training at Geumgangsan
2005. Aug. 19-20	Haimo Summer Camp (Yangji Youth Training Center)
2005. Oct. 19	Experiential Event on the Division of Korea for Donors (Dora Observatory)
2005. Nov. 29-Dec. 3	Visit to the Children’s Supplements Production Facility in Pyongyang
2005. Dec. 29	Blessing Ceremony for the Remodeled Office (Catholic Center)

2006

2006. Jan. 28	Haimo Youth Group’s Lunar New Year’s Day Event (Franciscan Education Center, Jeongdong)
2006. Feb. 6-8	Haimo Winter Camp (Bokwang Phoenix Park)
2006. Feb. 8	Visit to Kaesong for Discussions on North Korean Aid Projects
2006. Feb.	Appointment of Monsignor Thomas Aquinas Choi Chang-hoa as Chairman
2006. Apr. 8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Church of Repentance and Atonement and the Peace & Unity Center (Unification Hill, Paju, Gyeonggi-do)
2006. Apr. 8	Joint Pastoral Agreement between the Archdiocese of Seoul and the Diocese of Uijeongbu on the Operation of the Church of Repentance and Atonement and the Peace & Unity Center Upon Completion
2006. Apr. 26-29	Visit to North Korea by Donor Members
2006. May 6	Charity Tea Fundraiser for the Haimo Scholarship (Myeongdong)

2006. May 26	Blessing Ceremony for the Donation of Raw Materials for Children’s Supplements Production
2006. Jun. 28-30	Haimo Summer Camp (Gaeun Catholic Church, Mungyeong)
2006. Jul. 21-25	Visit to North Korea to Assess the Status of Flour and Children’s Supplements Raw Materials Donations
2006. Nov. 27	Topping Out Ceremony for the Church of Repentance and Atonement (Unification Hill, Paju)
2006. Dec. 12	600th Mass for the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yeongdong Cathedral)
2006. Dec. 23-26	Visit to North Korea for Christmas Celebrations and Assessment of Flour and Children’s Supplements Aid

2007

2007. Mar. 21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Peace & Unity Center (Unification Hill, Paju)
2007. Mar. 30	Agreement Signed on Support for ‘Jangchung Cathedral Sunday School’ Building in North Korea
2007. Apr. 13-May 18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Reopened (Catholic Center)
2007. Apr. 30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Building Materials for Jangchung Cathedral Sunday School)
2007. Jun. 24	‘Day of Prayer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Korean People’ Event
2007. Aug. 17	Blessing Ceremony for ‘Doctor’s Bags of Love’ (Shinwon Logistics Storage Warehouse, Seongnam)
2007. Aug. 22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Building Materials for Soybean Oil Factory; 500 Doctor’s Bags)
2007. Sep. 11	Blessing Ceremony for Flood Relief Aid Supplies (Misutgaru and Soybean Oil) for North Korea (Incheon Port)
2007. Sep. 27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Oil Extraction Facilities for Soybean Oil Factory)
2007. Oct. 27-30	Visit to North Korea for On-Site Inspection of the Sinchon Soybean Oil Factory and People’s Hospital
2007. Nov. 2-Dec. 7	2nd Session of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Catholic Center)

2008

2008. Jan. 19-20	Haimo Ski Camp (Bearstown, Pocheon)
2008. May 4	Haimo Spring Picnic (Jungdo Amusement Park, Chuncheon)
2008. May 26-Jun. 30	Advanced Course at Korean People’s Reconciliation School (Office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2008. Jun. 21-24	Visit to North Korea for On-Site Inspection of the Sinchon Soybean Oil Factory
2008. Jul. 18	Agreement Signed for the ‘Yangcheon House of Peace’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Urban Poor Pastoral Committee)
2008. Sep. 13	Haimo Chuseok Excursion (Seoulland)
2008. Sep.	Formation of the Rosary Group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atholic Community
2008. Nov. 20	Blessing Ceremony for the ‘Yangcheon House of Peace’ (Yangcheon-gu, Seoul)

2009

2009. Apr. 17	10th Haimo Anniversary Event with Mass (Myeongdong Cathedral Cultural Center)
2009. Aug. 29	Gathering of Korean Catholics from the South and the North for Discussions on North Korean Aid Projects (Shenyang, China)
2009. Sep. 12	Training Program on Rural Resettlement and Cooperative Business Startups for North Korean Defectors (Catholic Center)
2009. Sep. 23	Deanery Leaders’ Training and Donor Recruitment (Yeoksamdong Catholic Church)
2009. Dec. 23-26	Visit to North Korea for On-Site Inspection of Children’s Supplements Production Facility

2010

2010. Sep. 5	Second Collection for North Korea Flood Relief
2010. Oct. 1	Caregiver Training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rchdiocesan Office Annex)
2010. Nov. 4-6	‘Flour of Love’ Aid (Dandong, China)

2011

2011. Apr. 8-Jul. 4	Caregiver Training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rchdiocesan Office Annex)
2011. Aug.	Appointment of Fr. Achilleus Chung Se-teok as Director-General
2011. Aug. 23	Visit to North Korea for Discussions on Flood Relief Aid
2011. Aug. 27	Family Camp for North Korean Defectors (Taeon, Chungcheongnam-do)
2011. Oct. 12	Blessing Ceremony for Flour Donation for ‘Catholic Love Sharing’

	Emergency Food Aid to North Korea (Bongdong Station Yard, Kaesong)
2011. Nov. 2	Lecture on Prop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Catholic Center)
2011. Nov. 29-Dec. 2	Joint Visit to North Korea by Priests from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s in Each Diocese

2012

2012. Mar. 7-May 25	Caregiver Training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rchdiocesan Office Annex)
2012. May 10	Appointment of Archbishop Andrew Yeom Soo-jung as Archbishop of Seoul and Apostolic Administrator of Pyongyang Diocese
2012. Jun. 23	‘Day of Prayer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Korean People’ Event and Second Collection
2012. Jun. 29	Outdoor Event for Donor Members (Tongilchon and Dora Observatory)
2012. Jul. 28-Aug. 3	‘2012 Blow, Wind of World Peace’
2012. Sep. 27-29	Visit to China for Discussions on Inter-Korean Religious Exchange (Beijing, China)
2012. Dec. 22	Christmas Celebr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Catholic Center)

2013

2013. Jan. 1	Transfer of the Church of Repentance and Atonement and the Peace & Unity Center to the Diocese of Uijeongbu
2013. May 19	1st Mas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atholic Community’s Rosary Group (House of Daegun, Dongsomundong)
2013. May 26-27	Cultural Tour ‘Overnight Train Journey’ for North Korean Defectors (Jeongseon, Gangwon-do)
2013. Jun. 25	Dedication of the Church of Repentance and Atonement
2013. Jul. 21	Special Mass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mall Chapel, Myeongdong Bishop’s Residence)
2013. Nov. 1	Outdoor Event for Donor Members (Gabgot Holy Site, Peace Observatory)
2013. Dec. 27-29	Retreat for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House of Prayer, Gajeongdong, Incheon)

2014

2014. Feb.	Appointment of Fr. Chung Se-teok as Chairman
------------	--

2014. Mar. 21	Standing Committee Meeting (Archdiocesan Office Annex)
2014. May 20	Special Mass for Separated Families (Myeongdong Cathedral)
2014. May 21	1st Pastoral Visit to Kaesong by the Archbishop of Seoul (Kaesong Industrial Complex)
2014. May 24-25	'Train Over Flowers' Train Journey for North Korean Defectors (Jecheon and Danyang, Chungcheongbuk-do)
2014. Jul. 24	Inaugural Mass for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Catholic Community
2014. Aug. 5, 8	Dryer and Book Donation f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Daycare Center
2014. Aug. 17	'The Crown of Thorn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ople' Presented to Pope Francis (Myeongdong Cathedral)
2014. Aug. 22	Reassigned under Direct Supervision of the Episcopal Vicar for Social Pastoral Ministry
2014. Oct. 28	DMZ Train Journey 'In Search of Peace' (Baengmagoji, Cheorwon)
2014. Nov. 16	Gathering of Korean Catholics from the South and the North (Beijing, China)
2014. Nov. 6-Dec. 11	Introductory Course at Peace-Sharing School (Archdiocesan Office Annex)

2015

2015. Jan. 6	1,000th Mass for the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Myeongdong Cathedral)
2015. Feb. 25-27	Retreat for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Conventual Franciscan Retreat House, Hannamdong)
2015. Mar. 24	Opening Ceremony of Peace-Sharing Institute, affiliated institute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Archdiocesan Office Annex)
2015. Mar. 24	Peace Talk in Commemoration of the Opening of Peace-Sharing Institute: '70 Years of Divisi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ission of Religions' (Familia Chapel, Myeongdong Cathedral)
2015. May 21-Jul. 9	2nd Cohort of Peace-Sharing School (Archdiocesan Office Annex)
2015. May 30-31	Cultural Tour 'Overnight Train Journey' for North Korean Defectors (Daecheon, Chungcheongnam-do)
2015. Jun. 22	Agreement Signed for Support for the Reconciliation and Peace of Korea on the 70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and Division (Main Conference Room, Archdiocesan Office)
2015. Jul. 20	Unitas Inc. Approved a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2015. Jul. 24	1st Anniversary Mass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Franciscan Society' (Familia Chapel)
2015. Aug. 16-21	Historical Tour of the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for the 70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2015. Sep. 1-5	Visit to Mongolia for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Ulaanbaatar, Mongolia)
2015. Oct. 30	Outdoor Event for Donor Members (Victory Observatory, Cheorwon; Oxygen Road, Hwacheon)
2015. Nov. 24	Inaugural Mass and Launching Ceremony for 'Keeping in My Heart a Parish in the North' Movement (Coste Hall, Myeongdong Cathedral)
2015. Dec. 8	Commencement of 'Keeping in My Heart a Parish in the North' Mass Dedications
2015. Dec. 11	1st Peace-Sharing Forum: 'The Reality of Religion in North Korea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chdiocesan Office)
2015. Dec. 19	Christmas Celebr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Francisco Hall, Myeongdong Cathedral)

2016

2016. Feb. 17	Inaugural Mass for 'Thomas Society' (Small Chapel, Myeongdong Cathedral)
2016. Mar. 31	1st Anniversary Seminar of Peace-Sharing Institute: 'Seeking the Path of Peace in Christ' (Archdiocesan Office)
2016. May 7-8	Cultural Tour 'Overnight Train Journey' for North Korean Defectors (Yeosu, Jeollanam-do)
2016. May 12-Jul. 14	3rd Training Program of Peace-Sharing School (Archdiocesan Office Annex)
2016. May 26	Seoul Cultural Experience for Hwacheon Hanawon Trainees
2016. May 28-Nov. 8	Launch of 'Good Parent School' Project
2016. May 31	Marian Nigh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arian Garden, Myeongdong Cathedral)
2016. Jun. 10-Jul. 3	'Keeping in My Heart a Parish in the North' Photo Exhibition (1898 Plaza)
2016. Aug. 13-19	2016 'Wind of Peace' DMZ World Youth Peace Pilgrimage
2016. Aug. 19-22	2016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Path to Peace, Path for the Korean Peninsula'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6. Oct. 16-21	'The Path to Peace' Support Program for Priestly Formation for Unification Pastoral Ministry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China)
2016. Dec. 9	2016 Peace-Sharing Forum: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anges in North Korea' (Archdiocesan Office)

2017

2017. Jan. 7	Sisterhood Established between Pyongyang and Banja Luka Dioceses (St. Bonaventure Catholic Cathedral)
--------------	---

2017. Feb. 11-12	Joint Academic Conference by Peace-Sharing Institute and Hanyang Peace Institute: 'Peace and Secur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Sokcho, Gangwon-do)
2017. Mar. 7	Unitas Choir Founded (Myeongdong Cathedral)
2017. Mar. 18	90th Anniversary of Pyongyang Diocese (Myeongdong Cathedral)
2017. Mar. 30	2nd Anniversary Seminar of Peace-Sharing Institute: 'Catholic Peace Practice and the Korean Peninsula' (Archdiocesan Office)
2017. May 8	Marian Nigh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dicated to Our Lady of Fatima (Marian Garden, Myeongdong Cathedral)
2017. May 20-21	Cultural Tour 'Overnight Train Journey' for North Korean Defectors (Jeongdongjin, Gangwon-do)
2017. Jun. 25	Mas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Commemoration of the Centenary of the Apparitions of Our Lady of Fatima (Myeongdong Cathedral)
2017. Jul. 23	Opening of 'Good Parent School' for North Korean Defectors (Archdiocesan Office Annex)
2017. Aug. 14-20	2017 'Wind of Peace' DMZ World Youth Peace Pilgrimage
2017. Aug. 26	Joint Academic Conference by Peace-Sharing Institute and Hanyang Peace Institute: 'The Politics of Coexistence in an Age of Uncertainty: Challenges and Directions' (Sisters of The Mother of Jesus Cloistered Convent)
2017. Oct. 26	DMZ Trip: Journey for Peace (Ganghwa Island)
2017. Nov. 3-6	2017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Justice and Peace, the Path for the Korean Peninsula'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8

2018. Feb. 24-25	Joint Academic Conference by Peace-Sharing Institute and Hanyang Peace Institute: 'International Politics and Peace Studies: Structure, Discourse, and Practice' (Seorak, Gangwon-do)
2018. Mar. 22	3rd Anniversary Seminar of Peace-Sharing Institute: 'The Uncertain Order of Northeast Asia and the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chdiocesan Office)
2018. Mar. 28	Inaugural Mass for the Unitas Volunteer Group (Archdiocesan Office Annex)
2018. Apr. 24	Mass for the Success of Inter-Korean Summit (Myeongdong Cathedral)
2018. May 31	Marian Nigh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arian Garden, Myeongdong Cathedral)
2018. Jun. 23	Prayer Rall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Unity' (Dongsung High School, Hyehwadong)
2018. Aug.	Appointment of Fr. Luke Lee Hyung-jeon as Vice Chairman

2018. Aug. 31-Sep. 5	2018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Human Dignity and Peace: The Path for the Korean Peninsula'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amilia Chapel)
2018. Sep. 27-Oct. 1	Visit to Mongolia for North Korean Youth Support (Nomingyos Elementary School, Mongolia)
2018. Oct. 6	Unitas Angels Choir Founded
2018. Oct. 12	Peace-Sharing Institute's Academic Symposium: 'Chang Myon, a Catholic Pioneer Who Worked for Peace' (Archdiocesan Office)
2018. Oct. 31	DMZ Journey 'In Search of Peace' (Taepung Observatory, Yeoncheon)

2019

2019. Feb. 23	Joint Academic Conference by Peace-Sharing Institute and Hanyang Peace Institute: 'Politics of Conflict and Reconciliation: The Path to Peace and Coexistence' (Yangyang, Gangwon-do)
2019. Mar. 5	Special Mass for the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Korean People in Remembrance of Cardinal Kim Sou-hwan on the 10th Anniversary of His Passing (Myeongdong Cathedral)
2019. Mar. 8	4th Anniversary Seminar of Peace-Sharing Institute: 'Cardinal Kim Sou-hwa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chdiocesan Office)
2019. May 17-20	2019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Culture of Peace: The Path for the Korean Peninsula'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9. May 24	Marian Night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Separated Families (Marian Garden, Myeongdong Cathedral)
2019. Jun. 22	Prayer Rall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Unity' (Dongsung High School, Hyehwadong)
2019. Jul. 22-29	Volunteer Program in Mongolia with North Korean Defectors (Ulaanbaatar, Mongolia)
2019. Aug. 16-22	2019 'Wind of Peace' DMZ World Youth Peace Pilgrimage
2019. Aug. 24	Joint Academic Conference by Peace-Sharing Institute and Hanyang Peace Institute: 'The Politics of Memory and Conflict: The Path of Peace and Hospitality' (Hanyang University)
2019. Dec. 13	2019 Peace-Sharing Forum: 'Building Peaceful Relationships: Individuals, Society, and Nations' (Archdiocesan Office)
2019. Dec. 21	Christmas Celebration with the Cardinal and North Korean Defectors (Catholic Center)

2020

2020. Feb. 15-16	Retreat for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Blessed Korean Martyrs Retreat House, Seongbukdong)
2020. Mar. 3	25th Anniversary Mass (Small Chapel, Myeongdong Cathedral)
2020. Jun. 25	Mas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Myeongdong Cathedral)
2020. Nov. 20-21	2020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Pandemic and Peace in an Era of Extreme Uncertainty' (Seogwipo, Jeju)

2021

2021. Feb. 25	Resumption of the Mass for the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People (1,255rd Mass)
2021. Apr. 14	6th Anniversary Seminar of Peace-Sharing Institute: 'Peace Sharing and Harmony: The Path We Have Walked and the Road Ahead'
2021. Oct.	Appointment of Archbishop Peter Chung Soon-taick as Archbishop of Seoul and Apostolic Administrator of Pyongyang Diocese
2021. Nov. 5-7	2021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Commemorating the 190th Anniversary of the Chosun Diocese: Remembering Year 1831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Goseong, Gangwon-do)
2021. Nov. 15-19	2021 'Wind of Peace' DMZ World Youth Peace Pilgrimage

2022

2022. Aug. 16-22	2022 'Wind of Peace' DMZ World Youth Peace Pilgrimage: Dokdo & DMZ
2022. Aug.	Appointment of Archbishop Chung Soon-taick as Chairman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2022. Aug.	Appointment of Fr. Ignatius Jung Soo-yong as Vice Chairman
2022. Late Oct.-Early Nov.	Implementation of Perception Survey on Reconciliation and Peace in Korea
2022. Nov. 26	2022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Catholic Church's Perception and Role in the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Veritas Hall,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23

2023. Mar. 30	8th Anniversary Seminar of Peace-Sharing Institute: '70 Years After the Korean Armistice, and the Russo-Ukraine War' (Archdiocesan Office)
2023. Jun. 19-23	Seminarians' Pilgrimage to the Border Region for the Formation of Future Priests in Reconciliation Pastoral Ministry
2023. Aug. 7-11	2023 'Wind of Peace' DMZ World Youth Peace Pilgrimage

2023. Nov. 18	2023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The Path to Reconcili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Veritas Hall, Songsin Campu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23. Dec. 4	Partnership Agreement with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2024

2024. Feb. 24-25	Peace Sensitivity Retreat for Youth (Dominican Monastery, Samyangdong)
2024. Apr. 13-14	2024 'Wind of Peace' Tour (DMZ Area)
2024. May 3	9th Anniversary Seminar of Peace-Sharing Institute: 'The Role of the Church in Overcoming Division and Promoting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rchdiocesan Office)
2024. May 25-26	North Korean Defector Family Trip (Sacred Sites of Daejeon Diocese)
2024. Jun. 20	2024 Symposium for the 'Day of Prayer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Korean People' (Catholic Center)
2024. Jul. 1-5	Seminarians' Pilgrimage to the Border Region for the Formation of Future Priests in Reconciliation Pastoral Ministry
2024. Aug. 29-Sep. 1	2024 'Wind of World Peace' DMZ World Youth Peace Pilgrimage
2024. Sep. 28-29	2024 'Wind of Peace' Tour, 2nd Cohort (DMZ Region)
2024. Sep. 19-Oct. 7	Nationwide Perception Survey on Reunification among Priests in 15 Dioceses (Excluding the Military Ordinariate)
2024. Nov. 15	2024 Korean Peninsula Peace-Sharing Forum: 'The Journey Toward Peace' (Coste Hall)

2025

2025. Feb. 18	Appointment of Fr. Lee Jong-hwa as Director-General
2025. Mar. 12	30th Anniversary Mass and Book Dedication Ceremony of the 30-Year History of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Archdiocese of Seoul (Myeongdon Cathedral)
2025. Mar. 19	Implementation of the 1st Cohort of Reconciliation and Peace School (Seoul Archdiocese Spirituality Center)
2025. May. 14	Completion Mass of the Reconciliation and Peace School (Familia Chapel)
2025. Jun. 22	'Day of Prayer for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Korean People' Mass (Myeongdong Cathedral)
	30th Anniversary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Archdiocese of Seoul (Spirituality Center, Archdiocese of Seoul)

역대 위원장·부위원장·본부장·사무국장

위원장

- 1대 최창무 안드레아(1995. 3 - 1999. 6)
- 2대 강우일 베드로(1999. 6 - 2002. 1)
- 3대 염수정 안드레아(2002. 2 - 2002. 10)
- 4대 김윤희 루카(2002. 10 - 2006. 2)
- 5대 최창화 토마스 데 아퀴노(2006. 2 - 2014. 2)
- 6대 정세덕 아킬레오(2014. 2 - 2022. 8)
- 7대 정순택 베드로(2022. 8 - 현재)

부위원장

- 1대 최창화 토마스 데 아퀴노(1999. 6 - 2005. 10)
- 2대 이형전 루카(2018. 8 - 2021. 8)
- 3대 박기석 사도 요한(2021. 8 - 2022. 2)
- 4대 정수용 이냐시오(2022. 8 - 현재)

본부장

- 1대 이기헌 베드로(1999. 6 - 1999. 11)
- 2대 정광웅 요셉(1999. 12 - 2003. 9)
- 3대 장금선 예로니모(2003. 9 - 2010. 8)
- 4대 정세덕 아킬레오(2011. 8 - 2014. 2)

사무국장

- 1대 이종화 프란치스코(2025. 2 - 현재)

- ※ 오태순 토마스 운영위원장(1995. 3 - 1999. 6)
- ※ 고석준 아우구스티노 부분부장(2000. 2 - 2004. 9)
- ※ 김훈일 요한 세레자 대북협력팀장(2015. 3 - 2016. 2), 유니타스 사무총장 겸 민족화해위원회 정책실장(2016. 3 - 2019. 1)

역대 상임위원·위원¹

- | | | |
|-------------|-------------|---|
| 1995 | 위원장 | 최창무 |
| | 상임위원 | 오태순 장덕필 염수정 이기우 류덕희 윤여덕 조광 남현욱 이윤자 |
| 1996 | 위원장 | 최창무 |
| | 상임위원 | 오태순 염수정 이기우 김윤태 조광 이윤자 |
| 1997 | 위원장 | 최창무 |
| | 상임위원 | 오태순 염수정 장덕필 이기우 조광 이윤자 윤여덕 남현욱 류덕희 |
| | 위원 | 오태순 염수정 장덕필 이기우 조광 이윤자 윤여덕 남현욱 류덕희
이병문 김준철 이기헌 박기주 김정택 염서옥 김성태 조형균 노길명
봉두완 박상진 이관진 육종권 양성일 |
| 1998 | 위원장 | 최창무 |
| | 상임위원 | 오태순 장덕필 이기헌 조형균 김남식 남현욱 노길명 류덕희
박상진 이관진 이윤자 조광 박인선 |
| | 위원 | 오태순 장덕필 이기헌 조형균 김남식 남현욱 노길명 류덕희 박상진
이관진 이윤자 조광 박인선 김성태 염수정 이병문 박인선 박기주
조형균 김준철 김정택 홍순홍 김건성 박효종 봉두완 육종권 |
| 1999 | 위원장 | 최창무 |
| | 상임위원 | 오태순 이기헌 최창화 김용태 김준철 김정택 홍순홍 박상진
김성철 이윤자 조광 노길명 류덕희 이강렬 정영화 |
| | 위원 | 이기헌 오태순 장덕필 이병문 박인선 이성만 박기주 김준철 김정택
함제도 최창화 김용태 조광호 홍순홍 김기순 김은선 박금옥 이순종
정윤희 박동기 류덕희 남현욱 노길명 김성철 박상진 봉두완 류규영
이관진 이윤자 조광 이강렬 윤갑구 변진홍 유호열 정영화 한만길 |

1 자료의 한계로 위원 명단이 확인되지 않은 연도는 생략하였다.

2000	위원장	강우일
	상임위원	최창화(부위원장) 이기현(본부장) 오태순 김홍진 김용태 김정택 서유석 홍순홍 박상진 김성철 이윤자 조광 노길명 류덕희 정영화 변진홍 윤갑구
	위원	최창화 이기현 오태순 경갑실 장덕필 박기주 조군호 김정택 김용태 조광호 함제도 김홍진 서유석 홍순홍 김기순 김은선 박금옥 이순종 정윤희 이선중 오혜정 박동기 류덕희 노길명 김성철 박상진 봉두완 이관진 이윤자 조광 윤갑구 변진홍 유호열 정영화 한만길 선한승
2002	위원장	김윤희
	위원	최창화(부위원장) 정광웅(본부장) 고석준(부분부장) 오태순 김용태 김홍진 노길명 박상진 유규영 이윤자 정성균 윤갑구 변진홍 유호열 한만길 정영화 윤병수 김홍두 성정수 조만형 정성영 윤일규 안진홍 조형주 김재룡 김성철 위재수
2003	위원장	김윤희
	위원	최창화(부위원장) 장금선(본부장) 고석준(부분부장) 오태순 김용태 김홍진 노길명 박상진 유규영 이윤자 정성균 윤갑구 변진홍 정영화 윤병수 김홍두 성정수 조만형 정성영 선한승 김재룡 이병연
2004	위원장	김윤희
	상임위원	최창화(부위원장) 장금선(본부장) 김병일 김용태 최부식 신희준 이윤자 변진홍 정영화 윤병수 유호열 손병두 김현욱 봉두완 구본영 박효중 황상민
2005	위원장	김윤희
	상임위원	최창화(부위원장) 장금선(본부장) 김용태 최부식 신희준 이윤자 변진홍 정영화 유호열 윤병수 손병두 구본태 박효중 황상민

2006	위원장	최창화
	상임위원	장금선(본부장) 신희준 한홍순 이윤자 변진홍 정영화 윤병수 유호열
2007	위원장	최창화
	상임위원	장금선(본부장) 신희준 이윤자 변진홍 정영화 유호열 윤병수 한홍순 구본태
2008	위원장	최창화
	상임위원	장금선(본부장) 신희준 이윤자 변진홍 정영화 유호열 윤병수 한홍순 구본태
2009	위원장	최창화
	상임위원	장금선(본부장) 방정영 신희준 이윤자 변진홍 정영화 유호열 윤병수 한홍순 구본태 이은수
2010	위원장	최창화
	상임위원	장금선(본부장) 이윤자 변진홍 유호열 윤병수 한홍순 구본태 이은우 도희윤
2011	위원장	최창화
	상임위원	이윤자 변진홍 유호열 윤병수 최홍준 구본태 이은우 도희윤
2014	위원장	정세덕
	상임위원	김훈일 고영진 권길중 변진홍 유호열 윤병수 이윤자 장우일 전갑수 정순원 이정근
	위원	고영진 권길중 김유경 김훈일 마영주 매충조 변진홍 여규태 유창우 유호열 윤병수 윤여상 이윤자 이정근 임강택 임순희 임을출 장우일 전갑수 전성우 정성환 정순원 조광 황인국

2015	위원장	정세덕
	위원	김훈일 변진흥 유호열 윤병수 이윤자 권길중 전갑수 장우일 고영진 김유경 정순원 유창우 윤여상 이정근 임강택 임순희 임을출 전성우 박우상 성기영 남성렬
2023	위원장	정순택
	상임위원	정수용(부위원장) 나승구 김수경 박계리 백준기 신나리 여상기 오세택 임강택 홍용표
2024	위원장	정순택
	상임위원	정수용(부위원장) 나승구 김수경 박계리 백준기 신나리 여상기 오세택 임강택

역대 수도자·직원

수도자

1대 정명옥 마리아네 수녀(1997. 3 - 2000. 2)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2대 오혜정 스바니아 수녀(2000. 2 - 2004. 2)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3대 장인숙 이레네오 수녀(2004. 2 - 2006. 8)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4대 황정숙 엘리사 수녀(2014. 8 - 2018. 2) 툇핑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5대 백승영 자네트 수녀(2018. 2 - 2020. 6) 툇핑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6대 도은미 라헬 수녀(2020. 8 - 2024. 2) 툇핑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7대 강혜진 미셸 수녀(2024. 2 - 2025. 2) 툇핑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직원

김대민 프란치스코(1997. 1 - 2002. 2)
 김현미 루시아(1997. 1 - 2000)
 정은영 마리아(1998. 6. - 2011. 10)
 조영신 마리아(2000. 6 - 2023. 3)
 김해월 아가다(2001. 10 - 2022. 3)
 박창호 베드로(2002. 10 - 2013. 2)
 김민경 세실리아(2012. 1 - 2019. 7)
 황소희 안젤라(2014. 8 - 2016. 3)
 은희성 바오로(2016. 3 - 2017. 1)
 이시권 펠릭스(2016. 11 - 2020. 9 / 2023. 9 - 현재)
 백승세 다니엘(2019. 7 - 현재)
 최하나 소화 데레사(2022. 9 - 현재)
 김미경 프란치스카 로마나(2003. 3 - 2006. 6 / 2010. 1 - 2016. 6 / 2018. 4 -
 2020. 3 / 2022. 4 - 현재)

역대 조직도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2002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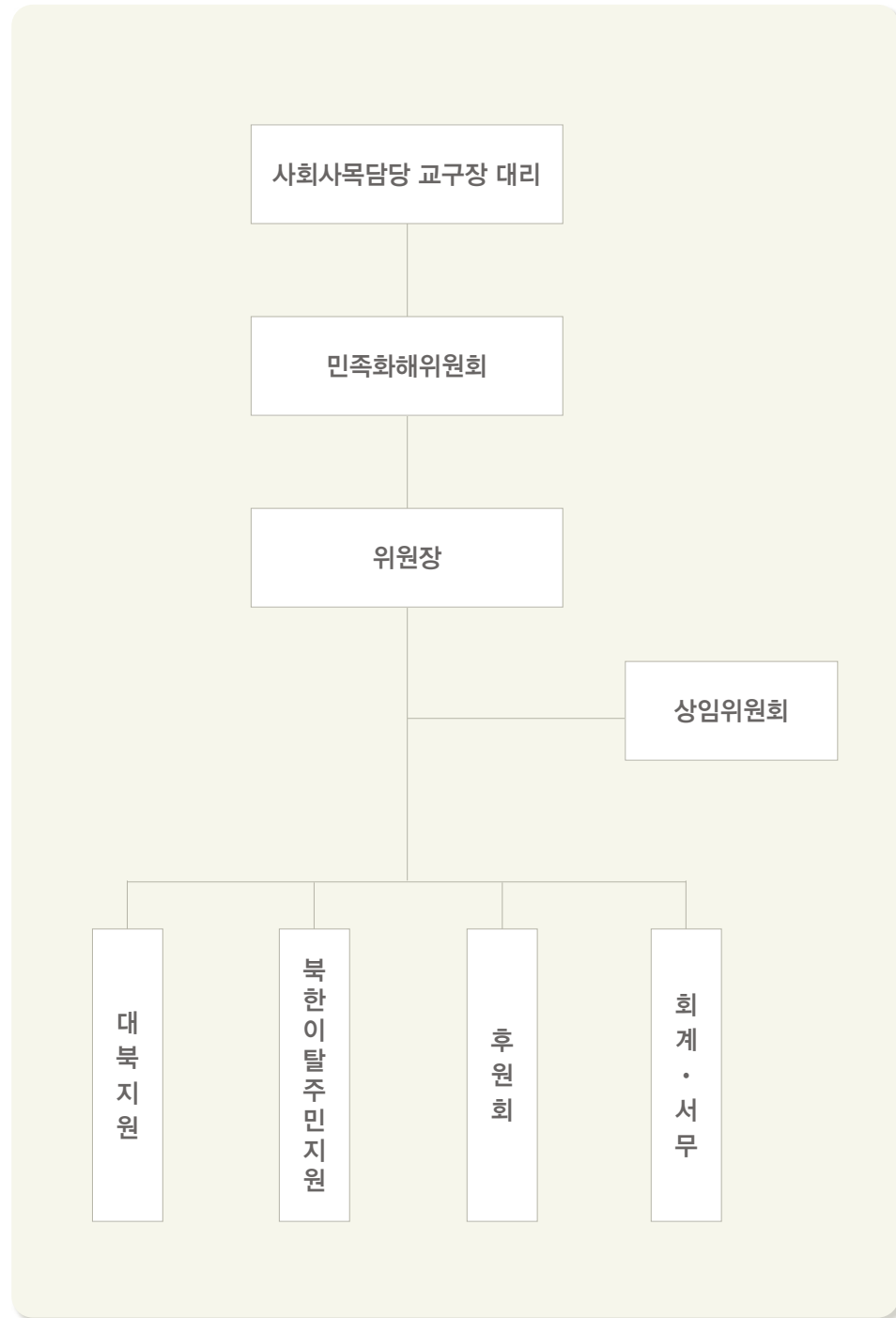
2004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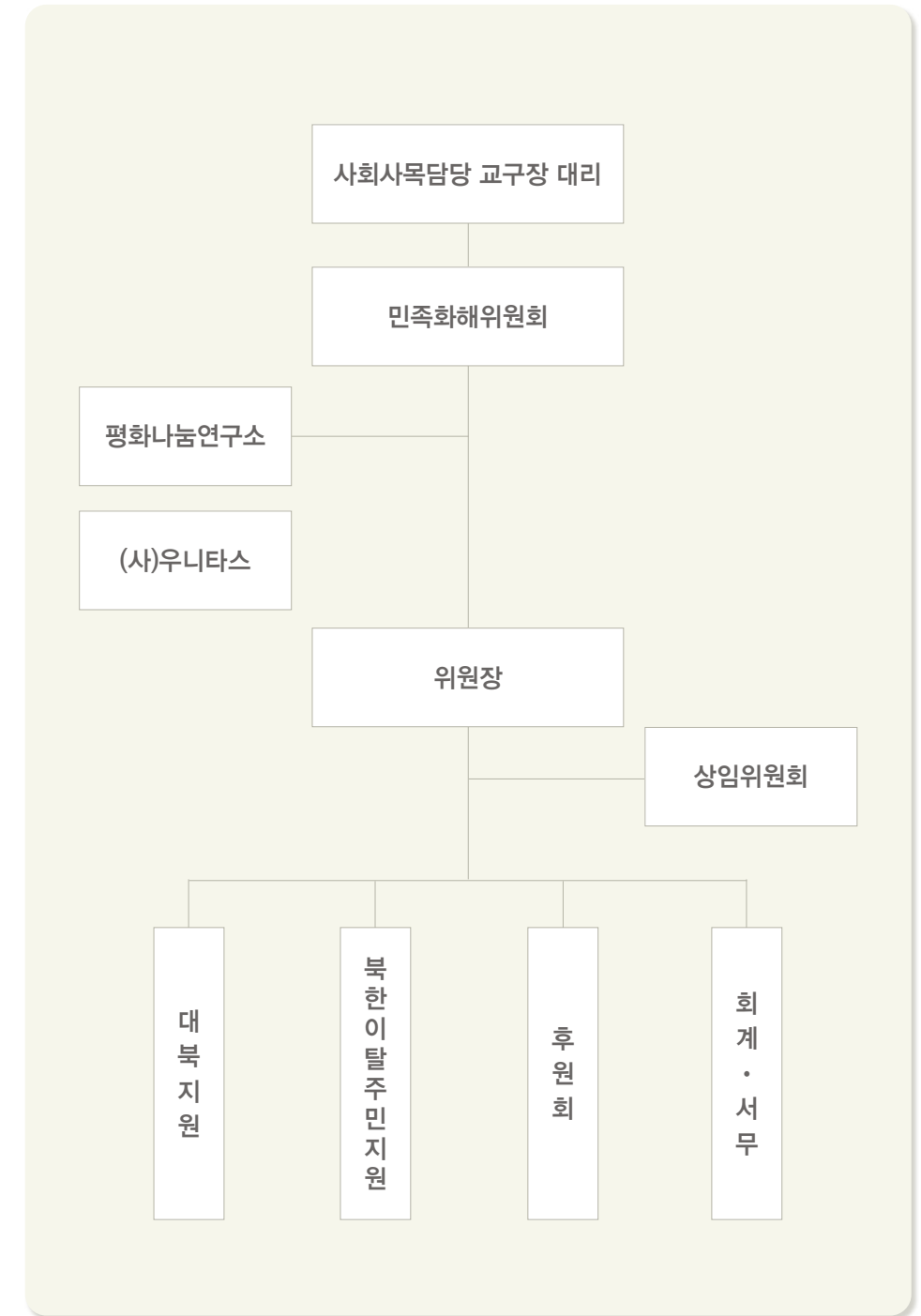
2006년도



2014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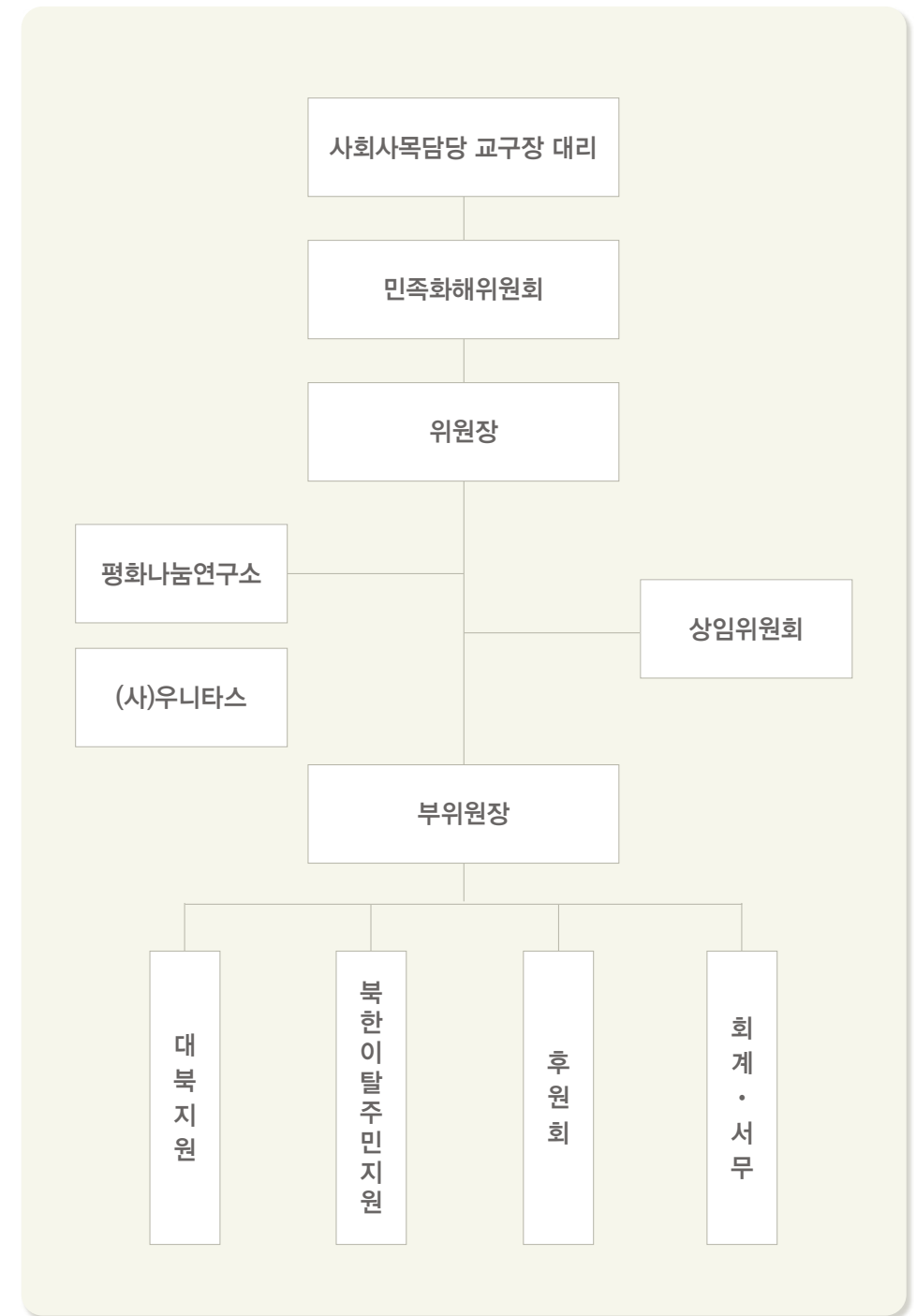
2015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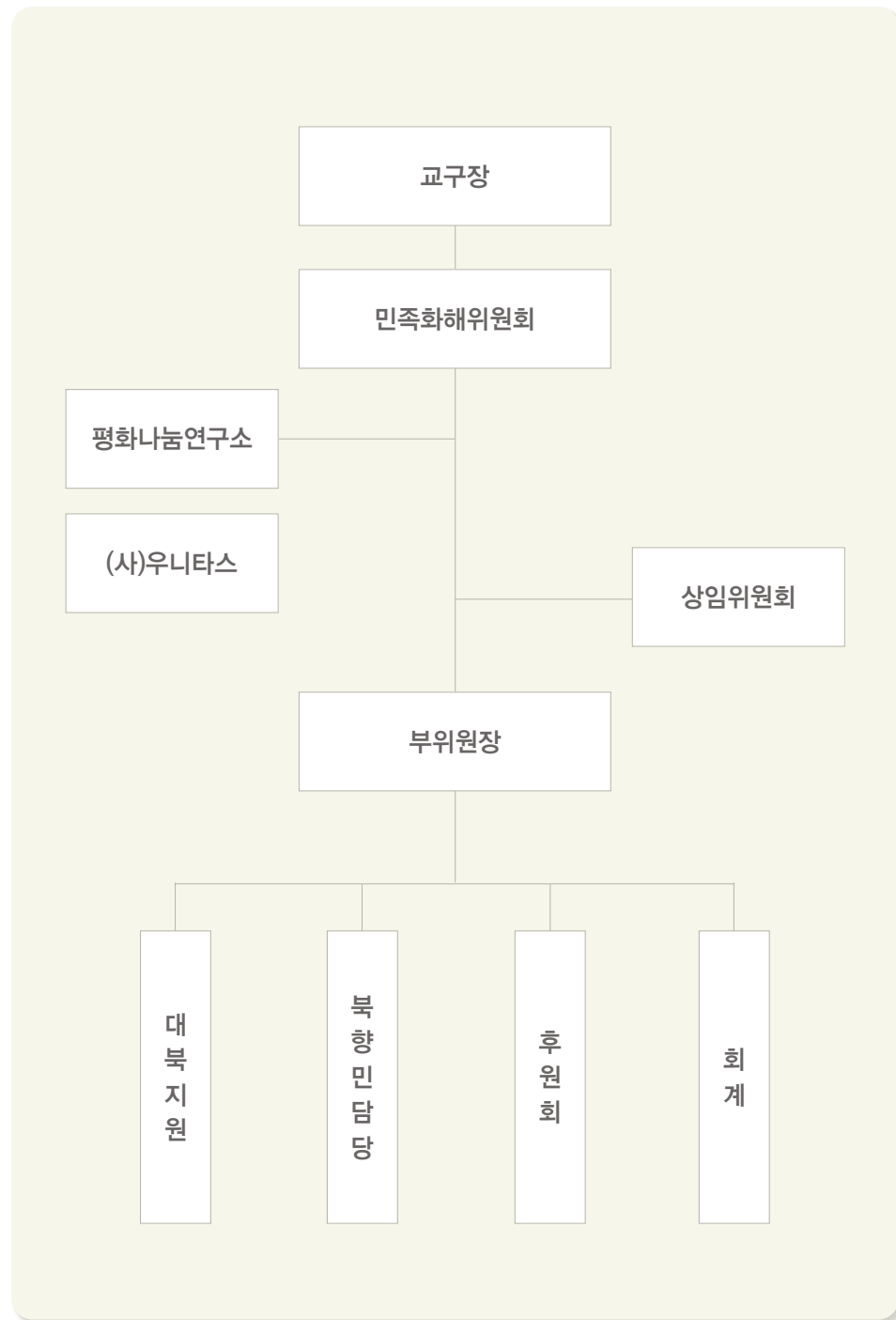
2016년도



2018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5년도



교육 분야

민족화해학교(1995 – 2008)

1) 민족화해학교 1차

1단계 1기(1995. 10. 4 – 1996. 4. 3)

주간	일자	대주제	중주제	제목	강사
1	10. 4	개강미사		민족화해를 향하여	최창무 주교
2	10. 11	I. 세계질서의 변화와 민족분단 상황 및 남북한 체제에 대한 기초적 이해	1. 통일시대를 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가톨릭 정신	오경환 신부
3	10. 18			세계화, 통일 그리고 민족문제	강영훈 전 국무총리
4	10. 25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와 새로운 세계질서	임현진 서울대학교
5	11. 1		2. 민족분단의 역사적 성찰과 남북한 체제비교	민족분단의 역사적 성과	최상룡 고려대학교
6	11. 8			북한의 국가건설	백학순 세종연구소
7	11. 15			남한의 국가건설	장달중 서울대학교
8	11. 22			남북한체제의 비교/ 평가	전상인 한림대학교
9	11. 29		II.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에 대한 이해와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및 분단국 통일사례에 대한 검토	3. 북한체제의 이해	북한의 통치 이데올 로기
10	12. 6	북한의 권력구조			유호열 민족통일연구원
11	12. 13	북한의 경제			안석교 한양대학교
12	12. 20	북한의 사회/문화			서재진 민족통일연구원
13	1. 10	북한의 대외관계와 군사전략		임용순 성균관대학교	
14	1. 17	4. 통일정책과 통일사례		북한의 통일정책	전인영 서울대학교
15	1. 24			남한의 통일정책	김덕 전 통일부총리
16	1. 31			분단국 통일사례의 비교연구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

주간	일자	대주제	중주제	제목	강사
17	2. 7	III. 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에 대한 준비 및 교회의 역할	5. 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에 대한 준비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구본태 국회의장 비서
18	2. 14			민족공동체 형성과 통일문화	이호철 소설가
19	2. 21			통일을 위한 남한의 개혁과제	남현욱 세종대학교
20	2. 28			한반도의 통일구상 - 평화에서 통일까지	하영선 서울대학교
21	3. 6			민족화해와 해외동포	서경석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22	3. 13			통일 및 통일 이후를 위한 「작은토론회」	
23	3. 20		6.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사명	북한의 종교현황과 종교적 심성	조광 고려대학교
24	3. 27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교회의 반성과 새로운 역할		최창무 주교 / 오태순 신부	
25	4. 3	종강미사	민족화해 증진을 위한 마음의 준비	김수환 추기경	

1단계 2기(1996. 6. 19 - 10. 9)

주간	일자	주제	제목	강사
1	6. 19	1. 세계의 변화와 민족의 화해	민족화해를 향하여	최창무 주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카톨릭 정신	오경환 신부
2	6. 26		세계화, 통일 그리고 민족문제	강영훈 전 국무총리
			세계질서의 재편과 남북문제	장달중 서울대학교
3	7. 3	2. 북한의 이해	민족의 분단과 통일민족사	최창규 전 독립기념관장
			북한의 권력구조와 이데올로기	이용필 서울대학교
			북한의 경제	안석교 한양대학교
4	7. 10		북한의 교육과 과학	김명세 김일성대 물리학과 졸업, 망명 유학생

주간	일자	주제	제목	강사
5	7. 17	2. 북한의 이해	북한의 대외관계	고영환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의 군사실태와 전략	지만원 사회발전체계연구소
6	7. 24		북한의 사회와 주민의식	전상인 한림대학교
			북한의 종교현황과 종교적심성	조광 고려대학교
7	8. 21	3. 통일의 대비	남한의 통일정책	김덕 전 통일부총리
			북한의 통일정책	전인영 서울대학교
8	8. 28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 - 정치분야	임용순 성균관대학교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 - 사회분야	배규환 국민대학교
9	9. 4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 - 경제분야	박광자 성균관대학교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 - 문화분야	구상 시인
10	9. 11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구본택 국회의장 비서
			21세기 동북아 구조변화와 통일여건	문정인 연세대학교
11	9. 18		분단국 통일사례 연구	안병영 전 교육부장관
			통일을 위한 남한의 개혁과제	남현욱 세종대학교
12	10. 2		민족화해와 해외동포	서경석 전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소장
			민족화해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역할	한영환 중앙대학교
13	10. 9	종강미사 및 수료식		

1단계 3기(1999. 5. 19 – 7. 14)

주차	일자	제목	강사
1	5. 19	개강미사	김옥균 주교
		북한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	변진홍 인천가톨릭대학교
2	5. 26	남북분단과 해해에 대한 성서 – 신학적 고찰	함세웅 신부
		조선족과 고려인의 현황	이광규 서울대학교
3	6. 2	비디오 상영	「두만강 르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4	6. 9	불평등 구조의 정치·사회적 의미	김성철 통일연구원
		분단사 속의 남북한 관계	유호열 고려대학교
5	6. 16	남북한 관계의 법적 이해	정영화 서경대학교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황과 전망	황하수 통일부 교류협력국
6	6. 23	북한영화 상영	「봄을 안고 사는 처녀들」
7	6. 30	공식이념 및 지배구조의 이해	안병영 연세대학교
		의식 구조와 가치관	김병로 통일연구원
8	7. 7	월남 이주자의 남한생활	분임토의
9	7. 14	종강미사 및 수료식	

2단계 1기(1997. 3. 19 – 6. 25)

주차	일자	제목	강사
1	3. 19	통일사목의 의의와 사명	김수환 추기경
		민족화해와 교회 공동체의 과제	최창무 주교
2	3. 26	통일 전/후 독일교회의 역할과 교훈	김석중 신부
		사회주의 국가의 교회현실 : 중국	김영환 몬시뇰
3	4. 2	사회주의 국가의 교회현실 : 베트남	오태순 신부
		한민족의 통일과 신심운동	이범주 신부
4	4. 9	북한실태 영화 상영	
5	4. 16	월남이주자의 적응현실과 해결방안의 모색 및 간담회	오혜정 수녀
6	4. 23	북한 젊은이들의 갈등현실(체험적 증언)	
7	4. 30	중국「조선족」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이광규 서울대학교
8	5. 7	러시아「고려인」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김연수 대구대학교
		분단국 국민통합의 성공사례(독일)	남현욱 세종대학교
9	5. 21	남북한 이질화 실태와 극복방안 : 종교와 문화	조광 고려대학교
		남북한 이질화 실태와 극복방안 : 경제생활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10	5. 28	남북한 이질화 실태와 극복방안 : 심리적 측면	이장호 서울대학교
		남북한 이질화 실태와 극복방안 : 청소년	임순희 민족통일연구원
11	6. 4	통일과 북한의 여성문제	김애실 외국어대학교
		통일과 북한의 의료 및 사회보장문제	김진수 강남대학교
12	6. 11	통일과 북한의 재산권 문제	김옥곤 성균관대학교
		통일과 북한의 인권문제	이호철 소설가
13	6. 18	종합평가와 토의	
14	6. 25	종강미사 및 수료식	

2단계 2기(1997. 9. 24 - 12. 10)

주차	일자	제목	강사
1	9. 24	민족화해와 교회공동체의 사명	최창무 주교
		베트남 교회의 실태와 우리의 대비	오태순 신부
2	10. 1	중국교회의 실태와 우리의 대비	김영환 몬시뇰
		통일전후 동/서독교회의 역할과 교훈	최창무 주교
3	10. 8	탈북자들에 대한 교회의 대비	오혜정 수녀
		교회의「기도·희생」실천과 평화통일	남현욱 세종대학교
4	10. 15	월남이주자들의 남한생활 체험나누기 : 일반성인	김남준씨외 3인
5	10. 22	월남이주자들의 남한생활 체험나누기 : 여성	조승희씨외 3인
6	10. 29	월남이주자들의 남한생활 체험나누기 : 청소년	최동철씨외 3인
7	11. 5	중국 「조선족」 실태와 남북한 통합과정에서의 역할	이광규 서울대학교
8	11. 12	재일동포 실태와 남북한 통합과정에서의 역할	장명수 재일거류민단 간부
9	11. 19	통일독일의 사회적 갈등극복과 우리의 실천과제	신동원 전 주독한국대사
		대북한 지원 및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기본대책	이종렬 통일원 인도지원국장
10	11. 26	통일 후 남북한주민의 심리적 갈등과 해결방안	이장호 서울대학교
11	12. 3	통일 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	윤여덕 서강대학교
12	12. 10	종강미사 및 수료식	

3단계 1기(1998. 5. 30 - 31)

	주제	강사
강의 1	한반도 통일 문제의 재조명	안병영 연세대학교
강의 2	민족 화합의 본질과 자세	동훈 남북평화통일연구소
	분과별 토론 및 발표	

* 1박2일 워크샵으로 진행

2) 지구별 민족화해학교

일시	지구	장소
2000. 11. 15 - 12. 6	11지구	역삼동 본당
2000. 11. 14 - 12. 5	14지구	대방동 본당

3) 민족화해학교 2차

1기(2007. 4. 13 - 5. 18)

주간	일자	제목	강사
1	4. 13	사회교리를 통해 본 민족화해와 일치	변진홍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2	4. 20	한국군대사와 공산정권의 형성	신복룡 건국대학교
3	4. 27	분단 이전의 북한교회 그리고 현재의 북한교회	장궁선 신부
4	5. 4	내가 본 북한사회 그리고 북한 사람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5	5. 11	내가 살던 고향 이야기	최영화 새터민
6	5. 18	통일을 향한 신앙인의 자세	유호열 고려대학교
		종강미사	최창화 몬시뇰

2기(2007. 11. 2 - 12. 7)

주간	일자	제목	강사
1	11. 2	사회교리를 통해 본 민족화해와 일치	변진홍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2	11. 9	북녘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 실태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3	11. 16	북녘 교회의 어제와 오늘	장궁선 신부
4	11. 23	내가 본 북녘 사회	최혜경 어린이 어깨동무 사무국장
5	11. 30	내가 살던 고향 이야기	현인애 새터민
6	12. 7	통일을 위한 신앙인의 자세	유호열 고려대학교
		종강미사	최창화 몬시뇰

3기(2008. 5. 26 - 6. 30)

주간	일자	제목	강사
1	5. 26	사회교리를 통해 본 민족화해와 일치	조광 고려대학교
2	6. 2	북한교회의 어제와 오늘	장금선 신부
3	6. 9	내가 살던 고향 이야기	현인애 북향민
4	6. 16	내가 본 북한사회 변화	이윤자 평화신문 이사
5	6. 23	북한 정권 태생과 그 후	유호열 고려대 교수
6	6. 30	종강미사	최창화 몬시뇰

평화나눔학교(2014 - 2016)

1기(2014. 11. 6 - 12. 11)

주간	일자	제목	강사
1	11. 6	한반도 평화, 오늘의 일이며 나에게 주어진 과제	유경춘 주교
2	11. 13	한반도 평화, 오늘 나부터 실천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
3	11. 20	남북관계의 현실은?	이수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4	11. 27	북한주민의 생활 및 의식의 변화	임순희 평화나눔 학교 교장, 통일연구원
5	12. 2	사람 중심의 사회, 그 실상은?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6	12. 11	연구자와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하는 대화	평화나눔연구소

2기(2015. 5. 21 - 7. 9)

주간	월 일	주제	강사
1	5. 21	한반도 평화, 오늘의 일이며 내게 주어진 과제	유경춘 주교
2	5. 28	한반도 평화, 오늘 나부터 실천	조한범 통일연구원
3	6. 4	남북관계의 현실과 전망	성기영 평화나눔연구소
4	6. 11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실태와 전망	임순희 평화나눔연구소, 북향민
5	6. 18	사람 중심의 사회, 그 실상은?	윤여상 평화나눔연구소
6	6. 25	우리의 통일 준비, 그 현황과 과제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7	7. 2	통일경제론	임을출 평화나눔연구소
8	7. 9	연구위원과 수강생이 함께 하는 토론	종합토론

3기(2016. 5. 12 – 7. 14)

주간	일자	제목	강사
1	5. 12	한반도 평화, 오늘의 일이며 나에게 주어진 과제	김훈일 신부 우니타스 초대 사무총장 겸 민화위 정책실장
2	5. 19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와 전망, 그리고 개성공단	임을출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3	5. 26	북한 정치체제의 안정성 진단	오규열 서울 디지털대학교
4	6. 2	북한주민의 생활 및 의식의 변화 실태와 전망	최연희 북향민
5	6. 9	한반도 평화, 오늘 나부터 실천	조한범 통일연구원
6	6. 16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성기영 평화나눔연구소
7	6. 23	북한이탈주민의 삶	신난희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
8	6. 30	북한의 종교 실태와 전망	윤여상 평화나눔연구소
9	7. 7	북한교회사	오세택 평화신문
10	7. 14	질의 및 응답	종합토론

화해·평화학교(2025)

1기(2025. 3. 19 – 5. 14)

주간	일자	제목	강사
1	3. 19	[평화신학] 평화와 신학이 만나다	정수용 신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2	3. 26	[북한정세] 북한, 아는 만큼 이해하기	이정철 서울대학교
3	4. 2	[분단문화] 갈라진 한반도, 갈라진 마음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4. 11-12	[평화기행] 길에서 만나는 한반도 평화	정수용 신부
4	4. 16	[국제정세] 세계는 전쟁 중, 한반도 평화는?	백준기 한신대학교
5	4. 23	[문화교류] 남과 북,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6	4. 30	[북한교회] 평양에는 성당이 몇 개 있나요?	김연수 신부 예수회
7	5. 7	[종교교류]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장금선 신부 서울대교구 전 민화위
8	5. 14	수료미사	

사업 통계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¹⁾

연도	월, 일	금액(원)	품목	기탁처	기타 참고 사항
1995	7.12	80,000,000	밀가루	중국 천주교회	
	9.19	40,000,000	밀가루 혹은 성금	적십자	수재민돕기 성금
	11.1	80,000,000	밀가루	중국 천주교회	
	12.28	40,000,000	밀가루, 라면과 양말	적십자	
	소계	240,000,000			
1996	6.13	80,000,000	성금(밀가루)	베네딕도회 (중국 천주교회)	국수나눔기운동
	8.26	40,000,000	성금(밀가루)	적십자	국수나눔기운동
	9.2	50,000,000	밀가루	적십자	
	10.15	40,000,000	성금(밀가루)	뉴저지한인교회 (박창득 신부)	국수나눔기운동
	12.28	60,000,000	성금(밀가루)		국수나눔기운동
	소계	270,000,000			

1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내부 회의록, 통일부 보고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집행 통보 공문 등을 토대로 하였으며, 세부 항목의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생략하였다, 또한 매년 합계 총액은 민족화해위원회 내부 정리 자료(2013년 보고자료 중)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도	월, 일	금액(원)	품목	기탁처	기타 참고 사항
1997	1.10	100,000,000	밀가루	적십자	국수나눔기운동
	1.10	100,000,000	밀가루	적십자	국수나눔기운동
	3.31 / 4.4	65,663,846	감자(340만톤)	적십자	
	4.18 / 5.6 / 5.11	1,300,000,000	옥수수(1만톤)	적십자/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옥수수나눔운동 (김수환추기경)
	5.15	58,316,500	옥수수	유진벨재단	옥수수나눔운동
	5.28	85,110,500	옥수수	유진벨재단	옥수수나눔운동
	5.25 / 6.19 / 6.23 / 7.15	677,432,500	옥수수(5천톤)	적십자	옥수수나눔운동
	8.16	22,700,250	탈곡기	뉴저지한인교회 (박창득 신부)	
	11.3	7,000,000	밀가루, 과자, 사탕	중국교회/ 김창렬 형제	청소년수용소 지원
	11.4	19,552,320	어린이 영양식	대구대교구/ 불교운동본부	
	11.4	11,231,610	간급구조 식량	대구대교구/ 불교운동본부	
	11.25	15,667,420	어린이 영양식	대구대교구/ 불교운동본부	
	11.25	6,182,680	간급구조 식량	대구대교구/ 불교운동본부	
	12.12	37,826,600	밀가루, 과자, 사탕	중국교회/ 김창렬 형제	청소년수용소 지원
	12.23	50,942,730	어린이 영양식	대구대교구/ 불교운동본부	
	12.23	2,586,970	간급구조 식량	대구대교구/ 불교운동본부	
	12.23	100,000,000	옥수수	적십자사	
	12.31	29,073,850	의류 (550박스)	김필주 박사	사랑의 옷 보내기
	소계	2,689,287,776			

연도	월, 일	금액(원)	품목	기탁처	기타 참고 사항
1998	1.13	17,600,000	밀가루, 입쌀, 양말	영원한도움의 성모수녀회/ 김창렬 형제	청소년수용소 지원
	1.14	4,889,664	어린이 영양식	대구대교구/ 불교운동본부	
	1.14	27,057,716	긴급구조 식량	부산교구/ 불교운동본부	
	2.13	61,143,910	밀가루(90톤)	중국 천주교회	
	3.16	34,533,358	밀가루(100톤)	중국 천주교회	
	3.20	1,561,344	어린이 영양식		
	3.20	3,490,766	긴급구조 식량		
	3.20	18,193,430	식량난민 지원		
	3.21	773,503,400	옥수수(3,040톤)	홍콩카리타스	긴급식량지원
	3.21	781,707,934	요소비료/ 복합비료 (총 2,000톤)	홍콩카리타스	긴급식량지원
	3.21	356,895,000	농업용 비닐 (340톤)	홍콩카리타스	긴급식량지원
	4.3	1,748,980	밀가루, 과자, 사탕		
	4.3	24,000,000	결핵약	유진벨재단	
	7.6	70,174,400	어린이 영양식		
	7.6	34,422,848	긴급구조 식량		
	7.6	27,399,652	식량난민 지원		
	7.14	16,684,225	타올(12,000개)	조선천주교인협회	장충성당 지원
	7.14	688,000	의약품	조선천주교인협회	장충성당 지원
	7.14	286,876,602	사랑의 선물	조선천주교인협회	장충성당 지원
	12.8 (11월)	129,108,800	백미(60톤)	조선아세아태평양 위원회	장충성당 지원
	12.8 (11월)	230,965,700	탈지분유 (60톤)	조선아세아태평양 위원회	장충성당 지원
	12.8 (11월)	299,925,500	밀가루 (1,000톤)	조선아세아태평양 위원회	장충성당 지원
	12.23	50,000,000	긴급식량지원		
	소계	3,252,571,229			

연도	월, 일	금액(원)	품목	기탁처	기타 참고 사항
1999	1.5	11,871,500	옥수수, 양초, 라이타	중국 단둥 천주교회 명도회	국수나누기운동 (2차)
	1.9	1,200,000	항공 비용	중국 단둥 천주교회 명도회	국수나누기운동 (2차)
	1.27	12,033,806	밀가루, 옥수수, 기타	중국 단둥 천주교회 명도회	국수나누기운동 (2차)
	2.25	12,547,500	밀가루, 양초, 라이타 등	중국 단둥 천주교회 명도회	국수나누기운동 (2차)
	3.19	14,504,240	밀가루, 양초, 라이타	중국 단둥 천주교회 명도회	국수나누기운동 (2차)
	5.10- 11	248,736,038	비료 (1,000톤)	조선아세아 태평양위원회	
	5.12	13,013,680	밀가루 등	중국 단둥 천주교회 명도회	국수나누기운동 (2차)
	5.27	12,501,060	밀가루, 양초, 라이타	중국 단둥 천주교회 명도회	국수나누기운동 (2차)
	6.29	10,000,000	긴급 식량 지원		
	7.1	13,235,050	밀가루, 옥수수	중국 단둥 천주교회 명도회	국수나누기운동 (2차)
	8.3	14,337,635	밀가루, 옥수수, 광목	중국 단둥 천주교회 명도회	국수나누기운동 (2차)
	8.7	5,911,861	긴급 식량 지원		
	8.26	472,160		중국 단둥 천주교회 명도회	국수나누기운동 (2차)
	9.9	38,738,000	긴급 식량 지원		
	10.18	36,480,000	밀가루		
	11.3	483,508,699	옥수수 (3,0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11.10	9,217,500	긴급 식량 지원		
	12.1	26,939,623	긴급 식량 지원		
	12.21	13,058,810	옷, 신발	조선카톨릭교협회	
	소계	978,307,162			

연도	월, 일	금액(원)	품목	기탁처	기타 참고 사항
2000	3.18	1,568,490	어린이 이불, 옷	조선카톨릭교협회	
	3.27	24,879,140	미니버스	조선카톨릭교협회	
	4.10	333,300,000	옥수수 (2,0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4.12	33,540,000	벼(2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8.17	334,560,000	옥수수 (2,0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12.15	1,616,010	양말, 옷감	조선카톨릭교협회	
	소계	727,896,718.49			
2001	2.20	25,020,000	빵 공장 부지	조선카톨릭교협회	
	3.14	1,900,000	노트북	조선카톨릭교협회	
	3.16	13,000,000	현금	조선카톨릭교협회	
	3.16	214,000	문구류, 사탕	조선카톨릭교협회	
	5.9	294,525,000	옥수수 (1,5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5.10	18,243,500	모판용 비닐 (500롤)	조선카톨릭교협회 (평남 평원군 원화리 협동농장)	
	7.10	9,128,000	빵 공장 부품, 설비	조선카톨릭교협회	
	7.17	111,519,450	국수기계 1세트, 밀가루 (2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8.28	288,450,000	밀가루 (1,5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9.26	152,707,250	국수기계 1세트 밀가루(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9.26	1,661,000	소형 국수기계 1세트	조선카톨릭교협회	
	10.8	63,392,616	빵 공장 부품, 설비	조선카톨릭교협회	
	11.28	88,495,750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소계	1,068,256,566			

연도	월, 일	금액(원)	품목	기탁처	기타 참고 사항
2002	2.28	24,010,800	모판용 비닐(15톤)	조선카톨릭교협회 (평남 평원군 원화리 협동농장)	
	2.28	105,750,000	밀가루 (45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평양 국수공장 각 150톤)	
	2.28	25,512,425	수송비, 관세	조선카톨릭교협회	
	2.28	198,000,000	옥수수(1,0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함경남도)	
	7.10	23,760,000	방막용 비닐 (375롤)	조선카톨릭교협회 (평남 평원군 원화리 협동농장)	
	7.10	14,825,600	발전기 1세트	조선카톨릭교협회 (평양 국수공장)	
	7.10	70,500,000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평양 국수공장 각 100톤)	
	7.10	15,434,179	수송비, 관세	조선카톨릭교협회	
	7.10	177,750,000	옥수수(1,0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함경남도)	
	10.31	70,500,000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평양 국수공장 각 100톤)	통일부남북협력 기금 지원사업
	10.31	23,760,000	방막용 비닐 (375롤)	조선카톨릭교협회 (평남 평원군 원화리 협동농장)	
	10.31	15,538,366	수송비, 관세	조선카톨릭교협회	
	10.31	184,500,000	옥수수(1,0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함경남도)	
	소계	949,841,370			

연도	월, 일	금액(원)	품목	기탁처	기타 참고 사항
2003	4.30	102,724,000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평양 국수공장 각 100톤)	
	8.13	109,800,000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평양 국수공장 각 100톤)	
	8.13		14처	조선카톨릭교협회 (장충성당)	
	10.31	109,678,000 ²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평양 국수공장 각 100톤)	
	12.17	9,950 (달러)	제대용 가구	조선카톨릭교협회 (장충성당)	
	12.17	2,560 (달러)	국수공장 부품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국수공장)	
	소계	322,331,232			
2004	4.21	74,400(달러)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국수 공장 각 150톤)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5.7	39,040,000	미숫가루 (15톤)	조선카톨릭교협회 (룡천역 참사민 돕기)	
	6.17	78,000(달러)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국수 공장 각 150톤)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7.14	158,422,000	소형 경운기 (50대)	조선카톨릭교협회 (강원도 원산, 평안도 의주)	
	9.24	74,400(달러)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국수 공장 각 150톤)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12.11	74,400(달러)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국수 공장 각 150톤)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소계	513,985,382	(밀가루 1200톤 총 355,563,000원)		

2 20031210공문 민족공동체회복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연도	월, 일	금액(원)	품목	기탁처	기타 참고 사항
2005	3.21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국수 공장 각 150톤)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6.17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국수 공장 각 150톤)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9.22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국수 공장 각 150톤)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11.14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국수 공장 각 150톤)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11.16	266,500,000	어린이 영양제 생산시설	조선카톨릭교협회 (평원시 동대원구역 새살림동)	
	소계	613,843,343			
2006	3.20	73,800(달러)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국수 공장 각 150톤)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5.29	58,000,000	어린이 영양제 원료 (4개월분)	조선카톨릭교협회 (평양시 동대원구역 새살림동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6.9	73,800(달러)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국수 공장 각 150톤)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6.19		아동복 10만장	조선카톨릭교협회 (평안북도 유아원)	㈜세아상역 기증
	9.4	73,800(달러)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국수 공장 각 150톤)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9.6	58,000,000	어린이 영양제 원료(4개월분)	조선카톨릭교협회 (평양시 동대원구역 새살림동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11.29	58,000,000	어린이 영양제 원료(4개월분)	조선카톨릭교협회 (평양시 동대원구역 새살림동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12.5	73,800(달러)	밀가루(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 남포 국수 공장 각 150톤)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소계	666,511,133	(밀가루 1200톤+수송비 총 313,000,000원 / 영양제 원료 총 180,000,000원)		

연도	월, 일	금액(원)	품목	기탁처	기타 참고 사항
2007	4.3	248,459(달러)	아동의류(139,354장)	조선카톨릭교협회 (평안북도, 황해북도)	
	4.30	90,574,000	주일학교 건물 건축자재	조선카톨릭교협회 (장충성당)	
	5.1	58,422,000	온실 자재	조선카톨릭교협회 (장충성당)	
	8.22	54,050,000	콩기름 공장 자재	조선카톨릭교협회 (황해남도 신천군)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8.24	95,500,000	왕진가방 (500세트)	조선카톨릭교협회 (황해남도 신천군 리동인민병원)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9.12	136,300,000 108,300,000	콩기름 (18리터×4717통) 미숫가루 2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북한 수해지역)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9.27	220,000,000	콩기름 착유기 등 공장 지원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군 콩기름 공장)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10.22	107,183(달러)	콩 18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군 콩기름 공장)	
	소계	828,617,062			

연도	월, 일	금액(원)	품목	기탁처	기타 참고 사항
2008	4.16	65,625,174	어린이 영양제 원료 (월 300만 정, 4개월분)	조선카톨릭교협회 (어린이 영양관리 연구소, 평양, 황해북도)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5.26	174,263,883	콩 180톤 (4개월분)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군 콩기름 공장)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8.20	93,901,309	어린이 영양제 원료 (월 300만 정, 4개월분)	조선카톨릭교협회 (어린이 영양관리 연구소, 평양, 황해북도)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8.26	190,042,613	콩 180톤 (4개월분)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군 콩기름 공장)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10.29		아동의류 10만벌	조선카톨릭교협회 (평안남도, 황해북도 유아원)	
	11.19	53,315,138	어린이 영양제 원료 (월 300만 정, 4개월분)	조선카톨릭교협회 (어린이 영양관리 연구소, 평양, 황해북도)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12.10	246,486,883	콩 240톤 (4개월분)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천군 콩기름 공장)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12.30		양말 40만 켤레	조선카톨릭교협회 (황해북도, 평안남도 취약계층)	
	소계	877,417,730			

연도	월, 일	금액(원)	품목	기탁처	기타 참고 사항
2009	6.10		어린이 영양제 원료 (월 300만 정, 4개월분)	조선카톨릭교협회 (어린이 영양관리연 구소, 평양, 황해북도)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8.15		어린이 영양제 원료 (월 300만 정, 4개월분)	조선카톨릭교협회 (어린이 영양관리연 구소, 평양, 황해북도)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11.17		어린이 영양제 원료 (월 300만 정, 4개월분)	조선카톨릭교협회 (어린이 영양관리연 구소, 평양, 황해북도)	통일부남북협력 기금지원사업
	12.23		분유 16톤	조선카톨릭교협회 (함경북도 청진 유치원)	
	소계	346,865,299			
2010	5.15	201,000,000	아유식 원료(4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황해북도, 평양)	
	11.8		밀가루 (3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신의주 일대, 황해북도, 평양)	수해 피해 주민 지원
	소계	379,268,518			
2011	10.12	131,648,000	밀가루 (200톤)	조선카톨릭교협회 (평안남도 안주, 영· 유아 교육시설)	
	소계	131,648,000			
2014	8.5	4,590,300	개성공업지구 도서 지원(426권)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	
	8.8	14,678,000	개성공업지구 탁아 소 건조기 지원(건 조기 2대+설치 및 전기공사 비용)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	
	12.19	118,595,230	밀가루(90톤)	민족화해협의회	
	12.26		밀가루(110톤)	민족화해협의회	
	소계	137,863,530			

연도	월, 일	금액(원)	품목	기탁처	기타 참고 사항
2015	4.10	177,000,000	온실 및 육묘 자재	하나로민족협력	우리은행 지원 사업
	10.14		몽골 지원 후원금	몽골 향울성당 허웅 신부	
2016	4월	17,000,000	농업분야 종자지원	하나로민족협력	
	5.17		여성용품 지원(358개)		
2017	3.21	190,000,000	몽골지역 북한노동자지원	몽골 향울성당	
	6월	15,000,000	의약품지원	평양 및 강원도 내 병원	
	소계	205,000,000			
2018	9.27 ~10.1	61,000,000	몽골지역 북한청소 년지원	노명요스초등학교	

부설 기관 : 평화나눔연구소

| 설립 목적 |

평화나눔연구소는 평화와 나눔에 대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북한 복음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실천적 활동을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되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기관으로 평화와 나눔, 소통과 화합,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연구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며, 청년 연구자 및 활동가들 사이에 서로 가교의 역할을 지향한다.

평화나눔연구소는 북한교회 관련 각종 사료를 발굴·수집하여 이를 정리·분석함으로써 신앙 선조들의 역경과 발자취를 되살려 향후 북한지역 교회 복음화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주요 연혁 |

2014년 4월 7일	제1회 추기경 현안보고 개최(2014년 총 11회 보고)
2015년 1월 26일	2015년 추기경 현안보고 개최(2015년 총 21회 보고)
3월 24일	• 평화나눔연구소 개소식 & 개소기념 평화토크 “분단 70주년, 한반도 평화와 종교의 서명” 개최 • 평화나눔학교 2기 개강(매주 목요일 7시, 총 8주 진행)
7월 3일	제1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개최
7월 13일	평화나눔연구소 축복식
10월 5일	가톨릭 청년공동체 ‘토마스회’ 첫 모임
12월 11일	『제1회 평화나눔포럼』 개최
2016년 1월 8일	제5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개최
1월 14일	2016년 추기경 현안보고 개최(2016년 총 38회 보고)
2월 17일	토마스회 공식 창립 발대 미사
3월 31일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5월 12일	평화나눔학교 3기 개강(매주 목요일 7시, 총 8주 진행)
8월 15일	(논문시리즈) 『북한 종교 박해 역사와 사건 기록』, 『북한주민의 종교성: 북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발간
8월 20일	『2016 한반도평화나눔포럼』 개최
10월 16일	‘평화로 가는 길’ 신학생 북중접경탐방(5박 6일)
12월 9일	『2016 평화나눔포럼』 개최
2017년 2월 11일	제1회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개최
2월 16일	2017년 추기경 현안보고 개최(2017년 총 14회 보고)
2월 17일	토마스회 창립 2주년 기념미사
3월 30일	창립 2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8월 26일	제2회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개최
11월 4일	『2017 한반도평화나눔포럼』 개최

2018년	2월 11일	토마스회 창립 3주년 기념미사
	2월 23일	제2대 소장 최진우 한양대 교수 위촉
	2월 24일	제3회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개최
	3월 22일	창립 3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평화나눔연구총서 I) 『가톨릭교회 평화론과 평화사상』 발간
	4월 19일	2018년 추기경 현안보고 개최(2018년 총 8회 보고)
	9월 1일	『2018 한반도평화나눔포럼』 개최
	10월 12일	학술심포지엄: 『평화를 위해 일한 가톨릭 선구자 장면(張勉)』 개최
2019년	1월 4일	2019년 추기경 정기현안보고 개최(2019년 총 12회 보고)
	2월 23일	제4회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개최
	3월 8일	창립 4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5월 18일	『2019 한반도평화나눔포럼』 개최
	8월 24일	제5회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개최
	12월 13일	『2019 평화나눔포럼』 개최
2020년	2월 20일	2020년 추기경 현안보고 개최(2020년 총 12회 보고)
	2월 20일	제3대 소장 홍용표 한양대 교수 위촉
	9월 30일	학술지 『인간과 평화』 창간호 발간
	11월 21일	『2020 한반도평화나눔포럼』 개최
	12월 15일	토마스회 『속삭이다, 평화』 발간

2021년	2월 18일	2021년 추기경 현안보고 개최(2021년 총 3회 보고)
	3월 31일	학술지 『인간과 평화』 제2권 제1호(통권 2호) 발간
	9월 30일	학술지 『인간과 평화』 제2권 제2호(통권 3호) 발간
	11월 6일	『2021 한반도평화나눔포럼』 개최
2022년	3월 31일	2022년 교구장 현안보고 개최(2022년 총 3회 보고)
	3월 31일	학술지 『인간과 평화』 제3권 제1호(통권 4호) 발간
	9월 30일	학술지 『인간과 평화』 제3권 제2호(통권 5호) 발간
	11월 26일	『2022 한반도평화나눔포럼』 개최
2023년	2월 16일	2023년 교구장 현안보고 개최(2023년 총 4회 보고)
	3월 30일	창립 8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3월 31일	학술지 『인간과 평화』 제4권 제1호(통권 6호) 발간
	9월 30일	학술지 『인간과 평화』 제4권 제2호(통권 7호) 발간
	11월 18일	『2023 한반도평화나눔포럼』 개최
2024년	3월 15일	교구장 현안보고 및 5기 연구위원회 출범. 제5대 소장 정수용 신부 부임
	3월 31일	학술지 『인간과 평화』 제5권 제1호(통권 8호) 발간
	5월 3일	창립 9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8월 21일	토마스회 재출범

| 소장, 부소장, 위원 |

연구소장

- 1대 임강택 마르티노 (2015. 3 - 2016. 12)
- 2대 최진우 스테파노 (2018. 2 - 2020. 2)
- 3·4대 홍용표 프란치스코 (2020. 2 - 2024. 1)
- 5대 정수용 이냐시오 (2024. 3 -)

부소장

- 1·2대 부소장 남궁곤 아타나시오 (2020. 2 - 2024. 1)
- 2대 부소장 임강택 마르티노 (2024. 3 -)

1기 연구위원

- 고영심 모니카 (산 에지디오 공동체 한국지부)
- 김문태 힐라리오 (서울디지털대)
- 김훈일 세례자요한 신부(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 도진순 하상바로 (창원대)
- 박영민 미카엘 (대진대 창의미래인재대학)
- 박우상 사도요한 (데이비드영어연구소)
- 성기영 이냐시오 (국가안전전략연구원)
- 오규열 크로마시오 (서울디지털대)
- 윤여상 사도요한 (북한인권정보센터)
- 임순희 헬레나 (통일연구원)
- 임을출 베드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장궁선 예로니모 신부(서울대교구 이콘연구소)
- 정순원 오티리아 (통일부)
- 차승주 아녜스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 최진우 스테파노(한양대)
- 한영만 스테파노 신부(가톨릭대)
- 함명식 도미니코 (중국 길림대 공공외교학원)
- 황수환 요셉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2기 연구위원

- 강석화 클레멘스 (경인교대)
- 고영심 모니카 (산 에지디오 공동체 한국지부)
- 김용호 세례자요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 마상윤 발렌티노 (가톨릭대)
- 모춘흥 아우구스티노 (한양대 평화연구소)

박영민 미카엘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박우상 사도요한 (데이비드영어연구소)
신난희 베로니카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
신정환 토마스 (한국외국어대)
성기영 이나시오 (통일연구원)
오규열 크로마시오 (서울디지털대)
윤여상 사도요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임순희 헬레나 (前 통일연구원)
정일영 베드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차승주 아녜스 (통일부)
최진우 스테파노 (한양대)
한영만 스테파노 신부 (가톨릭대)
함명식 도미니코 (중국 길림대 공공외교학원)
황수환 요셉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홍용표 프란치스코 (한양대)

3기 연구위원

강석화 클레멘스 (경인교대)
고영심 모니카 (산 에지디오 공동체 한국지부)
김병태 미카엘 (한국군사학회)
김용호 세레자요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남궁곤 아타나시오 (동아일보 21세기평화연구소)
도진순 하상바오로 (창원대)
마상윤 발렌티노 (가톨릭대)
모춘홍 아우구스티노 (한양대 평화연구소)
박우상 사도요한 (데이비드영어연구소)
신난희 베로니카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
윤여상 사도요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민영 소화데레사 (고려사이버대)
임순희 헬레나 (前 통일연구원)
정일영 베드로 (IBK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
조남대 요셉 (법무법인 양현)
조영호 요아킴 (서강대)
차승주 아녜스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최진우 스테파노 (한양대)
한영만 스테파노 신부 (가톨릭대)
함명식 도미니코 (중국 길림대 공공외교학원)
황수환 요셉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4기 연구위원

강석화 클레멘스 (경인교대)
고영심 모니카 (산에디시오 공동체 한국지부)
김병태 미카엘 (한국군사학회)
김용호 세레자요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남궁곤 아타나시오 (동아일보 21세기평화연구소)
도진순 하상바오로 (창원대)
마상윤 발렌티노 (가톨릭대)
모춘홍 아우구스티노 (한양대 평화연구소)
박우상 사도요한 (데이비드영어연구소)
신난희 베로니카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
신정환 토마스 (한국외국어대)
성기영 이나시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여상 사도요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민영 소화데레사 (고려사이버대)
임순희 엘레나 (前 통일연구원)

정일영 베드로 (IBK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

조남대 요셉 (법무법인 양현)

조영호 요아킴 (서강대)

차승주 아녜스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최진우 스테파노(한양대)

한영만 스테파노 신부(가톨릭대)

함명식 도미니코 (중국 길림대 공공외교학원)

황수환 요셉 (통일연구원)

5기 연구위원

강우창 안토니오 (고려대)

고광영 에발도 (평화나눔연구소)

김연수 스테파노 신부(예수회 민족화해위원회)

남경우 펠릭스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도지인 리디아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사당동 분당)

서정배 요셉 (통일부)

손서정 베아트릭스 (가톨릭대)

이규수 베드로 (강덕상자료센터)

조용신 사도요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1기 자문위원

유호열 바오로 (고려대)

조광 이냐시오 (고려대)

한홍순 토마스 (前 교황청 주재 한국대사)

함제도 제라르노 (메리놀외방전교회 한국지부)

2-4기 자문위원

한홍순 토마스 (前 교황청 주재 한국대사)

함제도 제라르노 (메리놀외방전교회 한국지부)

| 학술 활동 |

2015

- 7월 3일 **제1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 프란치스코 성인과 프란치스코 교황: ‘평화 안에서(in peace)’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
 - 고영심(산 에지디오 한국대표)
- 8월 25일 **제2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 국제정치적 관점에서의 평화연구
 - 성기영(통일연구원)
- 9월 22일 **제3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 이대훈(성공회대 NGO대학원 평화학 교수): 평화학의 국내·해외 동향 비교 및 천주교에 대한 시사점
- 11월 6일 **제4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한반도와 평화이론
- 12월 11일 **2015 평화나눔포럼**
- 임순희(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북한주민의 종교성
 - 윤여성(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종교박해 백서
 - 왕르(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학대학원 박사과정):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의 한중관계
 - 윤훈기(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석사수료): 아일랜드 문학의 평화 담론

2016

- 1월 8일 **제5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 이문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평화인문학과 평화문화
- 2월 4일 **제6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 박정우(가톨릭대 성신교정 교수): 가톨릭의 평화
- 3월 31일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
- 박정우(가톨릭대 성신교정 교수): 가톨릭교회의 평화론과 그리스도인의 실천
 - 도진순(창원대 사학과 교수): 도마 안중근의 평화 사상과 행동, 기억의 터
 -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
 -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평화통일 로드맵’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정책 과제
- 8월 15일 (논문시리즈) 『북한 종교 박해 역사와 사건 기록』, 『북한주민의 종교성: 북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발간
- 8월 20일 **2016 한반도평화나눔포럼**
- 뱌사라 부트로스 라이 추기경(중동 및 안티오키아 마로나이트 총대주교): 중동지역의 평화와 화해
 - 빙코 뵐리치 추기경(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 대교구장): 전쟁 이후 사목 차원에서 화해와 평화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스타니슬라브 호체바르 대주교(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대교구장): 전쟁과 테러 상황 속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평화와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평신도들의 임무
 - 프란요 코마리차 주교(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반야 루카 교구장):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가톨릭교회의 임무
 - 최진우(한양대 교수):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박정우(가톨릭대 교수): 가톨릭교회의 평화론

- 아키바 타다토시(히로시마 피스오피스 소장):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 히로시마 방문
- 주드 랄 페르난도(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교수):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역할
- 고빈다 클레이튼(영국 켄트대학교 교수):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모색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
- 조민(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전망
- 박건영(가톨릭대 교수): 한국의 안보와 사드
- 왕이저우(중국 베이징대학교 교수): 중국 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평화
- 앤드류 여(미국 가톨릭대 아시아학 소장): 평화, 신뢰, 그리고 남북관계

10월 12일 제7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비샤르 엠 와르다(이라크 아르빌대교구장): 중동평화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

11월 25일 제8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김석근(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국 전통 사상에서의 ‘평화’ 개념 시론

12월 9일 2016 평화나눔포럼

- 황수환(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평화협정의 의미와 사례
- 차승주(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종교와 평화교육: 종교를 통한 대안적 통일교육의 모색
- 오영달(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근대 서양의 평화사상
- 최진우(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대의 윤리, 공생의 문화 그리고 평화
- 황소희(연세대 통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중국 공산당의 집권 이후 가톨릭 대응방안 분석
- 이시권(숭실대 정치학 석사): 남북한 통화통합에 관한 연구
- 박현우(연세대 통일학협동과정 석사과정):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북한사회구현에 관한 연구

2017**1월 20일 제9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신정환(한국외대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 라틴아메리카와 가톨릭 교회

2월 16일 제10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김기현(선문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라틴아메리카 정치사회 현황과 사회경제적 특징

2월 24일 제11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하상섭(한국외대 스페인어학과 교수): 라틴아메리카 지역 평화와 정의를 위한 시민사회 운동의 발전과 함의

2월 28일 제12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고병현(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평화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

3월 10일 제13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송병선(울산대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라틴아메리카 정체성과 가톨릭 교회

3월 16일 제14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신정환(한국외대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 라틴아메리카 주민의 삶과 종교생활

3월 30일 창립 2주년 기념세미나

- 차승주(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종교와 평화교육
- 박영민(대진대 교수): 전환기 국제정세와 한반도 평화
-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민 참여를 통한 평화와 통일

11월 3일 2017 한반도평화나눔포럼

- 그레고리오 로사 차베스 추기경(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대교구): 생명의 길
- 오질루 빠드루 쉼레 추기경(브라질 상파울로 대교구장): 평화의 뿌리는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 카를로스 가르피아스 메를로스 대주교(멕시코 모렐리아 대교구장): 교회의 사명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 신정환(한국외대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 한국과 중남미 가톨릭교회
- 비센떼 아스페체 질(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1976–2017 사이의 아르헨티나: 분쟁, 원망, 화해 그리고 만남
- 호세 그레고리오 에르난데스 갈린도(콜롬비아 보고타 법과대 학장 겸 총장): 평화, 관용과 분별력이 요구되는 과정
- 강원택(서울대학교 교수):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와 민주주의의 미래
- 이정호(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관장): 한국사회 이주민의 이해와 제언
- 홍용표(한양대학교 교수): 하나됨의 길: 평화문화의 확산
- 루카스 반 루이 주교(벨기에 겐트 교구장):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역할

2018

3월 2일 제15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황수환(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평화와 평화구축

3월 22일 창립 3주년 기념세미나

-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미국의 대중정책과 한반도 전략
- 이희옥(성균관대 교수), 성기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한범(국방대 교수), 문경연(전북대 교수) : 중국의 대미정책과 한반도 전략

3월 22일 (평화나눔연구총서 I) 『가톨릭교회 평화론과 평화사상』 발간

4월 6일 제16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천자현(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국제정치에서의 화해 논의, 그리고 통일 후 통합

5월 4일 제17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회 내부 진행: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6월 1일 제18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함제도(메리놀외방전교회 한국지부장): 최근 북한의 의료지원 현황과 전망

6월 24일 제19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반도 정세와 중국요인

- 7월 13일 **제20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 황수환(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평화협정의 의미
 - 함명식(중국 길림대 공공외교학원 조교수): Shaking Hands with an Enemy: North Korea's Shift of Nuclear Policy from Escalation to Restrain
 - 김지은(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대 교수): 정치적 화해와 회복적 정의
- 8월 14일 **제21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태영호(前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비공개
- 9월 1일 **2018 한반도평화나눔포럼**
- 오스월드 그라시아스 추기경(인도 뭄바이대교구장): 평화 건설은 모든 국가의 책임과 의무
 - 루이스 타글레 추기경(필리핀 마닐라교구장): 평화의 기회를 찾아서
 - 찰스 마웅 보 추기경(미얀마 양곤대교구장): 인간의 존엄과 평화
 - 세바스찬 프란시스 쇼 대주교(파키스탄 라호르대교구장): 인간의 존엄과 평화, 한반도의 길
 - 마르티누스 도그마 시투모랑 주교(인도네시아 파당교구장): 우리의 일용 할 양식: 평화를 살고 평화를 실천하는 것
 - 강성숙(안산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함께 살고, 함께 향하는 다문화 사회
 - 고경빈(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함께 하는 삶: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현황과 과제
 - 마인섭(성균관대 교수): 민주화 이후 한국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질
 - 박영란(강남대 교수): 초고령사회 함께 살기: 세대갈등의 쟁점과 과제
 - 박준양(가톨릭대 교수): 평화의 신학: 그 온전함과 충만함을 향한 첫걸음 내딛기
 - 박승찬(가톨릭대 교수): 김수환 추기경의 '참 평화의 길'
 - 김성경(북한대학원대 교수): 분단폭력 너머 화해의 가능성: 분단을 살아

가는 사람들과의 평화 모색

- 홍성필(연세대 교수): 인권과 평화: 아시아의 도전과 인권제도의 창설

- 10월 12일 **2018 학술심포지엄**
- 홍성군(창원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역사와 교회의 밀알 장면 요한: 장면 생애의 한국 근·현대사적, 교회사적 의미
 - 허동현(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가톨릭 정치가로서 장면 요한의 삶과 치적 재조명

- 11월 23일 **제22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 김태균(서울대 교수): 국제 개발 협력 관점에서 본 대북 제재와 대북 경제 지원
 - 문흥호(한양대 교수): 중국의 한반도 정책

- 12월 21일 **제23차 평화연구 콜로키움**
배영자(건국대 교수):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북한

2019

3월 8일

창립 4주년 기념세미나

- 신정환(한국외대 교수):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말씀을 통해 본 평화
- 조정환(청파동성당 주임): 김수환 추기경의 사상 안에 나타난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
- 김환영(중앙일보 대기자): 김수환 추기경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
- 이호철(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쟁점과 과제
-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5월 18일

2019 한반도평화나눔포럼

- 구스만 카리키리(교황청 라틴아메리카 위원회 부의장): 만남, 평화, 그리고 화해와 문화
- 페테르 에르되 추기경(헝가리 에스테르곰-부다페스트 대교구장): 평화적 체제 변화와 헝가리 가톨릭교회의 역할 (1989-2019)
- 보이척 폴락 대주교(폴란드 그니에즈노 대교구장): 화해작업 안에서 폴란드 교회의 역할: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화해의 예
- 요제프 클레멘스 주교(前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차관): 독일 교회가 걸어온 화해와 평화의 길
- 전영준(가톨릭대 신학대학장):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유동인(遊動人)에 대한 환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통합
- 프랑크 군터 레무스(UN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권한대행): 보편적 인류애의 모색: 난민과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

- 김학성(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화해와 용서를 통한 한반도 평화 만들기
- 박 에밀리아나(어울림센터장): 작은 길로 평화: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걷는 길
- 전우택(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분단, 용서 그리고 신앙

12월 13일

2019 평화나눔포럼

- 김용호(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특임교수):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마상윤(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한국 외교
- 최진우(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환대의 실천과 실현
- 신정환(한국외대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 타자의 발견과 정당한 전쟁: 라틴아메리카 식민화와 복음화
- 신난희(대구가톨릭대 교수): 탈북 이주민의 분단 디아스포라와 신앙

2020

11월 21일 2020 한반도평화나눔포럼

- 김종법(대전대 교수): 유럽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대응 및 전망
- 조영호(서강대 교수): 코로나 사태와 정부신뢰
- 한영만(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장):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고통 받는 인간의 치유
- 정일영(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한반도 정세 변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김태균(서울대 교수):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조건: 대북지원의 딜레마와 성공요인
- 황소희(연세대 박사과정): 가톨릭 국제네트워크의 대북지원 구조
- 한홍순(前 교황청 주재 한국대사): 보편적 평화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

2021

4월 14일 창립 6주년 기념세미나

- 윤여생(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평화나눔연구소의 발자취와 그 의미
- 차승주(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평화나눔을 위한 어젠다: 평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11월 6일 2021 한반도평화나눔포럼

- 김종학(국립외교원 교수): 조선교구 설정(1831)과 자발적 교회 공동체 발전의 의미
- 김용해(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 안중근의 예언적 삶과 가톨릭의 평화론
- 김용호(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로마 교황청과 대한민국 정부 승인 외교
- 박태균(서울대 교수): 냉전에 희생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추도하며: 북한의 종교정책과 전쟁 전후 실종된 가톨릭 관계자들
- 설지인(연세대 겸임교수): 개발금융 관점에서 바라본 대북지원 문제: 평가와 개선 방향
- 전재성(서울대 교수): 남북한 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모색: 북핵 문제 속 한국의 향후 대북, 대미 전략
- 김기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과 과제

2022

11월 26일 2022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한반도 화해를 위한 가톨릭의 평화인식과 역할”

- 박주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인의 평화인식: 기대와 현실
- 강우창(고려대 교수): 천주교인들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생각
- 조영호(서강대 교수): 천주교인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태도
- 마상윤(가톨릭대 교수): 코로나19팬데믹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
- 이우영(북한대학원대 교수):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남북한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 이대훈(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 평화의 여정을 위한 평화운동과 평화교육
- 하영선(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21세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2023

3월 30일 창립 8주년 기념세미나 “정전 70년의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전쟁”

-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과 평화 해결 가능성
- 차태서(성균관대 교수): 포스트-우크라이나 전쟁 시대 세계질서의 전환과 한반도예의 함의
-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2023 남북한 관계 전망: 정전체제와 한미동맹 70년의 변환
-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정전체제 70년의 사회학적 유산과 평화 문화

11월 18일 2023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한반도 화해와 평화에 이르는 길”

- 박동호(前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화해와 평화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 김선필(서강대 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 천주교회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성찰과 노력: 민족화해운동을 중심으로
- 허승훈(일본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대 교수): 유럽의 적대국 간 다양한 화해의 형태
- 김지은(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대 교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화해의 길
- 메리엔 러브(미국 가톨릭대 교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증진하는 한국의 천주교회

2024

- 5월 3일 **창립 9주년 기념세미나 “한반도 분단 극복과 화해를 위한 교회의 역할”**
- 정옥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반도 분단이 우리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
 - 남경우(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원): 한반도 분단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반도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회의 역할
- 7월 10일 **5기 연구위원회 1차 콜로키움**
- 도지인(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남남갈등
- 9월 12일 **5기 연구위원회 2차 콜로키움**
- 박동호(사당동성당 협력사목사제):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다루는 평화와 인권
- 11월 15일 **2024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평화를 향한 여정”**
- 하인츠-게르하르트 유스텐호번(신학과 평화 연구소): 독일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화해: 가톨릭교회의 역할
 - 마르코 프란치오니(산 에디지오 공동체): 평화는 항상 가능하다: 위기 시 나리오에서 산에 지디오 공동체의 경험
 - 최이슬(한국수출입은행 연구원): 가톨릭 언론을 통해서 살펴본 교회의 인식
 - 조용신(한국은행 부연구위원/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가톨릭 사제가 바라보는 통일과 교회

산하 기관 : (사)우니타스

| 설립 목적 |

(사)우니타스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관한 규정에 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남북한 동질성 회복과 하느님 사랑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 긴급구호 지원사업
- 농업개발 지원사업
- 의료보건 지원사업
- 취약계층 지원사업
- 산림녹화 및 환경보전 지원사업
- 대북협력 지원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 주요 연혁 |

2015년 7월 3일	법인 창립 발기인 총회
2015년 7월 7일	(사)우니타스 인증서 공증인가 승인
2015년 7월 20일	「민법」제 32조와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우니타스 법인의 설립허가
2015년 8월	통일부 기부단체 지정 신청
2015년 11월	농업분야 온실지원사업(통일부남북협력기금사업)
2016년	농업분야 종자지원
2017년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농업분야 종자지원, 제3국 북한노동자 지원(몽골)
2018년	제3국 청소년지원사업(몽골)
2019년~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육 분야에서 회원들의 공익활동 전개

| 인도적 지원 현황 |

- (사)우니타스 2015년~2018년까지 대북사업에 약 4억 6천만 원 지원
 - 2018년 대북제재 강화, 대화단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대북지원 전면 중단됨으로써 이후 평화나눔연구소와 연대하여 대북지원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육 분야로 회원들의 공익활동 전개
 - 2022년 7월 고(故) 한정관 신부 지정기탁금 사업 수탁
- 사업기간** 2022년 9월~ 2025년 9월
- 사업목적** 북한 지역 내 영유아, 어린이 영양식, 취약계층 의약품 지원에 관한 인도적 대북지원 및 협력을 통하여 북한 동포들에게 하느님 사랑을 전파한다.
- 사업비** 1억 5천만 원

(사)우니타스 대북지원사업 내역(2015~2018)

연도	사업분야	사업명(사업내용)	사업지역	사업파트너	지원금액(원)
2015	농업	온실지원사업	평안남도과 황해북도	하나로민족협력	1억7천7백만
2016	농업	종자지원	평안남도	하나로민족협력	1천7백만
2017	보건의료	의약품지원	평양 및 강원도 내	산 에지디오	1천5백만
	일반구호	제3국 북한노동자지원	몽골	몽골항울성당	1억9천만
2018	일반구호	제3국 청소년지원	몽골	살레시오수녀회	6천1백만

| 역대 이사장 및 상임이사 |

법인 발기인

이사 염수정, 정세덕, 김훈일, 임강택, 이정근, 전성우, 성기영

감사 남성렬, 김이동

1대

직위	성 명	주요약력	임기
이사장	염수정	서울대학교장 추기경	2015. 7 – 2018. 6
상임이사	정세덕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신부	”
이사	김훈일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 정책실장 신부	”
이사	임강택	통일연구원 연구원 평화나눔연구소 소장	”
이사	이정근	민족화해위원회 기획위원장	”
이사	전성우	민족화해위원회 운영위원 PBC 방송 국장	”
이사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원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원	”
감사	남성렬	민족화해위원회 운영위원 변호사	2015. 7 – 2017. 6
감사	김이동	민족화해위원회 감사 회계사	”

2대

직위	성명	주요약력	임기
이사장	염수정	서울대학교장 추기경	2018. 7 – 2021. 7
상임이사	정세덕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신부	”
이사	이형전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신부	”
이사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평화나눔연구소 소장	”
이사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통일부 장관	”
이사	전성우	민족화해위원회 운영위원 평화방송 PD	”
이사	성기영	국가안전전략연구원 연구원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원	”
감사	남성렬	민족화해위원회 운영위원 변호사	2017. 7 – 2019. 7
감사	김이동	민족화해위원회 감사 회계사	”

3대

직위	성명	주요약력	임기
이사장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2021. 10 – 2024. 8
상임이사	정세덕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신부	2021. 9 – 2024. 8
이사	박기석	ACN 지도신부	”
이사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
이사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평화나눔연구소 소장	”
이사	전성우	민족화해위원회 운영위원 평화방송 PD	”
이사	남궁곤	평화나눔연구소 부소장	”
이사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
감사	남성렬	민족화해위원회 운영위원 변호사	”
감사	조남대	민족화해위원회 운영위원 변호사	”

4대

직위	성명	주요약력	임기
이사장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2024. 9 – 2027. 8
상임이사	정수용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신부	”
이사	박경근	서울대교구 대방동 본당 주임	”
이사	현대일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장	”
이사	최우주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양성소위원회	”
이사	조승현	서울대교구 가톨릭평화방송 보도주간	”
감사	안권섭	법무법인 AK 변호사	2023. 9 – 25. 8

‘북한선교’가 아닌 ‘민족화해’인 이유

구술자 노길명·조광 교수

면담자 이민석(한국교회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일시 및 장소 2024년 6월 5일, 한국교회사연구소 회의실

두 분 선생님께서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신 계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길명 교수(이하 노): 네, 민족화해위원회는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1982년에 설립된 북한선교부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선교부의 설립 때부터 활동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민화위에 계속 참여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광 교수(이하 조): 1994년 10월경이었습니다.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내년이면 광복 50주년이 되는데, 교회 입장에서 어떤 일이 필요한가를 가볍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일 중요했던 문제가 남북분단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더니 교구 차원에서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고, 당시 최창무 주교한테 이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그해 말부터 통일, 분단 극복 문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그 이전에 1989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강원용 목사가 하던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5대 종단 대표들이 모여서 민족통일 문제 그리고 그밖에 현 사회에 대한 종교계의 견해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해야 하지 않겠냐고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뵙고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대외문제는 총대리 김옥균 주교 관장이니 가서 의논하라

고 해서, 강원용 목사가 김옥균 주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걸 내가 강원용 목사한테 직접 들었던 건데, 난 김옥균 주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데 웬지 그냥 이름이 거론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대표로 가라고 해서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3박 4일을 같이 합숙하면서 열렸던 5대 종단 모임에 나갔고, 거기에서 성명서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1989년도 성명서가 민족화해 문제를 논할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 성명서 초안을 내가 맡으라고 해서 쓰게 됐던 거였죠. 물론 그게 초안대로 다 된 건 아니고 거기에 수정 의견들이 들어오고 해서 고쳐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초안을 쓸 때 민족화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려면 한다는 걸 설득을 해서 민족화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을 1994년에 뵈었을 때, 북한선교 개념과 민족화해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 민족화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돼 있던 상황에서 1994년도에 이 일에 관여가 되었던 거였죠. 그 당시에 무슨 의견이 나왔느냐면 북한선교위원회(이하 북선위)가 있는데 왜 민족화해위원회냐, 장덕필 신부도 그랬고 여러 신부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북한선교부를 강화하는 형식이면 어떤가 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북한선교라고 하는 건 북한 인민들을 대상화하는 작업밖에 안 되고, 북한의 역사서나 모든 책을 보자면 선교사는 제국주의 주구 노릇을 한 것으로 표현돼 있는데 굳이 그쪽에서 싫어하는 용어를 쓸 수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지금 분단된 민족들이 화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몇 가지 제목을, 한 다섯 가진가를 제시해서 그중에서 선정해달라고 최창무 주교에게 드렸고, 최 주교가 추기경한테 드렸는데 추기경으로서는 전에 들었던 바도 있고

해서 그랬는지 최종적으로 민족화해위원회라고 낙점을 찍어 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걸 앞으로 역사 정리할 때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북한 선교부와 민족화해위원회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북한선교라고 할 때는 종전의 반공주의 일변도의 의식이 조금은 거기에 관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족화해라고 할 때는 이점이 반공주의보다는 화해가 필요한 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나 통일이나 목적 지향적이지만 화해는 수단과 방법, 그리고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서에다가 적어뒀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북선위가 있지만, 서울교구는 민족화해위원회로 한다 해서 민족화해위원회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경우에는 북한선교부가 있었거든요, 북선위도 있고, 그 북선위가 200주년 행사인가? 아 150주년이었죠? 노 선생님이 그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생겼던 건데.

☞ 200주년 기념사업이었지요.

☞ 네,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그래서 이제 북한선교라고 하는 개념 대신에 민족화해를 표방하게 된 건 그렇게 된 거였죠. 민족화해하고 관련된 계기는 다시 요약하자면 그 당시에 최창무 주교의 부탁을 받고 본격적으로 과제가 되게 됐던 겁니다.

북한선교부부터 민화위까지 선생님들께서 위원을 역임하시면서 역할과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선교라고 하게 되면 북한지역



노길명, 조광 교수는
1981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대회, 1984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대회의
준비위원과 북한선교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이후 노길명 교수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조광 교수는 1995년부터 2000년,
그리고 2014년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은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의 상대 내지는 타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교회, 평양교구나 함흥교구나 덕원면속구 그리고 경기도 북부 지역과 황해도 지역은 서울대교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평양교구나 함흥교구나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교구, 덕원면속구는 다른 나라 교구가 아닙니다. 한국 천주교 안에 속한 교구입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북한을 선교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선교라고 하는 말이 적합하냐는 논의가 북한선교부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나 80년대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간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사회단체도 그랬고, 교회 내에서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군사독재 정권을 넘어서서 민주사회로 들어간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서부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런 문제가 없다면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직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직접, 간접으로 분단 상황과 연관이 있다, 그 분단 상황 때문에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됐던 것이고, 많은 국가에

산이 국방비로 들어가고 있고 등등 모든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단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관심이 통일 문제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민주화와 인간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분단 상황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테마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같은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서울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북한선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큰 차원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인 분단 문제 극복을 해나가야 하겠고, 또 복음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랑, 정의,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민족화해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들이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구는 북한선교부를 민족화해위원회로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인식이 없었다면, 민화위의 출발은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이 민화위 위원을 역임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뭐냐고 하셨는데 제 경우에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당시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사회가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난, 자연재해 또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북한주민들 가운데 아사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국내외에서 크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민화위에서는 민족의 화해를 위한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복음 정신에 바탕을 둔다고 한다면 저렇게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느냐, 함께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민화위에서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이하 한마음한몸)의 협력을 얻어서

북한 지원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조 선생님께서 먼저 다녀오셨습시다만, 제 경우에는 2002년 7월에 북한을 다녀온 것이 크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장충성당을 방문해서 거기에 계시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참 많았고, 또 장충성당이 위치한 평양시 선교구역은 제 고향입니다. 제가 선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더 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을 도와줬다는 것과 제가 북한을 다녀왔다는 것, 이것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에게는 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❷ 이제 서울교구는 북선위에서 민족화해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교회의 산하로 북선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쉽게 전환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민족화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면서도 몇 년 걸렸어요. 민족화해위원회가 출발한 게 1995년 3월 1일입니다. 일부러 의식적으로 3월 1일이라는 날짜가 들어가기로 했던 거였는데, 왜냐하면 삼일절이 우리 민족이 일으켰던 가장 큰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족화해를 위한 운동도 또 다른 민족운동의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제2의 3·1운동과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고 해서 3월 1일에 북한하고 접촉했습니다. 당시 북한하고 접촉 루트는 중국교회를 통해서 우선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이 기도하자 해서, 처음 만났을 때 결정이 됐던 건 기도문입니다. 세 종류를 만들었어요. 둘은 그냥 남북 화해를 위한 기도문으로 만들었던 거고, 하나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이지요. 그런데 장재언이 그 기도문을 보고 대단히 좋다고 해서 그걸 같이 바치기로 하고 남북 교회간 기도운동부터 시작하자 했어요. 추기경이 1995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에 민족화해의 길이라고 하는 강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론 원고를 쓸 때 조금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침묵의 교회’라는 개념 문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㉞ 침묵의 교회는 1952년경, 비오 12세 교황이 사용하신 용어였습니다. 공산권의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주교회의에서 북한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면서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계속 통용이 되어 왔었죠.

㉟ 침묵은 좋은 거 아닙니까? 침묵은 금이라는데. (웃음) 여하튼 침묵의 교회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침묵의 교회, Church of Silence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같은 신자로서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침묵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던 거였죠.

1995년 미국에서 ‘조국 통일을 위한 천주교인의 역할과 남북 해외 천주교인의 연대 강화’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㊱ 그 준비는 세미나를 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만나는 장소로 미국도 좋다. 어디서든지 만나자 했던 것은 이미 1995년 6월 북경에서 만날 때부터

¹ 그런 얘기가 됐던 거였습니다. 이때 준비는 주로 박창득 신부가 주선해서 미국에서 만나는 거로 했습니다. 박창득 신부는 빌리 그레이엄 재단(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에서 장재언을 미국으로 초청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아마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라기보다는 남북한교회가 만나야 할 필요성, 그리고 북한교회의 현실, 현상이라고 할까,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각자 발표를 했던 것이죠. 제일 기억나는 것은, 장재언 선생이 왜 민족화해냐 해서 그걸 가지고 둘이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재언 얘기로는 통일이라는 말이 좋은데 왜 통일이라는 말을 피하고 화해를 썼느냐 그랬는데, 통일을 가장 원하는 건 김일성 원수하고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그게 통일이 아니라 전쟁밖에 한 거 없지 않느냐, 남북한 사람 많이 죽었는데 그 통일은 목적지향이었고 수단 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민족이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해, 그러니까 1996년 3월인가 3월에 북경 켐핀스키 호텔(Kempinsky Hotel)에서 또 장재언을 만나서 추가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장재언이 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화해란 말이 좋다. 화해가 통일보다 더 상급 개념이니까 그걸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자기네들도 이제 의견의 합의를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민족화해위원회가 사용했던 화해라는 개념

1 1995년 10월 미국에서 최초의 만남이 있기 전에 1995년 5월에 북경에서 만남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끝내 나타나지 않아 만남은 무산됐다. 구술자는 당시 북경에서 만나기 위해 사전에 소통했던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은 우선 남한사회에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화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1998년도에 최창무 주교 모시고 평양에 갔을 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북쪽에서 민족화해협의회를 발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정보부에서 와서 “가서 무슨 장난을 했느냐?” 해서 “전혀 모르는 거다.” 하고, 실제로 몰랐고요. 그런데 남쪽에서도 거기에 호응해서 민족화해협의회 남측본부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 후에 북측본부하고 남측본부로 해서 공동사업도 전개가 되고, 그렇게 북쪽에서도 통일이라고 하는 용어보다 화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민족화해라고 하는 것을 북쪽 교회의 신자들도 이제 충분히 수용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 시작이 포트리(Fort Lee)에서 있었던 뉴욕 세미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천주교회의 대북지원사업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㉞ 대북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서 거기에 남는 걸 준다고보다는 어떤 경우든지 같은 인간이고 같은 형제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같이한다는 그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다, 먹여 살린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주 단기간에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지속해서 할 때는 참다운 인간을 기반을 둔 민족애라고 할까, 동포애라고 할까, 그게 결국 인간을 기반으로 뒤야 할 것이니까. 거기에 철저히 한다면 그게 바로 교회의 정신하고도 또 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㉟ 지금 조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말하자면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카운터 파트너가 강지영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남쪽에서 도와주면 가끔이나마 좀 고맙다는 얘기라도 좀 해라, 그래야 지금 남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하는 맛이 나고 또 남쪽에서 도와주는 후원자들도 마음이 기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받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 안 합니까? 받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강아지에게 먹이 주듯이 던져주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요?”라고 물었더니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남쪽에서 도와주는 단체들이 여기 와서는 뭐 남쪽 가게 되면 엄청나게 도와줄 것처럼 큰소리 뽕뽕 치고 난 다음에 남한 가서는 쥐꼬리만큼 보내주고, 그러고는 돌아다니면서 북한을 위해서 도와줬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거렁뱅이인 줄 아십니까?” 거기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꼭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 하나 던져주는 식으로 오히려 위세를 떨고 도와줬다고 하는 자기만 족에 빠지는 건 아닌가, 이게 정말 진정한 나눔인가, 나눔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과 같은 심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정말 동정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듯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이 하나 던지듯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화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됐습니다.

㊱ 90년대 나온 교황청 문헌 중에서 원조와 피원조의 관계를 설명한 글이 있어요. 그걸 민화위 활동하면서 인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어야 한다는 점이 거기에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고 할 때도 바로 그 입장, 지금 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입장이 전

제되어야지 올바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㉞ 민족의 화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를 동등한 입장에서 놓고 이야기했을 때 화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열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화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화해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진정한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바탕을 뒀서 신학적으로 화해에 대한 그 개념적 정립이 제대로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해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역사적, 철학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 민화위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민족화해학교의 수강 대상과 강사진 등 준비, 진행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㉟ 민화위는 초기부터 조금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원래 민족화해위원회가 상급 기구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본당 단위의 조직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본당 단위의 조직까지 확대할 때 본당 단위조직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신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했습니다. 때문에 본당 신부들의 추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왔고, 소식을 듣고 자진해서 온 분들도 있고 합니다. 민족화해위원회가 커리큘럼을 짤 때는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계시던 안병영 선생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민족화해학교 교무처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연세대 교무처장이 됐죠? (웃음) 그리고 교무처장을 하다가...

㊦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을 두 번 하셨고 부총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는 아직도 반공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북한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라고 하게 되면은 북한의 어떤 참상, 북한사회의 무슨 부조리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식의 강의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세웠던 것은 민족화해였습니다. 화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일반사회의 용어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화해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선생님 말씀대로 이것이 본당 차원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화해에 대한 복음적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북한에 대한 실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해서 커리큘럼을 짜고 강사진을 구성했는데 안병영 교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고 또 그분이 통일 관계, 북한 관계 전문가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사진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이었습니다. 그 강사들은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는 분, 민족통일과 화해에 대해서 제대로 강의하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 때문에 강의 내용이 참 좋았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비신자들도 알고 와서 강의를 듣고 이랬습니다.

수강 태도도 아주 좋아서 강의하러 나오셨던 강사들도 아주 큰 감명을 받고 일하셨습니다. 그 학교가 정말 계속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 강사로 나오셨고 강사로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또 조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신선한 이런 충격을

우리 사회에 주기도 했습니다.

❶ 하나 재미있는 건, 민족화해학교 초기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경실련 사람이 신자도 아닌데도 와서 1기 졸업생이 두 명인가 세 명 나왔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경실련에서도 민족화해아카데미를 만듭니다. 경실련의 아카데미는 꽤 오래 계속이 됐을 겁니다. 우리보다도 더 오래 계속했어요.

❷ 이렇게 민족화해라고 하는 용어가 일반화되는 데에도 민족화해학교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민화위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❸ 집필의 목적 내지는 방향을 평화에다가 두어야 할 겁니다. 평화와 화해. 지금은 당장 공식적으로 북한을 위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평화교육 내지는 화해의 교육에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교육, 화해 교육을 한다고 할 때, 단지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민족구성원이라고 할까? 이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현재할 수 있는 일 중에는 제일 중요할 겁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통해 화해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화 과정, 민족화해의 필요성, 그 이론화 과정은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중인 남북한의 화해, 평화 문제를 연구하는 데 앞장을 서는 것이 지금 현 입장에서 민화위가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입니다.

❹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최근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직되고 있죠. 남측의 지도자도 그렇고 북측의 지도자도 그렇고, 서로가 강경한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화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화위의 활동은 북한지역만을 대상으로 운동을 할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왜 우리가 민족화해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 대해서도 민족화해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예언자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화해 운동이 주춤하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 화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민화위가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또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북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단체들과 같이 협력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고, 서울대교구의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안에서 타 교구와 연대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화위는 그동안 많은 활동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시행착오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시행착오들을 수정하면서 쌓아온 경험들을 잘 분석하면, 그 안에서 여러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족화해로의 전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향하여

구술자 최창무 대주교

면담자 조한건 신부(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일시 및 장소 2024년 6월 26일, 담양 예수 마음의 집

1995년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창무 대주교 : 이름을 지어서 붙인 것으로 따지자면 그때 설립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주교회의에서는 늘 북한선교를 생각하고 있었고, 교회의 사명은 이 땅의 복음화니까, 이북도 복음화를 해야겠다 해서 처음에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선위가 조직되면서 주로 이산가족이나 이북 교구 출신 신자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동호 아빠스가 함흥교구장, 덕원교구장 서리여서 위원회 책임자를 오래 했었지요.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이 깨지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북대화의 가능성이 열렸고, 더욱이 1991년에 중국 수교가 이루어지고,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되는 즈음에는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통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전쟁의 기억보다는 민족의 화해라는 복음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활동은 못 하다가 1994년 제가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사목주교 대리라는 직책이 새로 생겨서, 노동사목, 빈민사목, 사회교정사목, 정의평화위원회, 사회복지사목,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총괄해서 교회의 대사회 사목 전

락을 책임지는 교구장 대리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신문 이윤자 기자가 김수환 추기경과 신년 특집 인터뷰를 하면서 1995년이 광복 50년, 분단 50년인데 우리 교회가 이 분단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서 방북에 대한 의사를 밝히셨어요. 저는 사회사목주교 대리니까 교구장님의 사목 지향을 따라 움직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2월에 함께 활동할 사람을 모아서 엠터를 했어요. 그 모임에서 교구장님 연두교서 내용대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서울교구 안에 하나의 조직을 만들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모여서 무슨 활동을 할 것이냐 했을 때 기도운동, 사랑의 나눔, 그리고 반공 교육을 뛰어넘어 이북의 실상을 알기 위한 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를 모았습니다. 북한선교라는 이름이 민족화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지요.

그때는 적십자를 통해서 남북 교류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김수환 추기경님 한번 오시라고 초대를 했어요. 제가 사회사목주교 대리로서 교구장님의 방북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필요성을 따져보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북에서 초대 팩스로 초청이 와서 답신도 팩스로 보내고 하면서 이북과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추기경님 방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해야겠으니, 우선은 기도운동을 시작하는 생각으로 이북의 동의를 얻어서 장충성당에서도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지요. 기도운동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을 이북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기도운동의 하이라이트는 미사니까, 3월 2일 화요 미사로 첫 미사를 지내자고, 추기경

님께 말씀드렸어요. “첫 미사만큼은 추기경님께서 미사 주례하셔야 합니다. 연두교서에서 말씀하신 실천적인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겁니다.” 했지요. 추기경님의 그 날 강론이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나눔 운동을 보자면, 당시 이북이 큰 수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십자를 통해서 대북지원을 하는데, 한마음한몸에 모금된 것을 민족화해위원회 이름으로 송금하고, 홍콩 카리타스를 통해서도 보내고,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야 뭐 당시에 별도의 예산이 없고 그냥 위원회 조직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사회사목교구장 대리라 한마음한몸에서도 책임자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교류와 연고가 있었던 오태순 신부가 한마음한몸 행정 책임자로 있어서 그런 관계 안에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민화위를 새로운 조직의 창립이라기보다는 개명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북한선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 화해와 일치가 더 적합한 표현인 것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교구 민화위가 효시가 되어서 주교회의도 자연스럽게 민족화해위원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주교니까 주교회의 민화위 활동도 하게 되고, 하는 일의 성격도 꽤러다임이 달라지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했겠지만, 연속선상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기획해서 전혀 없던 것을 새로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처음에 민화위와 한마음한몸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단체의 관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교구장님한테 위임을 받아서 한마음한몸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따로 자금도 없고 하니 한마음한몸 직원들을 그냥 쓰는 거죠. 한마음한몸의 오태순 신부와 의논했더니 그럼 직원을 더 추가 모집하라 하는데 나는 관리 안 하겠다 거절하고, 뭐 모금을 하려고 해도 이미 한마음한몸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계좌번호만 하나 따로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전화번호만 해방일인 0815로 별도로 만들어서, 아마 지금도 민족화해위원회 번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한마음한몸운동이 실질적으로 (민화위에서) 운영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금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모금할 때 표제를 무엇으로 하느냐, 광고시대니까 뭔가 확 와닿는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첫 포스터가 잔치국수를 표제로 했고요.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것일 뿐, 이 운동이 천주교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이지, 활동은 종교를 초월해서 한다고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계좌를 개설하자마자 후원이 폭주했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종교인연합회 같은 범종교계 조직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사회 사목 주교 대리가 만들어졌으니 최 주교가 대신 활동을 나가보

라 했어요. 제가 신학교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관련된 활동을 더러 했는데, 그 때부터는 사회사목 주교 대리로서, 천주교 대표로 종교인연합회 활동을 하게 된 거지요. 경실련 총무를 하던 서경석 목사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뭐 따로따로 하면서 같이 할 것은 같이 하자 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발족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 전부터 쪽 활동하던 송월주 스님 이런 분들 합류하시고 해서 이 단체가 하나의 새로운 운동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북지원 나눔 운동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발족부터 활동을 쪽 함께했지요. 당시 강냉이죽 현장 체험이라고 해서 VIP들 모시고 63빌딩에서 모금의 자리를 마련해서 ‘강냉이죽’을 한 그릇씩 대접했는데, 그날 모금액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화해위원회의 활동도 뭘 조직했다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기존 조직을 활용했기 때문에 한마음한몸과도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실제적인 사무는 한마음한몸이 하면서, 예산, 모금 계좌만 구별하는 거죠. 모금한 데서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거고요. 마치 KTX하고 SRT하고 선로를 공유하듯이. (웃음) 조직을 새롭게 꾸리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는 비용을 절감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을 늘리자 이런 취지에서 한마음한몸에서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일할 사람을 특채로 뽑고, 소속과 직원 관리는 한마음한몸에서 하는 식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두 조직 다 책임자가 나니까. 그게 수월했었죠.

통일사목위원회와 민족화해위원회가 1998년에 통합됩니다. 두 단체의 지향점이 같아서 통합이 된 것이지요?

아니요. 주교회의에서 뭔가 조직이 만들어지면 각 교구가 산하단체로서 같은 이름의 조직을 만듭니다. 당시 시대가 통일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통일사목이 언급됩니다. 그때는 금방 통일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북 교회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하는 맥락에서 통일사목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통일사목위가 별도의 조직으로 민화위의 유관 단체로 설정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효율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이북 방문까지 가능하게 된 해입니다. 1998년도 5월. 처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팩스를 교환하고 해서 처음에 상대방과 어디서 만날 것인가 의논했더니 중국 어쩌냐 말이 나왔다가, 중국보다 미국을 선호해서 첫 만남을 포트리(Fort Lee)에서 하기로 했죠. 그때는 이북이 조금은 개방됐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이북을 조금 더 자유롭게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박창득 신부가 제 동기동창입니다. 대전교구 소속으로 군종을 하고 로마에서 유학한 다음에 교포 사목 발령을 받아서 뉴어크(Newark) 교구, 거기에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교포 본당들이 있었고, 주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북한 출신들도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총무로 해서 북한을 위한 후원회나 나눔운동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을 하기에 미국 어디가 적합하냐 물어봤더니 포트리에 있는 호텔을 알려줘서, 그렇게 만남의 준비가 이제 시작된 것이예요.

그랬는데 1996년도에 이북이 동해안 쪽에 6척이나 잠수함을 보냈어요. 그

러니까 민화위 활동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것 보라고, 이북하고 무슨 대화냐, 헛일하지 말라고들 했어요.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공멸한다.”라고 했지요. 호사다마라고 그런 역풍도 불었지만 계속 꾸준히 팩스가 왔다 갔다 해서 소통하고 만남이 성사되고, 그 뒤에 중국에서 또 만나고 해서 세 번 만나고, 제4차 만남이 이북에서 이루어진 것이 1998년도입니다. 이렇게 계속 소식 나눔과 함께 교류협력의 나눔이 있었죠. 결국, 통합된다는 것도 효율을 위해서 같은 정신을 가진 산하단체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족화해학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목표와 실제 운영 후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방법도 우리가 바뀌야 한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추진했는데, 남북문제에 문외한인 저로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들 통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통일이 함축하고 있는 배경이랄까, 추진할 힘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에서도 보면 오랫동안 정치, 사회, 종교가 각기 통일의 방향을 함께 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 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교육이 꼭 필요하다, 정부의 일방적 반공교육만 가지고는 반쪽 교육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평신도 정치학 교수로 안병영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빈에서 공부하고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라는 책도 쓰셨죠. 그분한테 제가 저녁 한번 사면서 좀 도와주십사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기꺼이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강사를

섭외했습니다. 극좌와 극우는 피하고 사회의 명망 있는 전문가를 초대하자 했는데 다행히 섭외 과정에서 한 분도 거절을 안 했어요. 정부 측에서는 외무부장관, 통일부 장관 등 경력이 있는 분들²이 오시는데, 다행히 거의 천주교 신자였고, 다음에 사회에서 비판적인 소위 좌파 계열의 교수들도 오는데 이분들은 신자 아닌 분들도 있고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경향잡지』 50주년 기념행사인가 그때 초대했던 어떤 분이 신자는 아닌데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요. 정 아무개라는 분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노는데, 맨발로 뛰어다닐 그런 시절이니까요. 날이 더우니까 밖에서 놀다가 성당에 맨발로 들어갔겠죠. 유리같이 깨끗이 청소한 마룻바닥에 발자국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이때 수녀님이 이 마귀 새끼들 하면서 쫓아내서 너무 혼났고, 수녀님 입에서 ‘마귀 새끼’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때부터 아예 천주교를 경원시 했다고. (웃음)

그분의 비판적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민족화해학교 강사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강의할 차례가 되어서, 언제쯤 오시는가 기다리는데 이미 명동 마당에 와 계시더라고요. 언제 오셨냐 여쭙니 “명동대성당 땅을 밟는 게 너무 어려워서 두 시간 전에 와서 분위기 파악 삼아 배회를 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부끄럽고 또 대견했던지. 그것도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화해가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 적

2 각기 외무 본부 대사이자 제21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강영훈,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역임한 김덕을 의미한다.

도 있어요.

초대할 때 강사비를 많이는 못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원고료나 강사로 액수가 크게 상관없는 분들이지만, 기꺼이 해주셨어요. 모두가 은혜로웠습니다. 민족화해학교를 하고, 그전에 참생명학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교리학교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회사목을 위해서 세 가지 학교에 심혈을 기울였지요.

민족화해학교가 199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해 4월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교육의 대상으로 어떤 분들을 고려하셨는지요?

그랬어요? 제 기억에 총 62학점이고 거의 한 주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강의 원고를 묶어서 민족화해학교 교재로 쓰려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족화해학교에 대한 취지문대로 누구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뭔가 지식을 넓히고자 생각하는 분은 다 초대하고, 그 대신 우리는 극좌와 극우는 배격한다. 중도좌파, 중도우파는 다 좋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뭐 신자들도 오셨겠지만, 또 신앙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 아닌 사람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는 대북지원사업에 있어서 종교계의 연합 활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협의체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각자 사업을 하되 협력하는 것으로, 민화위는 민화위의 독립적 사업이 있고, 그때 같이 활동한 개신교 계열이나 불교 분들 즉 목사님들과 스님들과 함께했습니다. 대북지원사업에 있어서 개신교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실무팀에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도 각기 종단과 이름 그대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취지에 동참한 사람이 많았고, 그 나름대로 공식적 모금운동을 하는데, 우리도 같이하기는 했지요. 거리 모금운동을 한다 치면 천주교는 천주교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거리 모금보다는 계좌를 통한 홍보와 모금을 많이 했지만요. 그다음에 적십자를 통해서 보냈고, 유진벨재단도 개신교 재단이지만 여기 통해서도 했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하지만, 또 각자의 고유한 활동은 독립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교구 민화위의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한마음한몸을 빌려서 했지요. 별도의 조직이 없었습니다. 모금도 한마음한몸을 통해서도 하고 민화위에서도 하고, 민족화해미사 때 헌금, 그밖에 개인적인 후원금 이 모든 것이 천주교의 이름으로 지원이 됐지요. 나중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지만, 처음에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보내는데,

홍콩 카리타스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서울대교구의 이름으로 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번거롭게 홍콩을 통하지 말자 하고 이북에서도 이에 대해 동의를 해서 우리가 직접 서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정치적인 분위기도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북지원사업은 정치적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대북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한국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강인덕 통일부 장관은 저와는 구면이어서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협조하자고 했고, 대화가 잘 났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반공교육 좀 그만 시키고 북한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게 해달라. 사람들이 물들까 봐 걱정할 것 없다. 우리 국민을 믿어라.”, 전에는 외국 가려면 특별 반공교육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 건 국민을 괴롭히는 거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교육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시간 낭비, 경비 낭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후로도 방북하게 되면 통일부에 가기 전에 보고하고, 만난 뒤에는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가 아는 정보 교환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황청 대사에게도 활동 보고를 하고요. 교회의 힘은 그런 개방성에 있으므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통일부 장관이 되든지, 통일부 장관이라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더라도 만남은 있어야 하니까, 저는 기꺼이 만났어요.

1998년 5월 처음 북한 땅을 밟으셨을 때의 감회를 들려주세요. 북한의 신자들을 만났던 경험도 궁금합니다. 혹시 옛 신자들도 있었는지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선입견이 되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식을 더 쌓아가게 되면 인식 능력, 즉 그릇이 넓어져서 답을 수 있는 여유가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 기준으로 해서 진짜 신자냐 아니냐 구분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진짜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냥 주일날 성당 오는 것 가지고? 아니잖아요. 그 북한체제 안에서 본인이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을 무슨 근거로 의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견진성사까지 달리는 거예요. 일본 주교가 와서 세례 주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법을 지켜야 하니 세례 문서를 보여달라. 세례 문서를 근거해서 견진을 준다.” 했더니 안 보여주더라고요. 방북 마지막 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접촉 승인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북 사람 접촉을 사전 승인 없이 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거기라고 안 그러겠어요? 나는 순진하게 약속 안 지킨다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신자들이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원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을 우리 식대로 기준을 잡아서 매주 미사 가는지 그럴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 체크해요. 진짜 가짜 따지지 말고 상호 신뢰와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근거 없는 신자들은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부모가 신자였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올 거예요. 신자냐 아니냐를 세례 문서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 말이에요. 더구나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근거로 참 신자냐 가

짜 신자나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북 신자들이 성가를 참 잘하는데, 약간 군가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어떻게 이렇게 성가대가 조직됐어요?”라고 물었더니, “음악 선생님들이 있어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거기도 우리 성가책, 기도서 다 사용합니다.

북한을 처음 갔을 때 순안비행장에 도착했어요. 원래 기차로 가기로 했는데, 출발 전날 팩스가 와서는 비행기로 오라는 거예요. 떠돌이 상태로 서로 팩스만 교환하며 일주일을 소모했습니다. 실망하여 북경으로 가서 중국 애국회 주교들을 만났더니 하는 말이 “비행기로 가나 기차로 가나 목적은 북한 가는 것이 문제지 길은 상관없지 않습니까?”였습니다. 그때 내가 아차 하고 한 수 배웠지요. 대련에 가서 일정 조율을 다시 하고, 중국 비자가 문제였는데, 평양에 가서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될 거라 믿고, 당시에 오테순 신부하고 이기현 신부가 (먼저 들어가면서) “우리는 비행기로 이북 갑니다.”하고 팩스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그만두면 내가 두 신부만 사지에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랴부랴 쫓아갔죠. 순안공항에서 만났을 때 오테순 신부가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는 “하나의 제비가 봄을 가져오진 않지만 봄의 소식을 가져온다.”라는 생각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북에 체류하는 동안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했으며, 밤 10시에 중국 국경에 있는 한국 신부와 안부 교환을 했습니다. 국제전화는 남한을 빼고는 어디에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정은 이북에서 거의 강제로, 전문가 안내받아 가면서 다 소화를 했어요. 그래도 외국인 방문객 대우로 꽤 자유롭게 잘 지냈습니다. 개인 집을 방문하거나 탁아소 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보여 주기용으로 하

는 곳이 있었지만, 사진은 자유로 찍으라고 해서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날 아침 한 사람이 필름을 다 거두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허락받고 찍었는데 왜 압수하려고 하느냐 하고 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더니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출국 절차를 마치고 나왔을 때 보안대 밖에서 필름을 모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다행히 많이 남았지요. 분위기도 상당히 신사적이고 부드럽고,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는 것도 자유로웠습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나는 더구나 추기경 대신해서 간 사람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대해주고 그랬지요.

김수환 추기경 방북 계획을 위해 북한과 조율해야 하는 조건들이 무엇이였을까요?

방문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녜요. 저쪽이랑 합의도 해야 하고, 사목 방문 외에는 안 되는 데다가 프로토콜(protocol, 외교 의례)상 현지 교회의 초대장이 있어야 해요. 평양교구 서리이시지만 이북에 비자를 받아 가야 하고, 또 사목 방문이 목적인데 신자들을 자유로이 만날 보장이 없다면 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관이 관계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부 영사과에서 그 일을 준비해야 하겠지요. 추기경님은 기록상 바티칸 시국 시민이니까 그쪽에서 사전 조율이 되어야 할 겁니다. 결국, 추기경님이 안 가신 것은 사목을 위한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서인 거죠. 그냥 관광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대리로 간 것으로 성공했다고 봅니다. 어떻든 사목 방문이 공식적으로 된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인데, 한국천주교회와 민족 화해위원회가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화위의 세 가지 목적 중에 가장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운동이고요. 두 번째가 나눔 운동인데, 지금은 계속 모금해야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눠야 하니까요. 계속 노크를 해서, 창문을 열어주면 창문으로 가면 되고, 대문을 열어주면 대문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교육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남북의 화해와 일치된 성숙에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제 통일이 이야기가 주제로 올라오지도 않잖아요? 우리 민족화해위원회는 화해와 일치의 정신을 늘 고취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화위 30년이라는데, 분단은 80년이 다 되어가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요. 이북을 선교 대상이나 회개 대상으로만 보던 데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사람들, 함께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물질적 도움도 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이웃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 용의가 있었는지 반성하는 그런 운동 같은 것을 계속해야 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은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쟁이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거든요. 강대국의 움직임의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보세요. 강대국들 놀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돼요. 한반도에서 그런 국지전을 한다고 하면, 이북이 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상대방이 없어져야 내가 산다는 그런 생각은 정말 눈먼 생각이예요. 함께 살아야

하고 공존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전쟁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998년 방북의 역사적 의미

구술자 이기현 주교

면담자 이민석

일시 및 장소 2024년 8월 6일, 의정부교구 양주2동성당 주교관

주교님께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통일사목위원회 위원으로 북한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주교님의 통일사목 초기 활동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기현 주교 : 민족화해위원회가 1995년 3월 1일 설립이 됐잖아요. 1995년도에 민족화해위원회가 설립되는 배경에는, 그해 신년 인터뷰를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평화방송과 하셨는데, 그때 당신의 포부를 밝히셨어요. “금년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니까, 이제는 제2의 광복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겠다. 광복은 남과 북의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여러 가지로 통일 준비를 많이 해야 하겠다.” 하고 이야기하셨고, 당신께서도 방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정말 통일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육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화위가 생겼다고 볼 수 있으니까, 민화위의 발족 근거는 신년 인터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신의 포부를 말씀하셨고, 교구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민족화해위원회죠.

통일사목위원회 활동과 민족화해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통일사목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봤더니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통일사목위원회가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했어요. ‘통일사목위원회’ 간판을 마련했는데 그때 추기경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은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이와 함께 통일을 대비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라면서 “통일사목위원회가 이런 뜻을 모아서 사목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당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족화해위원회가 설립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족화해위원회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통일사목위원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통일사목을 준비하는 토대에 대해서 인터뷰했었는데,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이 교회의 생각이었죠.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통일이 임박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에 대비한 사목적 배려와 기획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문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단 이전의 북한교회 상황을 파악하고, 그 후에 현재 북한교회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북한에 교회를 건설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다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지도를 놓고 옛날에 있던 교회를 짚어가면서 자매결연을 하여 재정적인 준비도 하고, 또 관심도 가지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다고 생각했고 북한에서 선교할 수 있는 사제들을 양성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아마 우리 최창무 대주교님이 오셔서 대신학교에서 첫 모임을 가졌어요. 부모님들이 북한 출신이든지 아니면 북한에 관심이 많은 신

부들을 모아서 모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제 양성이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지향을 했었죠.

주교님께서 “개신교는 통일 이후에 북한에 1,200개의 교회를 세울 준비를 완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미진한 상황이다.”라고도 말씀 하셨습니다. 그 당시 천주교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어떠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북한교회에 구체적으로 관심 가지게 된 것은, 교황님이 1984년도에 방한하셨을 때,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북한선교부를 만들었는데 그 계기로 주교회의 산하에도 북한선교부를 설치하였고 후에는 북한선교위원회로 바뀌었죠. 좀 늦었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활발하게 된 계기는 서울교구에서 민족화해위원회가 생기고 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교회의 차원에서도 북한선교부가 있었지만, 남북문제는 범민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교구 차원, 전 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위원회로 승격하게 된 거죠.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활동과 계획들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998년 민족화해위원회와 통일사목위원회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공식 통합됩니다. 두 위원회가 합쳐져서 어떤

이기현 베드로 주교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통일사목위원회 위원,
1998년에서 1999년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을 역임하였다.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통일사목위원회와 민족화해위원회가 통합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향점이 더 폭넓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위원회가 통합된 이후 1998년 5월 최초의 사목적 방북이 성사되었습니다. 방북 준비 상황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경에서 몇 차례 준비모임을 하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어요. 실질적으로 뭘 준비해오면 좋겠는지, 어떤 일정으로 하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담당, 지원 담당 등 파트를 나누었죠. 저는 북한에 가서 전례를 담당하면서 선교담당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하고는 구체적으로 일정이라든지 또 어디를 방문한다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려움 없이 서로 이야기가 잘 됐고, 우리가 나눴던 대로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당시 김수환 추기경님이 방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남쪽교회에서 굉장히 원했지만, 북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추기경님이라는 지위가 쉽게 방북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서는 아주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셨죠. 의사도 표현했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북쪽에서도 더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시 오태순 신부님과 이기현 주교님은 사전 준비를 위해 평양에 먼저 들어가셨는데 그때 상황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전 준비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일이 묘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일행은 일곱 명이었고,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북경에서 북쪽과 연락하면서 일이 잘 안되어 여러 군데 옮겨 다녔어요. 팩스로 서로 연락하면서 오라는 응답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단동에 가게 되었어요. 단동에서 가는 방법은 열차밖에 없으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열차로 와도 좋다고 이야기해서 갔었는데, 표를 다 구한 후 가겠다고 팩스를 보냈더니 북에서는 열차로 들어오면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니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북은 고난의 행군 시기였기 때문에 열차로 가면 상황을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우리 일행은 북한방문을 완전히 포기하고 귀국했어요. 그런데 오태순 신부하고 나는 중국에 남아서 탈북자 현황을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북경에서 한국계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 말이 북한 비자를 받기 얼마나 힘든데, 비자를

받았으면 어떻게든 북한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표를 사서 무작정 들어간 거예요. 북한의 우리 파트너인 천주교협의회 쪽에 ‘우리 몇 시 비행기 타고 들어가니까 순안비행장으로 마중 나오면 좋겠다.’라고 북한에 팩스를 보내고 무작정 들어간 거지요. 모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하러 들어간 건 아니에요. 들어간 다음에 북한 측에서 북경에 있는 맹제영 신부에게 연락해 귀국한 최창무 주교님을 비롯한 나머지 일행들이 모두 북한에 들어오도록 연락하게 해서 나흘 후에 오셨죠.

방북 에피소드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충성당에서 미사 드린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성당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진짜 신자들도 몇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영성제할 때 요즘 다들 손으로 영성제하는데, 혀로 한다든지, 분위기가 아주 달라 오래된 신자임을 느꼈습니다. 북한 임원 중에 한 사람은, 금강산에 갔었을 적에 열심히 신자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산길을 다녔습니다. 그분이 오래된 신자인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내가 옛날 성가들을 부르고, 라틴어 성가도 불렀더니 따라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성가를 잘 부르더라구요. 내가 느낀 대로 그분은 오래된 신자였어요. 어렸을 적 할머니한테 배웠다 하더라고요.

1998년 5월 사목 방문의 의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북이었죠. 서울대교구 보좌주교가 교구장을 대신해 사목 방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고, 일정은 짧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북한의 실상, 이들의 생각, 특히 북한교회를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북한교회는 인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동원된 신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신자들도 있고, 또 여러 차례 학습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교회는 신앙, 전례 사목 등 모든 면에서 성숙하지 못했지만, 남쪽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로 성장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 신자들이 많이 변화될 수 있겠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북한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큰 수확이었지요. 북한은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은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교류를 계속한다면 북쪽 교회도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방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교님께서 그해 12월에도 방북을 하셨어요. 식량 분배 모니터링도 하시고, 의료지원 가능성을 타진하셨는데, 의료지원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12월 방북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세 팀으로 나눠서 준비했어요. 내가 갔던

팀은 의료지원팀이었고, 또 한 팀은 젓소 팀, 또 한 팀은 아마 옥수수 팀 같은데, 세 팀이 방북신청을 했는데 두 팀은 안 되고, 의료지원팀인 우리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팀만 세 사람이 갔는데, 저를 비롯해 이성만 신부, 샬트르 성 바오로회의 김기순 수녀였습니다. 이번에는 순수하게 업무적인 방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링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보낸 식량이 잘 전달됐고, 또 북한 사람들에게 배급됐는지 확인하는 일이었고, 우리가 모니터링하러 간 곳이 진남포에 있는 식량 창고였어요. 식량 창고에서 식량이 쌓여 있는가 확인했죠. 밀가루 포대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쓰여있는 걸 확인했어요. 북한 인민들에게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또 한 군데는 대동강 인민병원을 방문했죠. 침대 수가 한 5백 개 되는 병원이었는데, 그중에서 결핵 환자를 위한 침대가 50개였어요. 약국에 가보니 약이 정말 없어요. 그리고 의료기구들도 정말 낡았어요. 6·25 이후 부모 없는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된 육아원도 방문했어요. 그 후로 중앙 가톨릭의료를 통해 조금씩 의료지원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지원팀의 방북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역 사목 희망 사제 양성의 계기와 성과는 무엇일까요?

계기는 당연히 통일 이후를 대비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교회의 재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제였어요. 교회도 재건하지만 사제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게 이어져서 아마 평양교구 사제 양성이 이루어졌죠. 사제들 모임도 있었지만, 신학생들 모임도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북한사목, 장래에 북한사목을 희망하는 사람들, 아마 한 열댓 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절반 이상은 다 의정부로 왔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서품받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교회 선교 사제, 희망 사제들을 양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하게 됐죠.

신자들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서울 민화위를 비롯한 각 교구 민화위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속 시원하게 좋은 의견을 말해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좀 암담한 것 같아요. 남북관계를 비롯한 또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지금이 제일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많은 사람이 무관심해졌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절망하며 열기가 식어 무관심해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을 새롭게 갖는 일입니다. 사목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부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민화위 역할이어야 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가 중요합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른 신자들을 위해 평화

교재를 만들어서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이 없는 현재 상황 속에서 민족화해위원회가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도적인 지원이나 북한과의 교류들은 뭔가 세월이 좋으면, 정치적인 분위기가 좋으면 활발하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작년인가 남북 화해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교회 역할에 대해서 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안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남남갈등 문제인데,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이 아닐까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평신도사도 직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심포지엄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교류나, 만남이나, 또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심포지엄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본당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대화 나누기의 시작은 독일로 알고 있어요. 독일의 경우 튀르키예에서 온 이주민들과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대화 나누는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특히 남성 구역모임은 정치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서로 갈등이 생기고, 깨진다는 이야기를 지구장 신부들을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갈

등 해소를 위해 우리 교회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모임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 교회가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를 하고 있잖아요. 시노달리타스 또한 어떤 의미에서 생각이 다른 것들을 조정해나가고, 결론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도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통한 북한교회와의 관계 맺기

구술자 정광웅 신부
면담자 이민석
일시 및 장소 2024년 6월 19일, 강일동성당

신부님께서 민족화해위원회에 참여하신 계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광웅 신부 : 민화위 전담을 한 것은 아니었고, 본당 사목과 겸임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는 흑석동, 그다음에는 1998년까지 명일동 성당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북선위 총무를 한 4~5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본당 사목을 하던 1999년 12월에 당시 위원장 강우일 주교가 불러서 북선위 총무와 민화위 본부장 중 하나를 맡으라 하셔서 북선위는 해봤으니 민화위를 순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교구에서 보좌신부를 하나 주셔서 겸임하는 것이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북한선교나 대북지원을 위해 북한 간다고 하면 본당 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북선위가 민화위의 전사로서도 의미가 있는데, 두 단체 활동에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요?

북선위 활동할 때는 아직 북한과 교류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던 때였어요. 그러다 90년대 초반에 민족의 화해

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만들자 해서 제가 그 일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작성한 기도문 초안이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후에 보니까 다른 분이 약간 고치셨더라고요. 제가 ‘반쪽만의 교회가 전체인 양 자처하면서 살아온 무관심을 깨닫게 해주소서’라고 했는데, 반쪽만의 교회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해주소서’ 하고 표현이 완화되었지요.

그러니까 북선위는 북한을 직접 가지 못했고, 90년대 후반에 북한 홍수로 인해 민화위에서는 북한을 직접 갈 수 있었죠. 그게 큰 차이 같습니다. 북선위는 이동호 아빠스께서 여러 본당을 순회하면서 미사하고 강론하면서 회원을 모집했는데, 그러니까 북선위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지요.

민화위의 교육 활동이던 ‘민족화해학교’가 신부님이 본부장 역임하실 무렵 중단이 됐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들려주세요.

민족화해학교의 목적은 화해 의식을 확산시키고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지요. 제가 직접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기록을 찾아보니 제가 2001년도 민족화해학교 수료 미사 때 강론을 한 적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2001년까지는 지속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다면, 교육 대상자가 부족했던 것을 들 수 있겠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많이들 참여했지만, 차츰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참석자가 각 본당에서 대표로 오다 보니, 웬만큼 교육받을 사람은 다 받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업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이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뭔가

역할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못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모두 북한을 다녀올 수도 없고. 한번 자문위원들 한 여덟에서 열 명 정도 북한에 데려간 적은 있었는데, 계속 그럴 수도 없는 거고 하다 보니 북한 현장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주교회의 민화위 후원회원이 서울대교구 민화위로 이관되면서 2000년에는 후원회원 관리를 위한 전담 직원도 고용하게 됩니다. 후원회원 모집 활동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호 아빠스가 북선위 위원장 하실 때 전국적으로 본당을 순회하면서 후원회원 모집을 했어요. 1,800명이 민화위로 이관됐지요. 직원은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보내기도 하고 꾸준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후원회원은 아마 대개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후원회원 추가 모집 활동을 하진 않았고요. 대신 제가 건의를 해서 보통 6월 25일을 전후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2차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교구장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교구 전체가 다 참여하지는 않지만 한 1/3 정도, 일부 본당에서 참여해서 2차 헌금을 교구로 보내주고, 그것을 민화위에서 받아서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것으로 대북지원사업에 충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기존 회원분들의 후원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계실 때 대북지원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북지원사업의 과정과 의미에 관해 들려주세요.

먼저 말씀드릴 것이 90년대 후반에 김수환 추기경이 종단 회의³ 석상에서 옥수수 1만 톤을 보내겠다고 약정을 하셨어요. 그걸 이기현 신부가 본부장으로 있을 때 한 5천 톤 정도는 보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맡아서. 그런데 당시 한꺼번에 5천 톤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1천 톤을 보내는 데만 15만 불이 들었어요. 제가 장춘 갔을 때 직접 본 건데 어떤 식으로 하나면 장춘에 가면 옥수수밭이 많이 있는데 창고 하나를 헐어서 탈곡하고 50kg 포대에 넣습니다. 그걸 다 모으면 기차 화물칸으로 16대 분량 정도가 돼요. 그걸 단동으로 보내고 단동에서 다시 신의주로 보냅니다. 그렇게 2천 톤씩 나눠서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농업용 비닐 요청해서 보내준 적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국수공장이지요. 국수공장은 먼저 미국에서 거주 중인 박창득 몬시뇰이 저한테 찾아와서 본인이 만든 평양 옥류 국수공장으로 밀가루 보내기가 힘들어서 “서울교구에서 좀 보내주시요.”라고 요청하면서 사업이 시작됐어요. 이후에 제가 기술자를 동행해서 남포 대보산리랑 황해남도 신천에도 국수공장을 만들어주었어요. 지역의 노약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기계는 인천에서 배로 남포까지 보내고, 기술자도 보내서 설치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겠다, 비자를 보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

3 김수환 추기경이 옥수수 1만 톤을 보내겠다고 약정한 것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옥수수 보내기 운동을 위한 옥수수죽 먹기 행사 석상이었다. 다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여러 종단 연합의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출범한 단체였고, 최창무 주교 등 민화위 관계자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었다. 구술자의 종단 회의란 표현은 종교단체 연합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회의 석상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정광웅 요셉 신부는
1990년부터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총무로
활동했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을
역임하였다.



조. 그래서 북한에서 연락이 오면 북경 북한 영사관 가서 비자를 받고 고려항공 비행기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러 다니는데, 그 결과가 시원치는 않아요.

한번은 원산에 옥수수 5백 톤을 보내 달라고 해서 거기 베네딕도 수도원이 있었고 덕원신학교가 있었으니까 거기 한번 가 보고 싶어서 원산 갑시다. 그랬더니 “신부님 거기 길도 나쁘고 위험하니까 못 갑니다.” 해서 원산을 못 가 봤어요. 아직 신학교랑 수도원 자리 건물들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매달 2개월에 한 번씩 세 군데에 밀가루 3백 톤을 보냈어요. 인천에서 남포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됐는지는 모르겠고요.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면 군수 물자로 빠진다는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는 처음에 쌀이나 밀가루가 아니고 옥수수를 보냈잖아요. 옥수수는 북한 서민들이 먹을 수 있고, 옥수수도 품질 차이가 있는데, 사료용 이런 것이 가지 않도록 양질의 옥수수를 보내고 그랬지요. 들은 이야기로 어느 집에 가서 “식구가 몇이요?” 하면 “다섯 식입니다. 그런데

먹는 데에는 두 식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왜 그러니까?” 물으면 “들은 군대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은 군대에서라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쌀 같은 것을 보내면 그 군수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의심도 있지만 옥수수니까.

그리고 밀가루는, 밀가루도 싸지 않아요. 300톤 보내는데 6,750만 원 정도 들어요. 듣기로는 황해남도 신천, 남포 대보산리에 있는 노약자, 어린이 먹으라고 주는 건데, 확실히 모니터링되진 않았죠. 뭐 분배했다고 기록은 하지만 그 실상을 우리는 모르죠.

북한에 처음에는 물자를 지원하다가 공장 지어달라고 해서 밀가루 공장도 만들고 기름 공장도 만들고, 또 공장을 만들어 주면 원료는 북한에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원료 지원도 해달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기름 공장 그것은 조금 나중 일입니다. 뭐 또 의료 물품 지원도 해달라고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밀가루는 매달 혹은 2개월마다 보냈지요. 거기에 밀가루가 어딴겠어요? 없잖아요. 거기는 요구를 많이 해요. 해달라는 게 많아요. 제가 장재언 위원장한테 항상 이것은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은 못 한다 딱 구분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방북의 일반적 절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반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물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연락하지요. 모니

터링을 하러 가겠다, 그러면 북한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초대합니다. 언제 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북경에 가서 영사관 가면 비자는 이미 다 내려와 있어요. 가서 받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고려항공 비행기로 북한, 평양으로 가지요.

신부님이 대북지원하실 때는 남북관계가 괜찮던 시기라, 자주 가실 수도 있고, 절차도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괜찮았어요. 뭐 연락했을 때 지금은 안 된다,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쉽게 다녀온 편이었지요.

신부님은 방북경험이 많으신데, 방북경험담을 들려주세요. 기록을 살펴보면 매해 두세 번씩 방북하신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네요. 한 열 번 정도 간 느낌이에요. 뭐 이제 장재언 위원장이나 그 밖에 조선카톨릭교협회 간부들이 북한에서 나오고 싶어지면 한 번씩 민화위 사무실로 연락을 합니다. 답답하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한번 나오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대련에서 만난 적이 한 번 있고, 북경에서 만나서 여순(뤼순)까지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거기 안중근 의사 간헐던 지역. 그런 게 한두 번 정도 되고, 북한에도 매해 한두 번은 갔었고.

경험담이라고 하면 평양 주체탑에 올라가니까 내가 살던 곳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평양교구 소속이었죠. 평양교구 소속 사제가 신학생 때 한 스무 분 정도 계셨는데, 선배들이 좀 있고, 소신학교 동기로 한정관 신부라

고 군 면제를 받아서 사제서품은 저보다 한 3년 빨랐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 있고, 임상무 신부하고 막내로 이기현 주교가 있었지요. 평양교구 소속이, 그 다음에는 끊겼어요.

뭐 그래서 주체탑에 딱 올라가니까 살던 집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데, 물론 그 집은 없어졌고, 그 앞에 원래 평양 사범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간 조선카톨릭교협회 간부들한테 저게 평양 사범학교였는데 지금은 뭐가 물으니 김철주 사범대학으로 바뀌었대요. 김철주는 김일성 사촌인가 뭐 그렇대. 거기까지는 올라갔어도 가보자는 소리는 못 하고, 해봐야 어차피 못 가니까.

한번은 평원군 옥수수 분배 모니터링 갔다 나오던 길에 한정관 신부가 그때 북선위 총무로 있으면서, 나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한 일곱 살쯤? 그 어릴 때 기억이 났대요. 로터리가 있는 데서 왼쪽으로 가면 할아버지 과수원이 있었는데 하고, 그래서 “저기 왼쪽에 들렀다 가자, 할아버지 과수원이 있었다.” 했더니 “아이 신부님 다음에 가시죠.”하고 그냥 지나친 적이 있대요. 가자고 그래봤자 안 가니까. 그래서 그냥 주체탑에 올라가서 보기만 했지, 집이 있던 근처는 알겠더라고요.

관후리 성당 쪽도 가봤죠. 지금은 소년궁전이 있어요. 당시에 김득권 신부, 그분도 평양교구예요. 그래서 모시고 한번 북한 간 적이 있는데 김득권 신부랑 황인국 문시놀이 한 중학생쯤 됐을 때, 관후리 성당 기초 공사를 해서 거기 가서 벽돌도 나르고 하던 기억이 났나 봐요. 관후리 성당을 기초 공사만 하다 끝내서 다 짓지는 못했거든. 거기 가보자 해도 북한에서는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겨우 설득해서 공사하던 자리를 한번 확인을 하고 왔다고.

방북 당시 봉헌했던 미사에 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미사는 갔을 때 매번 했죠. 장충성당에서. 거기 가면 많을 때는 170명, 적으면 130명 정도. 그리고 일곱 번씩 일흔 번 용서해주라는 성경 구절로 용서와 화해에 대해 강론을 하기도 하고, 평화의 인사도 나누고. 인사 나눌 때 내가 직접 내려가서 악수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60대 후반, 70대 이런 분이 “아 신부님 잘 오셨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아 이 양반은 어렸을 때 신자였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고, 그 외에는 제가 신자들과 이야기도 못 해요. 미사 끝나고 성당 앞에 나와서 단체 사진 찍고 바로 가요. 뭐 말로는 개신교 신자도 동원하고 천주교 신자도 동원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나는 모르겠고, 뭐 동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악수하면서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신자였겠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는 정진석 추기경이 미사는 못하게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민화위 활동 끝난 다음에. 저는 매번 미사 했어요. 가서 그 북한교회 신자분들은 평소에 성사도 못 보니까, 30분쯤 전에 가서 장재언 위원장 보고 “야 이거 고해성사 좀 해보자.”해도 허가를 안 해줘요. 옛날에 장익 주교가 처음 교황청 통해서 북한에 갔을 때는 성사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고해성사하자.” 그랬더니 안 해줘요. 그래서 미사 전에 간단하게 참회 예절을 시키고, 그러면 다 영성체하러 나오거든요. 성체 영해주고, 나중에는 정진석 추기경이 교구장 된 다음에는 그거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저 때는 했고요. 차성근 울리오라고 이 사람이 전교 회장이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말하자면 대세지만, 세례를 주었다고 그래요. 뭐 죽을 때도 그렇고. 뭐 그런 식이었겠지. 또 거기 교리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이었는데, 성가책

은 우리 것 갖다 줘서 다 함께 보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 당시 북한사회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형편없었어요. 가는 길에 농촌이 있는데 작업하는 사람도 별로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트럭이 있어요. 아침에 보면 트럭 타고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트럭도 고물이고. 한번은 도로 공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도로 공사를 순 곡괭이라든지 삽으로 해요. 그 당시에 도 변변한 도로 공사용 기계가 없어요. 그런데 도로 자체는 아주 잘 해놨어요. 언젠가 황해남도 신천에 갔다가 오는데, 거기가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나서 통행을 못하게 하는데 간부들은 갈 수 있더라고? 비포장인데 차가 흔들리지 않아요. 먼지는 좀 나지만. 그래서 평양까지 빨리 들어올 수 있고, 검문소에서도 강지영 서기장이 내려서 한마디 하면 바로 탁 통과되고.

모니터링은 보통 어떻게 하셨나요?

그건 이제 뭐, 평원군에게 식량 500톤을 보냈다 그러면 가서 보는 거예요. 포대가 쌓인 것도 보고, 분배해서 빈 포맷자루도 보고. 포대에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못 썼는데 나중에는 서울교구 민화위 이렇게 하고, 받는 데는 조선카톨릭교회 이렇게 썼어요. 아무튼, 빈 포대를 통해서 분배는 됐구나 하고 확인하고, 국수공장 가서 가동되는 거 보고, 근데 국수가 분배되는 것까지는 확인하진 못하고. 국수공장은 노약자들을 위한 건데, 뭐 실제로 분배는 그렇지 않

았을 수도 있겠죠.

대북지원 시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국수공장 만들어줬고, 옥수수 보내는 것도 약속했으니까 계속했고, 그다음에 농업용 비닐 보내 달라 그래서 보내줬고. 그랬지요.

민화위의 지원이 평양과 황해도 근처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랬지요. 원산에 보내려고 해도 안 보내니까요. 뭐 사실 물자 받아서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자기들이 보내고 싶은데 보냈을 수도 있다고 짐작해요. 교통 편한 데로 보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원산에는 못 보낸다는데 어떻게 해요. 공장을 짓는 것까지는 당시에는 좀 일렸고, 국수공장 운영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제가 그만두고 나서 얼마나 지속됐는지까지는 모르겠네요. 나중에는 뭐 영양제 공장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좀 바뀌더라구요.

2003년 3·1절 남북종교인행사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주일날 명동대성당 와서 미사 참여하고, 신자들에게 소개 해주고, 북한 신자 한 분이 독서를 맡아서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사 끝난 다음에 북한 성가대 여성들이 나와서 성가 부르고 그랬지요. 당시 장

재언이나 간부들이 염수정 추기경, 당시는 아직 보좌주교일 때, 당시 강우일 주교는 이제 제주교구장으로 가고 염수정 추기경이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염수정 추기경하고 만났고,⁴ 그다음에는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님 좀 한번 보자.” 하고 강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래요?” 잔소리 좀 하고 그랬어요. 정진석 추기경님은 만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당시에 종교인 행사라 불교 신자들도 오고 개신교 신자들도 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북한 신자들한테 돈을 많이 준다 그러더라고.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기경한테 이야기해서 5만 불 줘서 장재언 위원장한테 주고, 워커힐에서 또 행사했는데 가서 보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요.

마지막으로 민화위의 앞으로의 활동이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뭐 다 했는데요. 분단은 하느님의 뜻에 위배되는 죄악이기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서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표시에서부터 출발하고, 부족하고 아쉬운 것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느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습니다.

4 당시 민화위 위원장으로서 북한 신자들을 만난 사람은 김운회 주교였다.

개성공단 방문과 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운동의 의미

구술자 염수정 추기경
면담자 조한건 신부
일시 및 장소 2024년 6월 27일, 혜화동 주교관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당시 교회 안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대한 생각, 열정, 신자들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염수정 추기경 : 1995년 3월 1일 민족화해위원회가 설립될 당시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은 남북 간의 화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경직된 분위기였죠. 1945년 8월15일 해방 이후 1948년 남북 별개의 정부 수립 이후 분단은 고착되어 갔고 더구나 6·25전쟁으로 극심한 분단의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이제는 분단의 벽은 DMZ를 통해서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래도 없었습니다. 불신과 공격의 행태는 여러 사건을 통하여 일어났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염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징표로 나타난 것이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으로 1972년에 시작되었으나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천주교는 한국천주교 설립 200주년과 1984년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교회 내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고통인 남북분단의 현실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식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에 가장 현실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아픔이 이산가족을 찾고,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 여러 기관에 촉구하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교회는 침묵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동호 아빠스께서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해방 이후 6·25 전쟁과 분단된 상황에서 우선 시작한 것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침묵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 활동할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북한은 1989년 평양에서 3세계 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며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 하였고, 북한에 장마로 인해서 수많은 아사자가 생기고(1995년)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적으로 해야 할 게 뭔지 반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하여 흩어진 이산가족의 만남과 굶어 죽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황님이 1984년에 한국천주교 200주년 행사를 하고, 1989년에는 제44차 세계성체대회 하면서, 우리가 북한 동포에 대해서 정말 해야 할 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반성도 많이 있었죠. 남북의 교류를 위하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장익 신부님과 정의철 신부를 북한에 파견하기도 했었죠. 1989년에는 김수환 추기경님을 초대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상은 무위로 끝났습니다. 평양교구장 서리인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최창무 보좌주교에게 민족화해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족화해위원회 용어 자체가 큰 변화였다고 생각해요. 1995년 3월 1일, 민족화해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것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운동을 하는데,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신자들과 함께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북한의 조선가톨릭협회 장재언(사무엘)과 연결이 되어 우리가 서로 같이 매주 화요일 날 명동대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자고 했습니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은
1995년부터1998년까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을,
2002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공동으로 바치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또 북한도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북한을 돕는 데에 통일기금으로 본당 예산의 3%를 우리가 적립하자고 하셔서 북한에 대한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랑과 나눔을 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분위기가 고조됐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추기경님께서 개성공단 방문하시면서 한국교회의 추기경으로는 처음 북녘 땅을 밟게 되셨습니다. 개성공단 방문의 계기와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남북 간에 교류가 제대로 안 되던 상태였고, 천만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눔을 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많았고, 개성공단에 한번 방문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앞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모습을 실현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개성공단이었

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이라는 하나의 굉장
히 중요한 매개체와 더불어 생산을 이룸으로써 사람의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이유를 떠
나서건, 신앙공동체 안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임가공 업체들 가운데에서 신자들을 중심으로
‘로사리오회’라는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도 생
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북한 땅 안에서 공식적인 기도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움직였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사리오회가 활
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라도 방문하면
만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로사
리오회에서 제가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정세덕 신부가 청와
대와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저의 방북을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우리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의사를 타진하고 준비를 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실 타
협하다가 와해되었다가, 우리 정부에서도 허락했다가 불허했다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습니다. 로사리오회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었고, 또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저는 끊임없이 기도
하면서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될 것이다.’라고 로사리오회에 이야기하였
고, 마침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추기경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로사리오회의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던 공장에 가서 북한의 근로자

들을 만나기로 사전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북한에서 갑자기 막기 시작한 거
예요. 사실 북한에 가서 우리 신자들과 미사를 봉헌하고 오고 싶었습니다. 결
국 그 미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
요한 의미가 있던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교구장으로서 북한 땅을 직접 밟고,
또 북한 사람들을 공장에 가서 만났으니까요.

북한 사람들을 만난 소회를 말하자면, 새벽에 명동에서 떠났거든요. 그래
서 남북 연락 사무소 통과하기 전에, 철조망 문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갔는데, 거리가 한 60km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으로 봐선 한 시간도 못 돼
서 거기 도착한 거죠. 그런데 이 짧은 길을 몇십 년을 거쳐서 들어가게 됐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들어가서 실제로 그분들이 일하는 데를 들어가 봤
어요. 여러 곳을 들어가 봤는데, 신자들이 운영하는 그쪽에 가면 무언지 모르
게 분위기가 좀 훈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 따뜻한
것이 느껴져서, 남북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계획들이 아주 거창하더라고요. 계획으로는 천만 평인데, 일부인 백만
평도 못 되는 곳에서 개성공단이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서는 남북 사무소도
보고, 병원 진료소도 돌아보면서 관계자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을 가진 선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
뚫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박근혜 정부였는데, 독일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건 흡수통일이라 생각하고서 드레스덴 선언을 반대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3대 대북 제안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인도적 문제의 우선적인 해

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또 영유아 및 산모 지원, 모자 패키지 ‘천일동안에(1,000days)’ 사업, 민생 인프라 구축, 복합 농업, 농촌 단지를 조성하고, 민생 인프라 구축과 지하자원 개발,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동질성 회복, 역사 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비무장지대 DMZ에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이었는데 그냥 폐쇄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좋은 싹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냥 뭉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개성공단 방문 당일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 측에서 추기경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북한 측에서 허락해놓고는, 당일에 추기경이 방북한다는 소문을 우리 정부에서 언론에 흘려서, 기자가 280여 명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명동에서 시작돼서 실황중계를 하다시피 해서 개성공단 출입국관리소를 넘어서는데, 이렇게 많은 수의 기자가 난리를 피우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교황님 방북이 계획 중에 있다는 추측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방문을 두고 사전 작업하러 가느냐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진짜 조용히 가서 보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이게 참 인내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북측이든 남측이든 우리 교회의 움직임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양측 모두 1년 동안 저의 개성공단 방문이 어떻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를 자꾸 재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자들을 보러 간다’, 그리고 ‘북한 땅을 밟아서 그곳에 하느님의 손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두 가지 의지를 계속 표명하였고, 그것이 실제화되어 개성 방문이 이뤄진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추기경님이 미사 집전하시는 등 로사리오회 모임이 남아있었습니다. 로사리오회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교구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키워주고 보호해줘야 하는데(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자면 개성공단에 사업을 투자한 겁니다. 근데 일거리가 없어지고 또 개성공단이 폐쇄되어버린 겁니다. 그 보상을 받아야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늦게나마 보상을 해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거기서 노력하고 투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아시다시피 영세한 작은 기업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위치 안에서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이득도 얻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돌아서 나올 때는 거의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나오고, 보험에서 약정된 것 정도만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에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계에 보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계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달라서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서로 간에 협약을 맺으면 그것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돌변해 버리는 것이 참 마음 아픈 거예요. 그리고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조 기술이 숙달되면, 그 산업이 또 발전되어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계획만 거창했고 그냥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 비오 12세 교황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하신 ‘평화로 없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전쟁으로는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맘이 아팠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시면서, 참석한 신자들의 어떤 염원과 열의는 어떠했나요?

저는 민화위를 중심으로 끈질기게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를 통해서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했지만, 또 평화를 위한 기도나 칠락 묵주의 기도를 했고 이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복녘 본당 갖기’ 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정말 살아있고, 또 기도하는 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이 역사를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남길 수 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본당이 처음에는 54개인 줄 알았습니다. 따져보니까 세 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57개 본당 중에 하나씩을 갖기로 했는데, 저는 서울대교구의 교구장이기 때문에 평양교구 서리이기도 하고, 황해도 지역은 서울대교구이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관후리 성당과 황해도 매화동 성당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본당이란 개념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천주교 신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본당이면 그 지역의 신자는 물론이고, 신자 외에 어려움

을 겪거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본당 중에 하나를 정해 기도를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살과 피를 가진 분으로 이렇게 육화하셨는데, 본당도 이렇게 구체화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본당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는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본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본당은 지역사회 안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함께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자들이 교회 밖으로 나간 뒤에도 그 지역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삶을 영위했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했고, 교육받았고, 경제생활을 했던 그런 지역사회 공동체를 주목하시면서 본당을 살리는 일이 결국 북한사회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서울교구 민화위가 진짜로 주목하고 힘쓰고 애쓰고, 우리 교구 자체가 살아나게 해야 할 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살려야 할 길은 북한 본당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녘의 본당들은 공산화가 되기 전에서부터 있었던 거니까요. 그곳의 선교사들은 19세기 말, 1890년 무렵부터 활동했던 거죠. 이렇게 역사가 있고, 삶이 있는 곳이 바로 본당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운동을 했습니다.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밀알

구술자 장금선 신부
면담자 이민석
일시 및 장소 2024년 6월 12일, 서울대교구 범우관 301호

신부님께서 민족화해위원회에 참여하신 계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금선 신부 :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사제가 된 목적은 북한교회의 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향민 2세이고 제 부모님이 신의주본당 출신으로 평양 교구민이었고, 또 제 작은할아버지가 장선흥(張善興, 라우렌시오, 1914~1958) 신부님이고, 삼촌이 장대익(張大翼, 루도비코, 1923~2008) 신부님입니다. 이런 집안 배경으로 어릴 때부터 북한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97년 유학 가기 전에 원래는 북선위 총무로 내정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미 신학생 때부터 북선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동호 아빠스님께서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 부탁하셔서, 지금까지 예순이 넘는 어르신들이 맡던 북선위 총무를 처음으로 30대 젊은이로서 맡을 뻔했죠. 그런데 마침 제 유학이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조금 더 경험하고 와서 그다음에 맡겨주시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북선위 총무직을 일단 미뤘습니다. 대신 유학 장소를 결정할 때도 동방 전례와 성화를 공부하는데 그리스도 갈 수 있었지만, 러시아를 고집한 이유는 공산화됐다가 민주화된 러시아의 모습을 보고 싶었

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북한의 과거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러시아를 갔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연천본당 주임을 3년 하고, 그 다음에 서울교구 민화위에 부임하게 된 겁니다.

민화위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과정은 어떠했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대북지원사업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품 전달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지금 남아 있을지 모르는 우리 신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 제 전임 정광웅 신부님을 비롯한 민화위 역대 신부님들의 활동을 계승하겠다, 이것이 제 목표였고 제 활동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북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북한 퍼주기, 그리고 몇몇 북한 지배층 그네들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 이 세 가지에 따라서 활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이 북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당시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로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대북지원 물품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은 없다'라는 문제로 북한과 한참 실랑이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금강산에 회담하러 갔을 때도 그들은 북한 당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관철해야 하므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에 맞지 않고 누가 봐도 평양과 일부만을 위한 물품 요청이었기 때문에 회담을 엮기도 하고, 회담을 미룬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웅 신부님을 비롯한 전임 신부님들의 노력으로 정말 어렵게 북한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외딴 오지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들은 또 과거 우리 신자들이 많이 살던 지역으로, 황해도 신천과 평안남도 진남포 두 군데입니다. 한국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교우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고, 진남포는 바로 평양 인근이라 오지는 아니지만, 신천 같은 경우는 황해도의 오지 중의 오지라서 거기에 가면 정말 북한의 속살을 볼 수밖에 없는 곳으로 북한으로서도 공개하기 어려워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화위가 신천을 '뚫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로부터 "서울 민화위는 어느 단체도 하지 못했던 것을 했다."고 칭찬을 받았고, 북한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품목을 밀가루에서 콩기름 등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계속 현장을 가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누나나 어른들이 장난으로 '거지발싸개 같은 놈'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거지의 발싸개라는 걸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발싸개를 봤어요. 양말이 귀하다 보니까 천으로 발을 감싸고 다녔는데 자꾸 풀어지니까 길가에 앉아서 그걸 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은 이런 거부터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중국에 양말 공장을 하는 천주교 신자를 찾았습니다.

장금선 예로니모 신부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을
역임하였다.



그래서 그분에게 취지를 설명했더니 몇십만 켈레라는 엄청난 양의 재고품과 또 새 제품을 선뜻 기증해주셔서, 중국에서 바로 함경도 오지로 보냈습니다. 북한은 도로 사정이 열악하여 그곳에서 평양으로 다시 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했습니다.

북한 신자들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대북지원을 하며 제가 노력한 부분은 숨어있는 신자들을 찾아내는 것, 신자들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정말 존재하는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저의 목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도 다른 거는 몰라도 가장 보람 있다고 느껴진 건 뭐냐면 이북출신 어르신과 신부님, 수녀님, 가시겠다는 분들을 몇 차례에 나누어서 북한에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부모님이 늘 고향을 그리워하시다가 고향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고향 땅을 밟아드리게 하고자 했던 것이 저는 지금도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평양 출신 전재선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이미 전쟁 전에 평양 일대에 엄청난 재산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1·4후퇴 때 트럭에다가 집안의 살림과 하인들까지 다 싣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

주에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지을 때, 모자이크 제작비 1억을 혼자서 지원하셨는데, 단 평양 땅 한 번만 밟게 해달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셨습니다. 마침 남북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모시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시고 갈 때 허리가 ㄱ자로 꺾어진 상태에서 건강도 아주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부축하고 모시고 갔는데, 평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두 번째 날 아침 식사 시간에 다들 내려왔는데 그 모녀만 안 내려왔습니다. 뭘 일이라도 났는가 하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딸이 소리를 지르며 식당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뒤로 허리가 ㄱ자로 꺾여졌던 할머니가 지팡이를 내던지고 꺾끗하게 서서 걸어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의 치유, 60여 년, 70여 년 가까이 못 갔던 고향 땅을 밟아봤다는 것이 그 할머니를 그렇게 힘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게 저는 지금 생각해도 뿌듯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에 가서 신자 확인을 했던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전에 중국을 통해서나 여러 경로로 들은 바가 있었지만, 제가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금강산에 회담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쪽에서 너무 열토당토않은 것을 요구해서 회담을 었었습니다. 회담이 하루 만에 끝나니까 시간이 비게 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남한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한번 관광을 하자며 등산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때가 3, 4월경이었는데도 아직 눈이 쌓여 있었는데, 우리 두 사람은 회담하러 갔기 때문에 양복에 구두 차림이어서 얼마 못 가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관광 안 내원 중 두 사람이 우리를 따로 커버해주었습니다. 이 상황은 미리 준비되거

나 예약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커버하는 북한 청년하고 산속에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이 젊은 친구가 누가 보고 있지 않은지 주위를 살피더니 저보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제가 로만 칼라까지 다한 상태였고, “천주교 신부입니다.” 했더니 화들짝 놀라더군요. 다시 또 주변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제 이모할머니가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장충성당 신자들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조실부모를 해서 이모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이모할머니가 장충성당을 나가고 있다.”, 그런데 “장충성당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당에 항상 150명을 채워놓는데 대부분은 그 행사를 위해서 동원된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핵심그룹인데, 정말 전쟁 이전에 신자였던 사람들, 그런데 열혈 공산당원이 된 신자들, 장재언 씨 같은 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할머니 같은 경우. 천주교 신자라는 게 노출이 돼서, 이런 행사 때마다 강제 동원되는 부류라고 했습니다.

천주교회 안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북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선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1차원적인 생각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만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면에 더 큰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합

니다. 북한교회 재건입니다. 교회 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대북 지원만 한다면, 반쪽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전임 정광웅 신부님을 비롯한 신부님들이 왜 그토록 신자들의 옛날 근거지를 찾아다녔는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말씀하시기를, “훗날의 누구라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남측 교회가 우리를 도와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자. 남측 사람이 도와줬다가 아니라 남측 교회가 도와줬다고 생각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원 물품 포장지에 십자가 표시도 넣고 민족화해위원회 마크도 넣고, 그들이 질색을 하더라도 일부러 더 지원 물품 포장에 새겨 넣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한에 대한 기억과 애정을 가진 1세대 어른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보다 더 평균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전쟁 이전의 신앙을 기억했던 사람은, 이젠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다면 남한 천주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세워야 하겠는가.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북한교회는 우리가 언젠가 재건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다시 북한 전역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 교회가 해야 할 목적이고, 우리 서울 민화위나 우리 모든 민화위의 존재 목적도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창무 대주교님께서 서울 민화위 설립을 하실 때도 우리가 결코 북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만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북한을 이야기하면 지금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 그것이 왜, 나랑 무슨 상관인데 등...’ 그러나 분명 상관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의 반쪽이고, 분명히 우리의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 분단 상황은 아직도 완전한 해방을 맞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하나 됨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뒀야 하겠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더라도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선교 인력 양성이라든지, 선교기금 모금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식 개선, 연구, 강의,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북한교회 재건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서울 민화위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천주교에 대한 기억도 없는 북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천주교를 어떻게 다시 인식시키고, 또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천주교가 자리매김할 것인가. 우리 민화위는, 지금 특히 대북지원이 다 막히고 대북 활동을 거의 못 하게 된 시점이지만, 오히려 이런 현실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우리도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이미 30년 전에 로드맵이 완성돼 있어요. 그들은 교단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 정말 혼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큰 교단들 중심으로 해서, 연합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두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운다』, 『북한교회 재건 백서』, 이 두 가지 책을 이미 만들어서 교단별로 지역을 할당했고, 그래서 또 교단별로는 자기가 맡은 지역의 선교 인력, 선교 자금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학술적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과 북한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부럽기 짝이 없었어요.

이 로드맵은 주교회의 민화위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었고, 또 서울 민화위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었지만, 결실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로드맵을 준비한다면 바로 그날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공산당한테 학살당하신 6대 평양교구장이신 홍용호 주교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가자!(Surgite Eamus)’ 젓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일어나 가자. 자,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때가 오히려 지금 우리의 출발점이고 새로운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의 무관심에서 일어나서 모두가 애정을 갖고 바라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통일(統一)’이 아닌 ‘통이(通異)’

구술자 오혜정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면담자 남소라(한국교회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일시 및 장소 2024년 6월 17일(월), 한국교회사연구소 회의실

서울 민화위 부임 전에도 북한 관련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학과 입학 동기가 궁금합니다.

오혜정 수녀 : 제가 학교를 입학한 동기는 먼저, 저희 수도회의 역사와 관계 있어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는 1932년 평양에서 설립됐는데, 6·25 때 저희 선배 수녀님들 열한 분이 못 내려오셨고, 다른 분들은 피난을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은 모원인 평양을 항상 그리워하며,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수도회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될 줄은 몰랐죠 (웃음). 공부를 제안받았을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라 무척 당황했지만, 아무튼 시작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학교 다니는 것도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다녔는데 학위논문을 어떻게 쓸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학교 성당에 먼저 가서 예수님께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할 말이에요. 나한테 뭘 원하세요.’ 하면서 계속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논문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아, 통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일된 다음이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과 북은 너무나 오래 떨어져 살았고, 남쪽이나 북쪽이나 너무

다른 문화와 역사 속에서 살고 있어 통일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사람을 통해 통일사회를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북한과 남한 양쪽 사회를 다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났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한 인간의 삶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그들의 사회 적응 측면에서 설문을 시작했죠. 그분들은 웬 이상한 옷을 입은 아줌마가 와서 막 물어보고...(웃음). 무조건 그냥 찾아갔어요. 굉장히 용감하게 공부했죠. 그리고 1996년에 졸업했는데 이때쯤 한 북한이탈주민이 남쪽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중국으로 밀항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 지도교수인 이상우 교수님이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셨어요. 교수님이 회의 중 "아, 그렇지 않아도 내 제자가 지금 탈북민 적응에 대해서 논문 쓰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통일부에서 너무 반가워했고, 그래서 제 논문이 이슈가 됐죠. 1995~1996년 북한에 큰 홍수 피해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으로 대거 입국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통일사목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통사위의 주요 활동 중 하나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활동이었어요. 그때 통사위 위원장은 이기현 주교님이셨어요. 그때는 신부님이셨죠. 신부님하고 탈북민 방문도 엄청 많이 다녔죠. 제가 쓴 논문은 논문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저의 사도직 활동과 연계됐죠. 그야말로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논문을 쓰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죠.

통일사목위원회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로 통합되고 얼마 뒤인 1999년 4월 13일 북한민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하이모(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가 만들어졌어요. 하이모 탄생의 주역으로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북에서 내려온 부부랑 아들 둘이 있는 가정에 방문했어요. 아이 엄마가 "우리 애가 학교생활을 너무 힘들어해요."라며 아이 문제를 호소했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학교에서 뒤에 앉은 애가 흰 티를 입은 이 아이 등에 '북한'이라고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화도 나고 속상해서 그 뒤에 앉은 애를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속상하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며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아이는 부모에 의해 남쪽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야 하는데 친구도 없고, 너무 안됐더라고요. 일단 애가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 '아! 모임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애네들하고 일대일 매칭을 해서, 형처럼 누나처럼 언니처럼 그렇게 좀 지지해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가고요. 이 아이들의 부모는 자기들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남쪽에 대한 이해도 없기 때문에 못 해줘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면 북한 아이가 되고, 집 밖에 나오면 남한 아이가 되고,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은 여기서 살며 남쪽 문화에 대한 흡수가 빠르잖아요.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남쪽을 더 이해하는 면도 깊고, 넓고요. 그런데 부모들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북한에서 살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양쪽 다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모를 만들었어요. 남쪽의 언니·누나·오빠·형과 북쪽의 아이,

이렇게 같이 하나를 이루어 간다, ‘이룬’이 아니라, 우리는 진행형이에요. 하나를 이루어 가는 모임, ‘하. 이. 모.’ 그렇게 하이모가 만들어졌는데, 결국 그 아이는 부모와 계속 편치 않았고, 그러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친구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지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며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계속 모았고, 저희가 알고 있고 소개받은 대학생들, 수사님들, 천주교·개신교·불교 신자, 종교 없는 친구들 등 굉장히 많은 도우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나는 이렇게 내 동생을 만났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도대체 애는 이해가 안 간다.”고 고민을 나누면, 저희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며 같이 만들어나가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이 모임은 동생들도 도움이 되었지만, 도우미들이 북한과 북한 이탈주민을 많이 알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우미 교육이 필요했어요. 북한 이해 교육도 있었지만, 나를 이해하는 교육도 필요해서 MBTI도 하고 그렸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같이 가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며, 그 안에서 커플도 나오고, 수녀님이 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님 중에 도우미 활동하던 분은 수도회 안에서 ‘띠앗머리’를 설립해서 북한이탈주민 멘토링을 더욱 확장하여 활동을 지속하고 계세요. 하이모가 그렇게 시작됐고,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남한에 와서 가장 크게 호소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편견’이에요. 과연 우리가 정말 북한을 바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한된 어떤 정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역대 정권들이 남북

오혜정 스바니아 수녀는
1992~1994년 북한선교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통일사목위원회,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관계를 이용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 일단은 서로 모르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죠. 그러니 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북한과 우리는 사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낯서니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이분들은 너무 외롭죠.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편견에 사로잡힌 이 남한사회에서 살아내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이모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부모가 가자고 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왔고, 와보니 휘황찬란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부모는 집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아이들은 눈치만 봐야 하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한창 경험해야 하고, 뛰어야 하고, 움직여야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언니·오빠·형·누나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놀이동산도 가고, 캠프도 함께하며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줘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조금 더 자신 있고 자기의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그냥’이었어요. 2박 3일 어디를 간다고 하면 계획이 있잖

아요.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애네들이 마음껏 하루종일 물놀이 하고 싶으면 물놀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 할까?’ 물으면, ‘그냥 해, 그냥!’이라고 했어요.

종교를 권유하지는 않으셨나요?

권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북한에서 종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이야기를 하면 ‘봐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탈북과정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개신교의 천주교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북한노래 부르고, 놀고, 간식 먹고, 재미있게 게임하고, 그렇게 종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재미있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씩 했어요. 그들이 “천주교는 마리아 믿는 데 아닙니까?”라고 물으면,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되물어요. 그럼 “조선의 어머니로 존경합니다.”라고 답하죠. “우리도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하면, “아, 그렇습니까?”라고 답하죠. 북한사회와 연결을 해서 아주 조금씩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표정으로 그들과 함께할 때, 그다음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조금씩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거부반응이 일고, ‘봐, 역시 그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그리고 북한노래를 신나게 불렀죠. 그래서 더 편안해했어요. 거기

가면 북한노래 부를 수 있다, 가사만 조금 바꾸면 너무 예쁘고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했고. 좋아했어요. 신나게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왔지요. 그런데 ‘왜 성당 오라는 이야기를 안 하지?’라며 의도를 궁금해하죠.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성당 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내는 해드리겠다, 그리고 천주교·불교·개신교 다 다녀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끌리는데 있으면 거기 가도 된다고 말해줘요.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더 와요. 그래서 일단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들이 선택하도록 조금 기다려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원 봉사자들에게도 그렇게 안내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드렸어요. 일대일 홈스테이 할 때도 천주교 강요하지 말라고 했고, 봉사자 교육할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사랑으로 먼저 대하라고, 그럼 오히려 나중에 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하느님의 이끄심이 보이는 수녀님의 사명이네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저라는 작은 도구를 통해서 하느님이 하신 일이지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느님이 하신 일이에요. 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민화위의 북향민 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4년에 오셔서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

를 봉헌해주시면서, 남과 북이 ‘형제’임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 긴 분단의 시간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교회조차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인식시키는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후 세대들이 워낙 많고, 우리가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됐고, 이 주민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조금 달라지는데, 민족문제만을 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확장해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는 것이 포함된 평화의 개념을 민족화해위원회 안에서 조금 더 깊게 확장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남북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남북문제는 지역 문제를 넘어서 국제문제가 됐기 때문에. 동북아, 나아가서 세계문제, 또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를 둘러싼 아주 첨예한 긴장 속에서 우리가 비평화라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아님을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이야기하나요? 싫어도 할 건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민화위가 민족화해를 포함한 평화에 대한 것을 좀 강하게 어필도 해주시고, 어필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액션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를 겪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바른 인식, 긍정 강화의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 중에서도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그것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남북하나재단이라고 통일부 부속기관인데,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요.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정부가 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이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

고, 잘한 것처럼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눈높이에 조금 더 맞추고,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통 북한이탈주민이 정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거든요. 한국 입국 당시 필요가 다르고, 하나원 수료했을 때의 필요가 다르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좀 찾아 나서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그들을 오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평화에 대한 큰 틀에서, 각 지구마다, 본당마다 평화를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하고, 느끼고, 만들어나갈 것이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후대는 더 감이 없는데 우리가 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족화해위원회 30주년사』를 집필하는 데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북한을 너무 몰라요. 우리 식으로 알고 있죠.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만나고, 편견 없이 만나야 더 친해지는 거잖아요. 일단 저쪽 시각으로 좀 보고 저쪽을 먼저 좀 아는 그런 노력을 민화위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하느님이 남쪽만 예쁘다고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북쪽도 예뻐하세요. 우리는 제대로 알 수도 없었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고, 그것을 문제 제기하지 않았고, 진짜 비정상적인 이것이 우리는 너

무 익숙하잖아요.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고, 그들도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통일(統一)’이 아니라... 서강대 김영수 교수님은 ‘통이(通異)’다, 다른 게 하나가 되는 거지, 똑같이 되는 게 아니다 하셨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이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한 연습을 통해 언젠가 만나게 될 그들의 다름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평화나눔을 향한 발걸음의 시작

구술자 정세덕 신부

면담자 이병윤(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원)

일시 및 장소 2024년 8월 23일, 서울대교구 이종국관

남북 정부 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2011년 8월)에 부임하셨는데, 처음 부임하셨을 때의 소감을 들려주십시오.

정세덕 신부 : 사실 저는 북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 저는 미국의 평화신문에 있다가 한국에 오게 됐고, 미국에서 비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평화신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주교님이 민화위의 일을 부탁하셔서 사전에 준비도 없이 민화위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화위에 와서 처음부터 굉장히 커다란 사건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주교님들의 당연직이었습니다. 당시 민화위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몫을 교구에서 차지하고 있었는데, 실제 하는 일을 들여다보면 남북관계의 정치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왜 날 여길 보내실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본당 신부가 적당한 나이가 되면 다 본당 가서 신자들하고 사목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민족화해위원회, 그것도 본부장직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제가 민화위에 오자마자 북한에 큰 수해가 났고, 아마도 2010년도엔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서 북한하고 사이가 굉장히 아주

결끄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민족화해위원회가 뭔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어떤 개념이나 생각,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부장직 맡았을 때는 북한의 수해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많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주민이 고통받는 시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북한의 수재민을 돕자는 모금운동이 자연스럽게 벌어졌고, 그 모금된 금액으로 저희가 북한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실무 책임을 맡게 되면서 통일부, 청와대, 매스컴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북한의 실무자들이 요청해왔던 것에 대한 응답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 북한 실무자 측에서 그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그럼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개성에서 북한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발 한 발 민화위에 발을 디디게 됐고, 또 급속도로 깊숙이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13년이라는 제 황금 같은 청춘을 이렇게 민족화해위원회에 바치게 됐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사제로서의 어떤 소명과 비전,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에서 민족화해위원회라는 하나의 구성체가 다만 그냥 명분의 구성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평화와 세계 평화, 또 더 큰 테마를 생각할 수 있는 단체가 된 것 같습니다.

밀가루 지원사업을 교회가 결정하게 된 배경과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제가 민화위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남북관계가 단절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이 도와주셨는지, 제가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북한 사람들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성에서 북한 사람들과의 첫 만남에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신자라고 해서 왔고, 그 이전에 조선기독교협회라는 단체가 하나의 공식적인 북한의 조직으로서 저희하고 접촉을 해왔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양식에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만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들에게 한 첫마디는 “나는 북한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북한에 내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주교님의 명에 의해서 사제로서 이곳에 와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도, 그런 공식적인 입장에서 대하는 것이 편하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조심할 수 있는 것은 조심하고, 또 나름대로 마음 편하게 터서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하자.”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신부님들은 북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다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하셨습니다. 또 북한 사람들에게 애원하듯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런 모습으로 북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너 나이가 몇이야? 너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너 말 편하게 놓을게.” 하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당신들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들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직해야 하고, 확실하게 책임져야 할 것은 서로 책임져야 한다.”는 모습으로 저는 그들에게 계속 요구를 했고 설득하여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가 준 2억 원 정도 가치의 밀가루 2백 톤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위해 어디에 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식량이 북한에 들어가면 자기네들 손을 떠나 배급소에서 배급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 한두 군데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주고 싶은 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요청했던 데가 안주였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단체는 조선카톨릭교협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7급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들과 협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에 찢찢매고 또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당신들하곤 등급이 안 맞는다, 당신들 책임자 불러와라,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일을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날 만나고 싶으면 우리랑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들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막무가내이기도 했지만, 저는 북한 사람들하곤의 대화에서 우리들의 위상이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입장에서 북한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북한을 그다음 달에 방문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하느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비록 이 일

정세덕 아킬레오 신부는
2011년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으로 부임하였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신부로서 그냥 내가 하고 싶고 편한 거, 내가 행복한 걸 찾아서 신부 생활을 했지만, 하느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싶은 소명이 이거였다.’는 것을 제가 북한에 가서 북한의 현실을 보면 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사제로서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북한의 이곳저곳을 보고 느꼈던 것은 누군가 이 사람들을 위한 도구가 되어 줘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를 하나의 정치조직으로 보는 대신 북한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아,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구나. 이 일이 어떤 형태의 일이든 간에 정말 하느님과 신앙을 위해서, 신앙이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이걸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민화위 일을 하게 된 겁니다.

2012년에 처음 기획한 ‘평화의 바람’ 프로젝트의 참여 대상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첫 프로젝트의 참여 대상으로 청소년에 주목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화위에 와서 제가 북한을 다녀오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남북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가족들의 문제인데, 점점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나하고는 관련 없는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 현역생활을 했지만, 군대에 가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터부시하고, 싫어하고, 또 이것이 마치 흡수저들이나 가는 곳이고, 군대를 빠지는 것은 가진 사람들의 특권인 것처럼, 젊은이들이 인식하는 것에 관해서 참 이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간다는 것이 꼭 전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들을 지키고, 자존심을 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저는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바꿔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저는 체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모여서 공통의 주제를 놓고, 체험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화, 행복, 기쁨, 사랑, 희생과 같이 추상적이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안에서는 굉장히 현실화해야 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서로가 별개의 외계인들밖에 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함께 살아갈 날을 위해 의식과 생각을 바꾸고, 서로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젊은이들이 자기의 가치관, 의식,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평화의 바람’이라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저 나름대로는 어떤 의미를 주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평화나눔연구소의 설립 배경이나 필요성, 목적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연구소에 주교회의 민화위 연구자, 연구를 맡았던 신자, 박사님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연구소가 평화포럼을 시작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세미나와 포럼이라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세상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하자라는 의지였는데, 그 대주제를 평화로 잡았습니다. 평화나눔이란 이름은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고자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 이름도 평화나눔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처음에 모였던 박사님들은 나름대로 신자로서 옛날 주교회의 민화위 산하에 있었던 연구단체에서 일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임을 하면서 제가 꿈꾸었던 것은 우리만의 평화를 이야기해서는 평화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평화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할 것이고, 전 세계 평화에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구체적인 축이 될 수 있는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다른 여러 분야의 분들에게 연구소를 소개하고, 함께해 주실 분들을 찾으면서 점점 외연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외연을 확장하기 전에 일반 평신도들을 위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으로 평화나눔학교를 한번 실천하려 했습니다. 첫 두 해는 잘 되다가 소재가 고갈되고, 또 당시에 모였던 지도하고 가르치던 분들이 조금 연로하시다 보니까, 방법론이 구태의연해져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평화나눔학교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연구소와 민화위가 하는 여러 행사나 일들이 서로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와중에 북한 사람들하고의 만남도 성사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록하진 않지만, 제가 북한도 직접 방문을 했었고, 북한 사람들을 중국에서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런저런 경로로 조금씩 만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만나게 됐던 이유 중 하나는 북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좀 다른 형태로 꿈꿨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화나눔연구소에서 주관한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에 참여하셨던 세계 각 지역의 추기경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다면 나누어주십시오.

모든 말씀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처음에 제일 주목했던 것은 우리와 같이 분쟁을 겪었던, 그리고 그 분쟁의 한가운데에서 사목했던 분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칸반도를 주목하게 되었고, 실제로 발칸반도를 방문하여 그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한테 의지해서입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반도의 실정에 비추어 보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게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에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눈앞에 있는 결과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민화위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의 미래, 또 어떻게 보면 통일된 한반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 너무나 많이 단편적으로, 또 단적으로 결정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열어놓고, 듣고 보고 준비하고 하면서 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북경에 가서 북한 측 관련자들과 만나 장충성당 성탄절 공동 집전과 같은 행사를 논의했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논의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요. 제가 계속 요구한 게 사순 대림 때 제가 북한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북한에서 지낸 다음 성탄절 미사를 북에서 함께 지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요구를 했어요. 제가 듣는 데서는 북측 사람들이 넘죽 인사하며 “아이고, 그러셔야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족화해위원장으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공식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사순 대림 때, “내가 결끄럽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사제를 요청해라. 그렇지만 나는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너희들에게 가서 대림과 성탄을 장충성당에서 지내겠다. 그리고 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에게 불편함을 하나도 끼치지 않겠다.

내가 필요한 거, 세끼 밥을 직접 지어 먹고서라도 나는 성당을 지키고, 거기서 매일 미사를 드리고, 대림 성탄을 지내겠다.”라고 저는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랬지만 전혀 반응은 없죠. 그 사람들은 항상 앞에서는 “아, 그러셔야죠. 그러셔야죠.”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2015년에 시작한 ‘내 마음의 복녁 본당 갖기’ 운동은 어떻게 계획하게 되신 건가요?

전국 교구의 교구장님들을 직접 다 만나 뵙고, “우리 서울교구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 이것이 통일을 위한 준비운동과 기도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염 추기경님도 지난번 인터뷰 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잘했지만, 저희는 본당이라는 공동체성에 굉장히 주목했어요. 그래서 본당이라는 공동체 속에 신자가 10%밖에 안 됐더라도, 신자가 아닌 나머지 90%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섞여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런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본당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잊지 않고자 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그곳의 공동체성을 되살리는 것이 통일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역사적인 귀결도 그렇고, 또 그 안에서의 삶의 재발견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복녁 본당 갖기’ 운동은 비록 우리가 그곳의 출신은 아니더라도, 정말 기도으로써 함께 엮인 본당을 만들어서 그곳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려내어 실질적인 통일 기도운동을 해나가자는 얘기였어요.

북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신도들의 첫 반응은 어떠했나요?

예상은 했죠. 그래서 그 본당의 역사, 삶, 신앙 활동과 같은 것들도 신앙의 증거로 신자들에게 다 알리고, 북한교회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알 수 있는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모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가령 황해도 해주교회를 소개할 때면 해주교회의 역사, 그들의 삶과 신앙을 구체적으로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면서 이 기도운동을 굉장히 구체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구가 구체화한 기도운동을 각 교구가 호응해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각 교구에 줘서 그 어떤 지방교구도 기도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꾸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주목한 건 신학교였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강론하면서, 신학생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호응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의 각 본당을 가능하면 하나의 복녁 본당과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는 구체적인 사업을 생각하게 됐어요.

‘내 마음의 복녁 본당 갖기’ 운동의 긍정적 영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제일 깜짝 놀랐습니다. 미래교회의 주역인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구나. 정말 운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 기도 안에 북한교회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북한교회를 살릴 수 있구나.”라고 신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깊은 감명

을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젊은 세대가 운동의 취지와 의미에 조금 더 주목해서 좀 더 길게 보고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기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영적인, 내적 쇄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나 남북관계를 위해서, 북한의 가난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적인 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 신부님들이 여기에 좀 더 주목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앞으로의 민화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25주년사 편찬 작업 때에도 이야기했는데, 25주년, 30주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본다는 건 중요하지만 그 역사가 열려 있는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큰 뜻이, 큰마음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합니다. 통일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는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살 사람들이고 우리의 핏줄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북한에 가서도 깜짝깜짝 놀란 것 중에 사람들을 만나면요, ‘고향이 어디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 울진이에요.’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우리도 북한에 고향을 둔 이산가족이 많이 있지만, 북한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이 연관성이 없으려야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연관성이 지금 정치 체제나

국제관계의 어떤 역할 안에서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좀 길게 보고, 큰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화해위원회의 오늘과 내일

구술자 정수용 신부
면담자 김가흔(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원)
일시 및 장소 2024년 7월 15일, 한국교회사연구소 회의실

민화위 부임 직후의 상황과 부임 당시 계획이나 각오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수용 신부 : 발령받고 들었던 이야기가 서울 민화위가 좀 더 전국의 다른 교구 민화위와도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활동하면 좋겠다는 것과 민화위 내의 여러 사업을 정비해서 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교회 내외의 여러 가지 의견들, 또 전임자가 중점을 두어 진행했던 부분은 잘 이어나가면서, 또 약화된 부분은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임하신 지 이제 2년 정도 지나셨는데, 현재 민화위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이나 방향성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부임 초기에는 저도 북한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민화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민화위 위원이라거나 그밖에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부위원장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어떻게 창립되고, 어떤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이어왔는지 먼저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해서 우선 급하게 해야 할 업무들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민화위를 처음 만드셨던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 당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광웅 신부, 최창무 대주교, 조광 교수 이런 분들 찾아뵙고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같이 민화위의 첫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기획했던 세 가지, 기도, 나눔, 교육·연구에 대한 사목적 비전을 다시 일깨워주셔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눔은 지금으로서는 어렵고, 기도는 언제나 가장 중심이 되고 더 확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도 하고요. 지금의 남북관계 안에서 그나마 좀 더 준비하고 힘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교육과 연구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민화위가 북측과 여러 가지 협력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때, 더 많은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교육과 연구일 것 같아서, 현실적인 여건도 그렇고 앞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교육과 연구 사업에 좀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 북한과 교류가 가능해진다면, 대북지원사업을 재개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초기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는 당시 북한의 열악한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종교적 자유가 좀 더 보장됐다면, 또 다른 형태의 교

류가 가능했겠지요. 그렇지만 1995년이라는 상황이 고난의 행군 기간이었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나눔의 형식이 종교교류가 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인도적 지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다시 남북 교류가 가능해진다면, 교회의 관심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종교 자유를 좀 더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북측의 가톨릭 단체와 종교적 교류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의료나 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식량도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만, 평양 이외의 지역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인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의 천주교 단체와 서로 신뢰를 더 쌓고, 교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후에 다양한 종교적 교류 사업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과 교류하고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북한에 신자들을 늘리고, 과거의 천주교 조직을 다 복원해서 성당을 다시 짓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질화된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결국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길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아픈 이가 있다면 그들을 먼저 돕는 거고, 굶주린 이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는
2022년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민화위 활동을
이끌어오고 있다.



민화위에서 수행하는 북향민 지원사업은 다소 사회복지 영역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는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향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북향민이 많이 거주하는 양천구 지역을 담당하는 가톨릭사회복지기관인 한빛복지관에서 민화위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직접 정착도우미 활동이나 지원 등은 이미 지역별로 가톨릭사회복지법인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화위에서 북향민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함께하는 것은,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사람들에게 “북한과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보자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네.” 하고 대답을 했겠지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다시 물으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북측에 사는 2천만, 2천5백만 되는 사람들과 이미 많이 이질화되어 있는데, 그들을 형제자매로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이미 있는 3만4천 명의 북향민을 먼저 끌어안고 그들과 한 형제로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북에서 오신 분들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민족의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정치적 체제로서의 통일을 이루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회주

의 안에서 살아왔던 이들을 우리가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북향민들이 이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어울려 잘 살 수 있고,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민족화해위원회도 그분들과 동반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민화위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수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갈등이 극복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갈등 상황에 있다는 인식, 그리고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미국의 존 폴 레더락(Joh Paul Lederach)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 분단이 그냥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 점점 무관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는 군사적 위협 행위를 했을 때도 그냥 하루짜리 뉴스, 단신으로 처리되고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이미 분단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상황인데, 저는 그 분단이 만들어내고 있는 비폭음적인 문화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혐오, 경쟁,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서 상대방이 변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민족화해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인 이든 신앙을 아직 갖지 않은 분들이든 민족화해위원회가 이 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는 결국 갈등 극복에 대한 희망 혹은 평화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활동이 결국은 이 사회를 조금

씩 복음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화위의 활동이 오늘날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통해 추구하는 방향성과 궁극적인 목표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분단 현실, 북의 실체, 북의 현실적인 상황 이런 것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교육한다는 측면보다는, 같이 고민하면서 관심 갖게 하는 게 연구의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학술적 차원에서의 연구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학술적 연구 결과가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화위의 교육 사업도 ‘여러분은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배우세요, 좀 더 아세요.’ 이런 일방적이기보다는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러면서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찾아내고, 복음적 가치를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교육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분단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분단의 역사가 남아 있는 현장들을 함께 걸어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소감을 나누고 이런 형식의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화라는 주제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 가치이면서, 전문적 주제이기 때문에 일반 학계에서 논의되는 것과 함께, 교회가 생각하는 평화의 방식, 평화의 길에 대해서 또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 시대의 언어로 함께 이야기해

야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연구되는 부분도 같이 교회가 대화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민족화해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교육 연구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방향의 활동을 DMZ국제청년평화순례라는 사업으로 꾸준히 계속해오고 있는데, 행사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고, 지역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민화위의 역량에도 제한이 있는데, DMZ국제청년순례 행사만 계속 추진하는 것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교육의 자리들이 후속 작업이나 사전 준비 없이 한순간의 이벤트, 좋은 추억 만들기로 끝나서는 한계가 크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조심하고 세밀하게 기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 역량과 재원이 그동안 과다 투입된 측면이 있어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청년뿐 아니라 일반 교우들도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 두 번에 걸쳐서 일반 교우를 대상으로 하는 평화기행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첫 번째 3월에 했던 행사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도 이런 기회를 좀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대상에 맞춰진 교육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사목자가 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 내에서 좀 더

평화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신학생 연수도 작년부터 진행했고, 앞으로 기획 중인 것으로 사제 연수, 수도자 연수, 수도자 기행 등이 있습니다. 교회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화순례의 후속 사업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작년에 모였던 청년들과 후속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주교회의 민화위에서 냈던 「평화와 화해」라는 교재로 행사에 참여했던 이들과 함께 후속 모임이 지속됐고요, 아카데미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 민족화해위원회 30주년을 맞이해서 민화위 초창기에 시작했던 민족화해학교를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한번 복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강좌 형식의 교육을 하고 마무리로 기행을 접목시킨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천천히 계속해서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더불어 청년평화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장소를 방문해서 기행하는 형태가 아닌 평화에 대해 함께 나누는 형식의 과정을 올해 3월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번 시도 해봤고요,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서 좀 더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획 의도를 다 실행할 수 있었는지 모

르겠지만, 청년들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만족도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이 아니고 1박 2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욱 잘 기획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새롭게 시도해 보고 있어서 모든 결과가 다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중 하나가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으면,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하겠지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 그간 지속하였던 국제청년 행사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단법인 유니타스의 설립 목적과 유니타스와 서울대교구 민화위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민족화해위원회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때 북측의 파트너 단체가 조선기독교교회협의회였습니다. 전임자 정세덕 신부의 고민은 좀 더 다양한 교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형태의 유니타스를 민화위 부설로 만드셨지요. 그러나 지금은 민간 교류가 정부 차원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를 맡고 있는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개인적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창구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천주교 단체가 좀 더 남쪽의 천주교 단체와 교류협력이 많아져서, 북측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지역 내에서의 천주교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상대를 다변화하는 것

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상대를 일원화하되 더 깊이 관계를 맺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민족화해미사가 지난주로 1426회가 되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요? 이 미사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민화위 부임한 지 2년 정도 지났으니 오시는 분들이 대충 구분이 되지요. 그냥 평일 저녁 미사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별히 이 미사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민화위 후원회원이나 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거나 혹은 2세라든지 이런 관련 있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저녁 미사 시간 맞춰 오신 분들도 이런 미사를 계기로 민족화해 사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를 좀 더 알리고 소개하고 더 많은 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화위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하셨던 분들에 대한 평가가 될까 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한동안 민족화해미사가 그냥 방치되었다고 봅니다. 위원회 담당하는 신부들이 미사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서울교구의 새로 부임한 신부들에게 외주화해서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었던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1,400차, 1,500차 미사 등 특정 기념일에 좀 더 홍보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반적으로 민족화해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이어질 때 이 미사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관심

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사도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미사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알리기 위해서, 강론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남북 현안들, 북한 뉴스 중에 한가지 정도 기도 지향으로 소개하면서 공지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북한 본당을 하나씩 선정해서 관련된 그림을 전시해서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에서 ‘내 마음의 북녘 본당’으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지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의 민화위의 활동과 어떻게 연동될 수 있을까요?

어떤 캠페인이나 운동은 발생기와 성장기, 그리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화 운동 이런 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계속해야 하는 거겠지만, 이를테면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내 탓이오’ 운동을 해서 효과가 있었지만, 요즘 그 운동을 기억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런 가치관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겠지요. 북한교회를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내 마음의 북녘 본당’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지속하는 과정에서 새로움을 주지 못하고 활동성을 잃어가게 된다면 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교구 민화위에서도 미사 때마다 본당 한 개씩 기억하는 활동들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들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 형식은 지속되기 어렵고, 회원 가입 없이 다 함께할 수 있는 운동 차

원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출구전략의 일종이지요. 지속적인 회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니깐요. 북한의 본당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취지는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해와 일치가 필요한 것은 북한보다도 남한교회 안에서가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화위의 향후 활동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소위 말하는 남남갈등이지요. 어떤 진보적 정책이든 보수적 정책이든 대북정책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게 되는 그런 문제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정치적 이슈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북한을 위협과 경쟁의 대상으로 보느냐, 혹은 포용과 지원의 대상으로 보느냐, 이 구분에 따라서 모든 정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내든지 그 메시지가 소비될 때는 이런 양극화된 이념적 지형 안에서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우파적이다, 저것은 매우 좌파적인 시각이라 이야기하곤 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소비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회가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는 우리 사회의 이런 지형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민화위의 단독 사명이라기보다는 한국교회나 서울교구 전체가 관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민화위는 이런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화위도 나름의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결국 저는 이 사회가 듣든 듣지 않든, 교회는 복음적 메시지를 꾸준히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민화위의 활동에는 신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관심을 불러일으킬 방안에 대해 생각하신 바를 들려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영상을 찍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는 모든 활동이 민화위 활동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느냐 하는 부분은 뭐 하느님이 잘 가꾸어 주시고 또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겠지요. 비가 온다고 해서 씨를 뿌리고 비가 안 온다고 씨를 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민화위가 지금 해오던 일을 열성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청년의 관심을 늘리는 것이, 민화위뿐 아니라 많은 조직의 고민이지요. 민화위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청년 모임들을 조직하고 있고, 또 하나 토마스회라고 평화학이나 북한학을 연구하는 청년 연구자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어려움을 좀 겪었기 때문에, 청년 연구자들과 함께 모이고,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번 7월부터 주보에 홍보하면서 다시 한번 조직해 나가려

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 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해야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민화위 30주년 행사를 기획하는 소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이요? (잠시 침묵) 음 지하실 창고에, 앞으로 걸어 나갈 때 쓸 수 있는 중요한 지도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서류에 섞여 있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위원회를 만드신 분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해오시면서 고민하셨던 분들의 지혜를 찾아봐야 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 뭐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느냐 물어본다면 저는 뭐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저보다 먼저 고민하셨던 분들,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의 3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요. 잘못 갔던 방식에 대한 반면교사도 담겨 있을 것이고, 초반의 설레는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강력한 의지가 함께 모였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지하실 창고를 나와서 같이 바라볼 때,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도 거기에 있을 것 같고, 의지도 있을 것 같고, 또 지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민화위가 걸었던 30년의 역사를 잘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30년사

펴낸날 2025년 3월

펴낸이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별관
대표전화 02)753-0815
<https://www.caminjok.or.kr/>

펴낸곳 (재)한국교회사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30 평화빌딩
대표전화 02)756-1691
<http://www.history.re.kr/>

총괄 조한건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정수용 신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원고 작성 김가흔, 남소라, 송란희, 이민석, 이병윤

감수 노길명, 조광 교수

자료협조 가톨릭신문,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디자인 권숙정

번역 김정민, 김지원

인쇄 분도인쇄소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이 책의 저작권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 있으며
허가 없이 무단 복제와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